출판도시 인문학당

시인 시인 시인

문인 문인 문인

학인 학인 학인

당인 당인 당인

Paju Bookcity Inmunhakdang 2014

pajubookcity
출판도시문화재단

2014

출판도시인문학당

시인

문인

학

당

인문학 열풍이 자못 거세다. 지자체, 도서관, 사회단체 가릴 것 없이 강좌가 넘쳐난다. 기업에서까지 인문학을 화두로 올리는 일이 심심찮이 눈에 띈다. 인문학 위기론이 마치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인문학의 보루여야 할 대학에서 인문학은 거의 고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독서율은 날로 내리막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출판계도 '단군 이래 최대 불황'에 잔뜩 움츠려 있는 실정이다.

파주출판도시는 세계 유일의 출판문화 클러스터다. 출판도시가 가진 경쟁력을 우리는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5년 전부터 출판도시를 독자들이 찾아오는 공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한층 활발해졌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파주북소리 같은 큰 규모의 책축제가 봄과 가을, 출판도시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고, 파주 북시티 국제출판포럼, 파주북어워드 같은 국제행사가 뿌리를 내렸다. 상설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독자들의 요구는 언제든 찾아와 책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혜의숲'과 출판도시의 특성을 살린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출판도시 인문학당'으로 이어졌다. 파주출판도시가 사시사철 지식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인문학의 토대를 받쳐주는 한 축인 출판사들이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식의 조직자'인 출판사들이 앞장선 만큼 인문학 본래의 의미에 값하면서도 인문학의 대중적 확산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그 첫 해인 2014년에는 모두 103강좌가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출판사들의 구체적인 출판 성과를 바탕으로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프로그램 면면을 살펴보면 토요 북콘서트, 주제별 심층강좌 등 재단이 직접 진행한 54개 강좌 외에도 출판사와 관련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49개를 공모 형식으로 모집해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토요 북콘서트는 음악을 곁들임으로써 대중성 높은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영화와 클래식, 철학, 신화 등의 주제를 밀도 있게 다룬 심층강좌는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우리 사회 인문학의 발전과 본령 찾기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파주출판도시는 지식의 생산자인 학자, 연구자들과 독서대중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출판 기획자 및 열혈 독자들과 토론하고 교감함으로써 우리 인문학은 상아탑에서 나와 한층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103개의 강좌 가운데 26개의 강좌를 모아 만든 자료집이다. 강사들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모든 원고를 모을 수는 없었다. 강의 내용을 원고로 정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 아래 진행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을 더욱 발전시켜 함께 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새삼 깨닫는다.

2015년 1월

김 언 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003 인사말

006 출판도시 인문학당

016 사진으로 보는 출판도시 인문학당

철학, 심리

034 |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배병삼, 영산대학교 교수

040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동양 철학자

046 | 예술의 길 문화의 방향 -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문광훈, 충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054 | 꿈, 인문학의 보고 이승욱, 정신 분석가

문화, 문학, 경제, 사회

060 | 드라마와 문학은 어떻게 다를까? 주찬옥, 드라마 작가

062 | 한국인의 일상 속 언어문화 이병혁, 서울시립대학교 언어사회학과 명예교수

066 |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

070 | 우리는 지난 100년간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074 | 천년 한식의 숲을 거닐다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082 | 두려움의 시대를 넘는 '살림의 경제학'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86 | 우리 뉴스는 왜? -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홍성일, 미디어 비평가

역사, 신화, 종교

092 | 역사와 문화로 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유초하, 충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096 | 조선 시대《연행록》으로 살펴본 한·중 외교 서인범,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102 | 근대 한국의 성과 사랑 전봉관,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110 | 상상력과 스토리의 원천 동양 신화 - 중국 신화를 중심으로 정재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16 | 유일신론의 종말, 이제는 범재신론이다 이찬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예술, 과학

124 | 세기말 벨 에포크 파리의 예술 세계 함혜리, 서울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128 | 한국 뮤지컬에는 왜 킬러 콘텐츠가 없는가 최민우, 중앙일보 기자

134 | 조선 시대 책가도 이야기 - 책거리의 특징과 위상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138 | 위대한 미술책 - 책으로 읽는 미술 이진숙, 미술 평론가

144 | 영화, 이미지와 움직임의 예술 김호영, 한양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150 | 우리 가곡 이야기 - 한국 가곡이 지나온 길 김혜선 소프라노

158 |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재미있는 음악이야기 - 빨간 머리 신부님, 비발디 조윤범, 음악가

168 | 조선 시대 지성들의 요람, 서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174 | 극지, 세상 끝에서 본 지구 장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원

180 | 하늘에 길을 묻다 박석재, 천문학자

185 출판도시 탐방

186 찾아오시는 길

192 발행 개요

출판도시
인문학당

사업 개요

사업명 출판도시 인문학당 2014

개최 시기 2014년 7월 ~ 12월

장소 출판도시 전역, 파주 교하도서관, 파주 중앙도서관, 전주 완판본문화관 등

규모 총 103강좌

내용 북콘서트 34회, 우수 인문학 강연 지원 49회, 심층강좌 4개 주제 총 20회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도시문화재단이란?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좋은 책을 만들고 또 나누려는 출판도시의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과 운영, 정기적인 문화 · 학술 행사 개최 등 출판도시와 출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진행되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로 대표되는 문화축제,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등 다양한 출판인 교육 · 교류 프로그램, 대한민국 대표 지성들에게 직접 듣는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출판인 그리고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공용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열린독서공간 '지혜의숲'의 개관과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2014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103번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우수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출판도시 내 다양한 문화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했고, 북콘서트와 심층강좌 등 다양한 포맷을 통해 독자들과 교감하고자 했습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토요 북콘서트

매주 토요일, 출판도시 지혜의숲에서 음악과 작가의 신명나는 강연이 어우러집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토요 북콘서트는 다양한 주제와 마음을 치유하는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도 출판도시의 토요일 즐거운 인문학 나들이는 계속됩니다.

| 우리말과 시 – '산유화'를 중심으로 석경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7. 12(토)17:00
| 극지, 세상 끝에서 본 지구 장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원 | 7. 19(토)17:00
| 셰익스피어 이야기 김연호,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 7. 26(토)17:00
| 개화기 문인과 근대화 한승옥,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8. 02(토)17:00
| 한국인의 일상 속 언어문화 이병혁, 서울시립대학교 언어사회학과 교수 | 8. 09(토)17:00
| 21세기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8. 16(토)17:00
| 역사와 문화로 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유초하, 충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 8. 23(토)17:00
|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배울 만한 것들 이홍기,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8. 30(토)17:00
| 무라카미 하루키, 여자 없는 남자들 이현우, 서평가 | 9. 13(토)17:00
| 우주와 생명 그리고 나 장회익,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 9. 20(토)17:00
|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 | 9. 27(토)17:00
| 타인의 삶을 변주하는 힘, 나의 문학 손숙, 연극배우 | 10. 04(토)17:00
| 하늘에 길을 묻다 박석재, 천문학자 | 10. 11(토)17:00
| 조선 시대 지성들의 요람, 서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 10. 18(토)17:00
|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김남두, DGIST 석좌교수 | 10. 25(토)17:00
| 근대 한국의 성과 사랑 전봉관,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 11. 01(토)17:00
| 사진 속 작가의 삶 민병헌, 사진작가 | 11. 08(토)17:00
| 옛 서가들이 그린 우리 땅의 아름다움 –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이태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 11. 15(토)17:00
| 두려움의 시대, 살림의 경제를 말하다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1. 22(토)17:00
| 우리는 지난 100년간 무엇을 먹어 왔을까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 11. 29(토)17:00
| 꿈, 인문학의 보고 – 작가, 독자, 평론가가 함께 만드는 꿈 분석의 미학 이승욱, 정신분석가 | 12. 06(토)17:00
| 천년 한식의 숲을 거닐다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12. 13(토)17:00
| 영화, 이미지와 움직임의 예술 김호영, 한양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 12. 20(토)17:00
| 유일신론의 종말, 이제는 범재신론이다 이찬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12. 27(토)17:00

출판도시 인문학당 책방거리 프로그램

'출판도시 인문학당 책방거리'는 출판도시에 있는 여러 출판사 및 문화단체의 우수한 인문학 강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는 15개 단체의 총 49개 강연을 지원했습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 한길사 | 예술과 문화 사이, 나의 그림책 이야기 오치근 그림책 작가 | 책방한길 | 8. 23(토)12:00

| 김영사 |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가 손영운 작가 | 행복한 마음 | 8. 23(토)14:00

| 한길사 | 비판적 지성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 책방한길 | 8. 23(토)14:00

| PaTI | 짧은 만화, 카툰, 제작 과정 들여다보기 홍승우, 만화 《비빔툰》 작가 | 지혜의숲3 | 8. 26(화)17:00

| 효형출판 | 웨스트 앤드 중심으로 펼쳐지는 런던 뮤지컬

원종원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뮤지컬 평론가 | 효형출판 | 8. 30(토)15:00

| 돌베개 | 우리 뉴스는 왜? –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홍성일 미디어 비평가 | 지혜의숲3 | 9. 12(금)19:00

| 돌베개 | 우리 이웃은 왜?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지혜의숲3 | 9. 19(금)19:00

| 전주 완판본문화관 | 조선 시대 책가도 이야기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 전주 완판본문화관 | 9. 19(금)15:00

| 출판도시문화재단 | 책 속으로, 김혜련의 병풍놀이 김혜련 서양화가 & 권여선 소설가 | 지혜의숲3 | 9. 21(일)17:00

| PaTI | 라바와 사람들 맹주공 애니메이션 〈라바〉 감독 | 지혜의숲3 | 9. 23(화)17:00

| 효형출판 | 지극히 전통적이며 가장 현대적인, 도쿄의 여성

김민정 저널리스트 | 효형출판 | 9. 26(금)17:00

| PaTI | 파우스트 – 향락의 비극 전동렬 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지혜의숲3 | 9. 30(화)17:00

| 한길사 | 파주와 심학산의 인문학 최원석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저자 | 책방한길 | 10. 04(토)14:00

| 한길사 |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문광훈 충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책방한길 | 10. 05(일)14:00

| 돌베개 | 〈0.23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회 김혜정 환경운동연합위원장 | 대회의실 | 10. 17(금)13:30

| PaTI | Recent Works 조민석 건축가, 2014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황금사자 수상 | 지혜의숲3 | 10. 21(화)17:00

| 효형출판 | 세기말 벨 에포크 파리의 예술 세계 함혜리 서울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 효형출판 | 10. 25(토)15:00

| 한길사 | 조선 시대 연행록으로 살펴본 한 · 중 외교 서인범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책방한길 | 10. 25(토)16:00

| PaTI | 이야기꾼을 만나면 도망쳐라! 김탁환 소설가 | 지혜의숲3 | 10. 28(화)17:00

| 돌베개 |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의 이해 김수행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 지혜의숲3 | 11. 01(토)13:00

| 열화당 | 책의 도시, 공동체의 꿈 이기웅 열화당 대표 | 열화당책박물관 | 11. 05(수)14:00

| 태학사 | 시조와 공감의 문제 오종문 시인 | 지혜의숲3 | 11. 07(금)18:00

| 김영사 | 진시황과 중국의 통일 – 세계 50사건 강연회 인문학 강좌

허경대 정발고등학교 교사 | 행복한 교실 | 11. 08(토)14:00

| 살림 | 살림 지식총서 500호 특집 《결혼》 남정욱 살림 지식총서 500호 특집 《결혼》 저자 | 살림출판사 강당 | 11. 08(토)14:00

| 아트이즈 | 평화의 해법을 동서에 묻다 이정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형조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 지혜의숲3 | 11. 08(토)14:00

| 태학사 | 시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수자 시인 | 지혜의숲3 | 11. 14(금)18:00

| 사계절 |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배병삼 영산대학교 교수 | 책 향기가 나는 집 | 11. 15(토)14:00

| 서해문집 |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건순 동양 철학자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컨퍼런스룸 | 11. 15(토)14:00

| 아트이즈 | 마을 단위에서 평화의 가능성을 진단하다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경수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장 | 지혜의숲3 | 11. 15(토)14:00

| 열림원 | 이이화 역사 할아버지와 떠나는 풍속 여행 이이화 역사학자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5층 컨퍼런스룸 | 11. 15(토)16:00

| 김형윤편집회사 | 가요로 읽는 한국 사회 임진모 가요 평론가 | 북카페 · 소극장 블루박스 | 11. 21(금)18:00

| 태학사 | 짧은 시와 시적 감동 이지엽 시인 | 지혜의숲3 | 11. 21(금)18:00

| 김영사 | 카이사르와 로마제국 – 세계 50사건 강연회 인문학 강좌 전소준 숲속작은도서관 관장 | 행복한 교실 | 11. 22(토)14:00

| 살림 | 생각하는 아이, 생각하는 부모 – 생각의 시대 저자 인문학 강좌 김용규 인문학자 | 살림출판사 강당 | 11. 22(토)14:00

| 아트이즈 | 탈북민과 난민 – 분단의 창으로 지구 행성의 문제를 보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 박진숙 에코팜므 대표 | 지혜의숲3 | 11. 22(토)14:00

| 출판도시문화재단 | 우리 안의 식민사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컨퍼런스룸 | 11. 22(토)14:00

| 살림 |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조윤범 음악가 | 살림출판사 강당 | 11. 22(토)15:30

| 김형윤편집회사 | 드라마와 문학은 어떻게 다를까? 주찬옥 드라마 작가 | 북카페 · 소극장 블루박스 | 11. 28(금)18:00

| 태학사 | 88만원 세대, 왜 시를 읽어야 하는가 김남규 시인 | 지혜의숲3 | 11. 28(금)18:00

| 아트이즈 | 예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이문재 시인, 임민욱 작가, 심보선 시인 | 지혜의숲3 | 11. 29(토)14:00

| 효형출판 | 모던 아트의 용광로 맨하튼의 예술지도 지혜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 효형출판 | 11. 29(토)15:00

| 열림원 | 짱뚱이와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오진희 아동 문학가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컨퍼런스룸 | 11. 29(토)16:00

| 파주 중앙도서관 |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김정후 건축가 | 파주 중앙도서관 | 12. 04(목)19:30

| 김형윤편집회사 | 침을 뱉지 않는 시는 가라 이창기 시인 | 북카페 · 소극장 블루박스 | 12. 05(금)18:00

| 태학사 | 시조와 노래 정용국 시인 | 지혜의숲3 | 12. 05(금)18:00

| 사계절 | 그림책《깜빡깜빡 도깨비》를 통해 본 옛이야기의 매력 권문희 그림책 작가 | 책 향기가 나는 집 | 12. 09(화)11:00

| 사계절 | 그림책과 포스트모더니즘 –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그림책 이지원 그림책 기획자 | 책 향기가 나는 집 | 12. 11(목)11:00

| 김영사 | 인문고전 만화작가와 함께 캐리커처 그리기 최정규《인문고전》저자 | 행복한 마음 | 12. 13(토)14:00

| 돌베개 | 여행은 공부의 한 가지 방법이다 윤여일 사회학자 | 파주 교하도서관 | 12. 16(화)15:30

주제 별 깊은 이야기에 빠지다 '심층강좌'

영화, 클래식, 철학, 신화 등 각 주제 별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출판도시 인문학당 심층강좌'는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독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층강좌는 출판도시 인문학당의 내공이 가장 잘 드러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지나와 함께 하는 영화로 세상 보기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컨퍼런스룸 | 10. 19(일) – 11. 23(일) 14:00

| 세상으로 열린 영화, 이미지 창 – 이미지 인문학의 매혹 10. 19(일)

| 우주적으로 느끼며 지구적으로 살기 – 코스모스 자연생성 영화 이미지 세상 10. 26(일)

| 위험사회에서 재난영화 보기 – 어떤 위험과 어떤 대응 11. 09(일)

| 상상과 현실의 교집합 – S.F. 영화로 보는 세상 11. 16(일)

| 고통을 예술 · 놀이로 – 호모 루덴스 영화 세상 11. 23(일)

클래식과 인문학의 칸타빌레

| 지혜의숲3 | 10. 19(일) – 11. 16(일) 17:00

| 우리 가곡 이야기 – 한국 가곡이 지나온 길 Soprano 김혜선 Piano 한방원 | 10. 19(일)

| 슈트라우스와 그의 여인들 Soprano 박찬경 Piano 장경주 | 10. 26(일)

| INSPIRATION, 영감 Clarinet 홍수연 Piano 이승윤 | 11. 02(일)

| 슈만 이야기 – 여인 그리고 고향 Soprano 오진현 Piano 한방원 | 11. 09(일)

| 슈트라우스와 보테 운트 보크(Bote&Bock) Tenor 최상호 Piano 배민수 | 11. 16(일)

이주향과 함께 하는 무의식과 마음의 대화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3층 회의실 | 11. 23(일) – 12. 21(일) 14:00

| 무의식과 마음의 상처 11. 23(일)

| 상실 : 실존주의와 《이방인》의 뫼르소 11. 30(일)

| 어머니, 그 애증의 관계 너머 12. 07(일)

| 꿈이란 무엇인가? 12. 14(일)

| 융의 철학 "상처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12. 21(일)

신화로 만나는 상상력

| 지혜의숲3 | 11. 23(일) – 12. 21(일) 17:00

| 한국 창세 신화의 인문학적 상상력 최원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11. 23(일)

| 돌 위에 새겨진 인도 신화 – 라마야나 이야기 심재관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11. 30(일)

| 중국 신화의 상상 세계 정재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12. 07(일)

| 신화로 읽는 《서유기》 정재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12. 14(일)

| 중국 신화와 한국 문화의 만남 정재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12. 21(일)

한옥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과 인문학의 만남 '2시의 인문학'

매년 가을 출판도시에서 개최되는 '파주북소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 인문학 축제입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행사 기간 중 축제 참가자들의 '지적유희'를 위해 총 열흘간 열 명의 저자들을 초대했습니다. 2015년에도 출판도시 대표 축제인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 기간 중 출판도시 인문학당의 톡톡 튀는 강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사람다움의 자연학 이상엽 한의사 | 10. 3(금)

| 현대사 카페 유시민 작가 | 10. 4(토)

| 지도에서 읽어내는 삶의 모습 오영욱 건축가, 작가 | 10. 5(일)

| 한국 뮤지컬에는 왜 킬러 콘텐츠가 없는가 최민우 중앙일보 기자 | 10. 6(월)

| 위대한 미술책 – 미술을 읽는 법 이진숙 미술 평론가 | 10. 7(화)

| 문학과 공감 능력을 지닌 인간 –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정승옥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10. 8(수)

| 해 지는 아프리카 하림 아티스트 | 10. 9(목)

| 내가 사랑하는 시 최영미 시인 | 10. 10(금)

|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용실 KBS 아나운서 | 10. 11(토)

| 한글과 멋글씨 그리고 책 강병인 글씨 예술가 | 10. 12(일)

사진으로 보는 출판도시 인문학당



출판도시 인문학당을 소개하고 있는 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출판도시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문학을 향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출판도시 인문학당 토요 북콘서트는 인문학 강연과 더불어 수준 높은 공연을 매주 선보였다





9월 20일(토) 장회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0월 4일(토) 손숙 연극배우

7월 26일(토) 김연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9월 13일(토) 이현우 서평가



8월 16일(토)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10월 25일(토) 김남두 DGIST 석좌교수



10월 18일(토)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2월 6일(토) 이승욱 정신 분석가



11월 8일(토) 강연 후 직접 추억의 노래를 선보이고 있는 민병헌 사진작가



11월 29일(토)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출판도시 활성화를 위해 책방거리 곳곳에서 주최하는 우수 인문학 강연을 후원하고 있다


TITLE:
한·중 미래의 열쇠, '燕行學'

'파주북소리 2014' 행사 기간 중 출판도시 내 한옥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운치 있는 인문학 강연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10월 12일(일) 강병인 글씨 예술가



10월 11일(토) 참여자의 질문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정용실 KBS 아나운서



10월 3일(금) 이상엽 한의사



10월 6일(월) 최민우 중앙일보 기자



10월 9일(목) 강연과 공연을 함께 선보인 하림 뮤지션



신화에 숨은 여러 이야기를 아라비안나이트처럼 펼쳐주었던 심층강좌의 정재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용한 카리스마로 참여자들을 내면으로 이끌었던 심층강좌의 이주향 수원대학교 교수



재즈 같이 다채로운 색깔을 뽐냈던
심층강좌의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인 문 학 당

2 0 1 4

철 학

심 리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배 병 삼
영산대학교 교수

1.

고대 동양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다. 이 가운데 공자는 사士 계급 출신이다. 사 계급은 제 능력으로 밥을 벌어야 했으므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었다. 공자 역시 평생토록 생존을 염려하며 살아갔다. 이 점에 대해 맹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공자는 실업 상태로 석 달을 지내면 매우 불안해하였으며, 직장을 얻기 위해 폐백을 싣고 집을 나섰다." 고작 석 달 동안의 실직에 대해 공자가 그렇게 황망해하였던 까닭으로서, 맹자는 "사 계급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꼭 제후에게 있어 영지를 잃는 것과 같은 재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하튼 이런 증언을 통해 우리는 공자가 속한 계층이 '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 공자가 생존을 염려하며 살만큼 곤궁했던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하긴 공자는 어릴 적부터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제 스스로 "나의 청소년 시절은 비천했기에, 허드렛일에 많이 능하다吾少也賤 故多能鄙事,"《논어》, 9:6 고 토로할 정도였다. 이에 덧붙여 "생전에 공자 선생님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했기에 이런저런 기예를 능하게 되었노라'며 말씀한 적이 있었다牢曰, 子云, '吾不試, 故藝' "《논어》, 9:7 라는 제자의 증언도 《논어》에는 실려 있다.

예나 지금이나 취업은 중요한 것이다. 작가 김훈의 말을 빌리자면, 먹고서 육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비루하고, 인간은 치사하고, 인간은 던적스럽다. 이것이 인간의 당면 문제다."《공무도하》 어쩌면 이 비루하고 치사한 생존의 문제, 또는 취업의 조건을 도외시하지 않은 리얼리티에서부터 공자의 의의, 또 《논어》의 힘이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2.

문제는 배고픔이다. 한데 공자는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거친 밥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베어도 즐거움樂이 그 가운데 있나니. 의롭지 않은 재산과 명예는 내겐 한낱 뜬구름과 같도다.** -《논어》, 7:15

그러나 이런 안빈낙도의 삶이란 지나치게 높은 경지가 아닐까? 특히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친 밥 먹고 맹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베어도 즐거움樂이 그 가운데 있다"는 따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 한데 공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면, 직장을 구해 스펙을 쌓는 길求職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닦는 중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길招聘이 훨씬 나은 길이라고 주장한다.

공자, 말씀하시다. "직장이 없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요, 서지 못함을 근심할 일이다. 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할 까닭이 없고, 내가 남에게 알려질 만한 것을 찾아야 할 일이다." 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논어》, 4:14

이 말씀은 곧 남의 구미에 맞도록 나를 만들 일이 아니라 즉 '채용'되기 위해 안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나의 길'에 매진하여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그에 합당한 자리가 자연히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끝내는 '초빙'된다는 뜻.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고, 나에게 자리를 달라고 남에게 '껄떡댈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공부, 내가 원하는 일에 매진하여 전문가 되기가 우선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허기를 무릅쓰고 우선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인간, 자기 인생을 제 스스로 주도하는 인간이 되기를 권하는 것이다.

내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세웠다네. 서른 살에 자립하였고 사십에는 의혹되지 않았지. 오십대에 천명天命을 알았고 육십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칠십에는 마음대로 해도 경우를 넘어서지 않았노라.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논어》, 2:4

먼저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세웠다고 하였다. 열다섯이라면 지금 학제로는 중학교 2~3학년에 해당하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소학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였다. 요즘 식으로 당겨서 해석하면 공자는 오늘날 젊은이들과 비슷하게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확정 지었다는 뜻이 된다. 여기 "뜻志을 세운다"는 말 속에는 '내 학문이 끝을 맺지 못하면 내 목을 치겠노라'는 절박한 의지가 깃든다. 그러니 참 무서운 말이다, '뜻'이라는 글자는. 그러하다면 공자가 열다섯에 배움에 둔 '뜻'이란 말

도 목숨을 바칠 각오하고 배움에 투신하였다는 것이지, 되다 말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 두는 따위의 '한낱 희망 사항'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공자의 "배움에 뜻을 세움"이란 온몸과 마음을 다 배움에 바친다는 것이었으니, 그 십대의 투신이 등에 땀을 나게 만든다.

그다음 인생의 둘째 단계를 이립而立, 곧 "서른 살에 섰다"고 하였다. 여기 '섰다'란 자립하였다는 뜻이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또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열다섯 살에 뜻을 세워서 '서른 살에 섰다'는 것은 곧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 자립하는 데 1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다. '서른 살'의 이립而立의 경지는, 곧 '직장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서지 못함을 근심하라不患無位, 患所以立'던 립立과 겹치는 것이다. 하긴 공자 본인 스스로를 두고 호학好學이라, '열린 마음으로 오롯이 배움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니, 여기 그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립하게 되고, 또 그러한 나를 스카우트位=亻立하게 되는 것이리라. 15년 동안의 매진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서게 만들고, 그것이 곧 초빙의 길을 여는 힘이 된다는 뜻으로 읽어도 좋으리라.

3.

낙관적이게도 오늘날은 한국 기업들의 환경도 매우 많이 바뀐 듯하다. 옛날에는 어떤 분야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사회적 관계, 남과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 **"요즘 기업은 원만한 대인 관계,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철저한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소양을 가진 졸업생을 배출해줬으면 좋겠다."**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흥미롭게도 여기 현대 기업의 요구조건 세 가지, 즉 1) 원만한 대인관계, 2)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3) 철저한 자기 관리는 곧 공자 사상의 핵심어 인仁의 구성 성분들이다.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두 사람'二人으로 이뤄져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야말로 '인'의 내용물인 까닭이다. 공자는 '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仁이란 내가 이룬 것은 남들도 함께 이루도록 해주고, 내가 아는 것은 남에게도 알려주어 함께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서 '함께하기'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인'을 이루는 방법인 게지.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 《논어》, 6:28

물론 남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라도, 나의 '자립'이 앞장을 선다. 앎이든 돈이든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에 그렇다. 가령 학습의 즐거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서야 어찌 남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인'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내가 획득한 즐거움을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누겠다고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이 손길에 '인'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나 대통령이 되어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그 이웃에서부터, 또 내가 중국인이라면 또 그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인'일 따름인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의 사랑인이란 오로지 주변의 이웃, 상대방과 '더불어 함'에 깃든다는 사실을. 즉 함께 나누는 손길은 저 먼 데 사람에 미치기 전에, 혹은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으로부터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가 획득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이것이 仁사랑일 뿐인 것이다.

이 점을 두고 공자는 "인이란 곧 주변 사람을 아끼는 것仁, 愛人"《논어》, 12:22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인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다더냐? 아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타까워하며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자리에 인이 깃든다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논어》, 7:29라고 지적한 적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금·여기' 살아가는 와중에 그저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 인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어찌 인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일쏘냐. 이 대목에서 〈왕의 남자〉로 천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낸 이준익 영화감독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영화는 대단위 집단 작업이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 절대로 일이 잘되지 않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혼자 잘하려고 하면 현장

전체가 짜증스러워진다. 영화 현장에서는 수만 가지 판단과 선택이 이뤄지는데 내가 3할만 하면 7할은 누가 메꿔줘야 하는 게임이다. 남이 더 잘하도록 하는 사람이 평생 영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이준익 영화감독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남이 더 잘하도록 하는 사람이 평생 영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감독의 체험적 술회는, "내가 이룬 것은 남들도 함께 이루도록 해주고, 내가 아는 것은 남에게도 알려주어 함께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서 '함께하기'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인'을 이루는 방법"이라던 공자의 생각과 겹친다.

4.

'주역'의 겸謙 괘를 해석한 주석 속에는 '지중유산地中有山'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중유산'이란 "내가 디디고 선 땅 밑이 산이다", 또는 "내가 걷는 이 지표면이 실은 산의 정상이다"는 뜻이다. 산은 저 멀리 높이 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지구를 쪼개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핵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표면은 다 울퉁불퉁한 산이다. 해발 8848미터의 에베레스트 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기 해수면 아래 8000미터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도 지구의 중심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니까 오늘 해발 1미터 위를 생각 없이 걸어가는 나의 산책길은 실은 칼끝 같은 산 정상을 걷는 길이다. 놀랍지 않은가! 평지 위의 산책이 실은 지구의 표면, 아니 지구의 정상을 누비는 걸음이라니. 흘러가는 개천을 보고 깨닫는 공자의 다음 경험도 이와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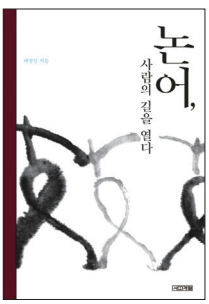
공자가 개천가에서 물을 보고 말했다. "이렇구나. 흘러가는 것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흐름이여."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개천의 물이란 본시 그냥 흘러가는 것이거니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던 공자가, 어느 날 물 스스로 흘러가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새로운 광경으로 확 덤벼든 것이다. 공자는 순간 개천을 재발견한 것이다. 풍경처럼 존재하던 개천의 물이 어느 순간 자연의 주인공이 되어 불끈 앞으로 돌출하고 도리어 그간 세계의 주인공이던 '나'는 물가에 선

손님으로 쪼그라드는 뒤집히는 체험을 해버린 것이다. 고작 개천에 불과했던 물 흐름이 갑자기 천지자연의 '자연스러움'을 체현하고 있음을 목도한 것이다. 우주의 중심이 나사람가 아니라 저 흘러가는 물임을, 물속에 자연의 진리가 흐르고 있음을 문득 깨닫고 토로한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 저럴진저. 밤낮을 가리지 않음이여…."

확장하면 하느님이 수천만 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토록 성실하게 운행함에 거기 온갖 생명이 싹을 틔우고 기르고 또 열매 맺어 만물이 화육함을 깨달은 것이다. 세계의 주인공은 나,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요 하느님이라는 각성이다. 혹 이것이 공자가 나이 오십에 획득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경지가 아닐까? 여하튼 공자는 흐르는 물속에든 하느님의 존재를 읽어내고, 도리어 사람이란 자연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에 깃들어 사는 한 미물임을 통절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개천가에서 토로한 공자의 각성이야말로 배움의 절정이다.

이것이 낯익은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눈을 얻는 길이다. 심드렁하게 습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세상을 뒤집어 낯설게 바라보는 눈길에서 탄생하는 것이 창의성이고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 창의성과 상상력은 나를 조직의 노예로 만들면서 고작 밥을 버는 '채용'이 아니라, 나의 자존과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조직을 살리는 공생의 길인 '초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논어》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4년, 오늘 한국 땅에서 《논어》를 읽는 까닭의 일단도 여기서 찾을 수 있으리라.



배병삼,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사계절

글쓴이 배병삼

글쓴이 배병삼은 195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도회儒道會 부설 한문연수원에서 수학했고, 한국사상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양의 여러 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글세대가 본 논어》 전2권,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공자, 경영을 論하다》와 산문집 《풀숲을 쳐 뱀을 놀라게 하다》가 있고, 공저로는 《유학, 시대와 通하다》, 《고전의 향연》, 《글쓰기의 최소원칙》 등이 있다.

참고문헌

배병삼,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사계절
배병삼, 《공자, 경영을 論하다》, 푸르메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임 건 순
동양 철학자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란 책을 쓴 저자입니다. 오늘 제 책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며 책의 중심 주제인 제자백가를 가지고 떠들어야 할 텐데요. 제자백가가 누굽니까? 바로 무슨 '자(子)' 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손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제자백가이고 제자백가 사상가들인데 제 책은 그들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담긴 책은 동아시아의 고전입니다. 《논어》와 《한비자》, 《순자》, 《노자》, 《장자》, 《맹자》 모두 동아시아의 고전이고, 그 고전들은 적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말 그대로 고전이지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책에 대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동아시아 고전을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거기까지 시야를 확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상상력과 창의력, 유연한 사고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는 관중부터 한비자까지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라 부르는 시대에 활약했던 총 열세 명의 사상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자백가 사상가들을 유가, 묵가, 도가, 법가 이렇게 가家 단위로 인식하고 다루었는데, 저는 박제화된 틀을 깨고 공자는 공자, 맹자는 맹자, 노자는 노자, 장자는 장자 등 각 사상가 하나하나를 단위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대적, 역사적 순서대로 열거하며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과 건설 원칙, 청사진에 대해 차근차근 돌아보는 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실용주의자 관중, 국가주의자 상앙, 이상주의자 공자,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장자…. 각 사상가들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고, 거기에 각 사상가들의 정치·사회적 위치와 각 사상가들만의 고유한 문제의식, 각 사상가들을 대표하는 개념과 철학적 용어 등 이렇게 적지 않은 것들을 모두 설명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우선 제가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다양성이란 것이었습니다.

제자백가들이 활약했던 춘추전국시대는 다양한 사상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우선 긴박한 전쟁의 시대, 기존 질서가 무너졌던 커다란 유동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이런 통일제국이 탄생하기 전의 시대로, 여러 열국들이 지식인 유치 경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며 기존의 질서와 문화 관습들이 무너졌던 세상, 사상가들이 매우 다양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각자가

자유롭게 사상적 모색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유의 가지들이 당대에 나왔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군주가 지식인을 선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 스스로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국가를 이끌 유능한 통치 전문가와 관료, 꾀주머니들을 구하지 못해 야단났던 시기였기에 지식인들은 군주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과 배경에서 열세 명이나 되는 사상가들이 고민하고 사유했습니다. 개성 만점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 사상가 각자의 문제의식과 색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청사진이 모두 달랐습니다.

판단은 철저하게 독자들에게 맡기려 노력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전달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관중의 말이 옳다, 맹자의 말이 맞다, 묵자의 말이 옳다, 이렇게 제 주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각자를 충실히 설명하며 전달하려고만 했는데, 누구의 생각과 문제의식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자들 각자가 다양한 여러 사상가의 주장과 문제의식을 놓고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고민해봅니다. 그렇게 열세 명이나 되는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놓고 고민해보면서 다양성이란 것을 만끽해봅니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사상적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것이구나' 느끼길 바랐지요. 그래서 당대에 등장했던 사상가들 모두를 다루려고 했고, 각자 각자가 서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다양성을 제대로 느끼고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성을 가져야 상상력도, 창의력도 생기는 것이고 사고 범위도 커지는 것인데, 전 이렇게 제자백가 공부를 통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전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다양성, 넓은 사고 범위, 상상력과 창의력은 항상 한국인들에게 부족하다고 말해지는 덕목들입니다. 저런 덕목들의 부족함은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다고 결론 내리건, 내가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지지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많은 사상의 옵션과 다채로운 사유의 결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직되고 굳어진 우리의 뇌와 생각의 관성들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 점을 특히 염두에 두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력, 넓은 사고 범위, 정말 우리에게 아쉬운 덕목들 아니겠습니까?

2.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기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크게 불거진 문제 중 하나로 감정 노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정 노동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이야기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랬지요. "교언영색巧言令色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이가 드물다"고. 교언영색한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언영색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뒤에서 교언영색한 사람이라 지적한다면 험담을 하는 것이고, 면전에서 말을 하면 모욕을 주는 것일 겁니다. 한국 사회 어디서든 교언영색은 조금도 좋은 맥락으로 이야기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교언영색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왜냐, 바로 감정 노동을 강요하고 그것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항상 과잉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손님이 부당한 요구와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항상 웃는 낯으로 상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과잉 친절의 문제를 포괄하는 바로 이 감정 노동의 문제.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언영색의 문제이고 바로 교언영색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요. 교언영색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교언영색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 사회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덕목과 기술로 요구하지요.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공자 말고 맹자도 감정 노동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대접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호통을 치면서 주면 나그네라 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며 발로 차면서 주면 거지라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전 얼마 전에 분신자살하신 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딱 저 맹자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사람에게는 모두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감정 노동 문제는 사람의 자존감을 마구 짓밟습니다. 최근 엘지유플러스 상담원 한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감정 노동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좌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인륜적인 사회 현상이고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과 맹자의 말을 듣고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제자백가 사상가들을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기원전의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빌려 오늘을 살펴보고 우리를 성찰해볼 수 있다, 또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은 원래 철학자라기보다는 정치 학자, 정치 사상가, 정치 철학자들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바람직한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을 중심으로 사유한 사람들이니 정치 사상가요, 정치 철학자이고 정치 학자일 수밖에요.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더욱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조망해보고 우리 정치 공동체의 문제들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상가의 이야기를 해보며 또 우리 사회 현실을 더 이야기해볼까요? 관중은 사민구분론을 말했습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을 모두 분리시켜 각자가 사는 거주지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하며 평생을 근무지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가혹한 통제와 관리의 틀을 주장한 것이지만, 그의 사민구분론은 사실 농민과 상인, 공인 등 생산에 종사하는 하층민을 보호하기 위한 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절대 지배계급인 사士 계급이 농업이나 상업, 공업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엄금했거든요. 그들도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살면서 자신들의 일만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지배층인 사士 계급은 우월한 정보력과 지배력,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농업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를 매입해 지주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영농의 육성은 물 건너가는 것이지요. 또 그들이 상업과 공업에 관심을 두면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점매석을 하고 독과점을 시도하겠지요. 그럼 경제 질서가 문란해지고 상인과 공인들의 생계는 막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관중의 사민구분론은 생산에 종사하는 하층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민구분론을 주장한 관중이 한국 사회에 오면 어떤 문제를 지적할까요? 우선 자영업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것 같습니다.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느라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데,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체급이 다른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왔으니 경쟁이 되겠습니까?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역에도 치고 들어가고, 그 밖에도 돈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사회의 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지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

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중이 온다면 어떻게든 대기업을 골목에서 퇴출시키고 그들이 원래 놀던 물에서만 놀게 할 것입니다. 그들 고유의 영역에서만 투자하고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강제할 것입니다. 그래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규모 창업자들이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중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상가들을 하나하나 한국 사회로 초청하고 소환해본다면 우리의 문제를 뼈아프게 지적할 것인데요. 제자백가 사상가들을 모두 망라해서 다룬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야와 지혜를 빌려 우리 사회를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치 철학자들인 그들의 문제의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왔으면 던졌을 법한 질문들도 상세히 써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성,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등장해 다채로운 목소리들이 약동했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다양성과 사고의 유연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문제의식 또한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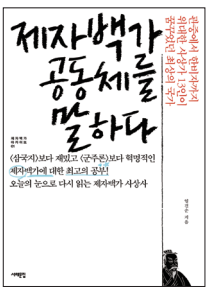
3. 중국이란, 우리 삶의 상수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의 중국학 대가는 항상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라, 《손자병법》을 알아야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고. 키신저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중국 전문가들도 《손자병법》을 강조하고, 또 《논어》와 《도덕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중국 문명의 뿌리와 기초부터 알아야 중국인과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고대 동아시아 사상가들의 이야기, 고대 중국 고전을 소개하거나 읽을 때에는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삶의 상수上手로 다가온 중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로 고전을 읽으면서. 고전을 읽을 때 단순히 고전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것을 돕고자 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국 관련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위와 의무로 인식하고 저술과 강의, 집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에 특히 중국인들의 노회한 사유의 뿌리가 되는 병가 사상, 손자와 오기, 손빈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책에서도 손자와 오기를 다루었지요. 그래서 다른 중국철학사 책들과 달리 병가 사상가들의 이야기도 다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양성의 문제, 우리 공동체 현실을 돌아보는 문제, 중국을 이해하는 문제.

제 책 집필의 문제의식과 동기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동아시아의 고전을 읽고 소화할 때 항상 머리에 새기고 가야 할 방향이 아닐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동아시아 고전에 접근해야겠다는 문제의식까지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순,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서해문집

글쓴이 임건순

글쓴이 임건순은 저돌적 성격의 젊은 동양 철학자이다.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전통 한학을,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했다. 국적 있는 철학자의 삶과 철학을 고민하는 이로서, 국적과 영혼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애면글면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2013년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묵자, 공자를 딛고 일어선 천민 사상가》를 비롯해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오기, 전국시대 신화가 된 군신 이야기》 등이 있다.

참고자료

임건순, 《제자백가, 공동체를 말하다》, 서해문집

예술의 길, 문화의 방향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문 광 훈
충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1. 발터 벤야민은 누구인가?

1)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만큼 오늘날까지 의미심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저작이 주는 충격은 다채롭고, 그 논의에는 이견의 여지가 많으며, 그 사유법은 복잡하면서도 급진적이다. 그것은 인화성이 매우 높은 취급주의 저작물이다.

2) 벤야민의 글 가운데 완결된 것은 500편쯤 되고, 살아 있을 때 출간된 것은 네 권…. 그 영향력은 이미 몇 가지 분과학문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문학과 비평, 매체학과 미학뿐 아니라 철학과 정치 이론, 도시 분석과 자본주의 비판, 문화학이나 신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2.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1) 20여 권의 벤야민 저서와 그에 대한 수백 편의 논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2) 벤야민에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 문학과 예술과 철학
- 역사와 현재와 미래, 파국과 구원과 행복
- 자본주의와 상품과 대도시, 문명의 허영과 죄악
- 낭만주의론과 바로크론…. 체념과 우울과 환멸
- 비평의 거짓과 진실
- 법의 기만과 머나먼 정의
- 신학과 역사철학
- 글쓰기와 기억과 문화
- 원전과 번역의 문제
- 매체와 기술
- 사진과 영화 등등

3) 그에 기대면 우리는 거의 모든 학문적 주제에 대해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벤야민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4) 결국 이 모든 글의 내용은 '지금 여기'의 '나'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 나의 지금 삶에 이 글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물어야 한다.

5) 그러므로 한 저자의 크기는 다른 '큰' 작가와의 비교를 통해 비로소 가늠할 수 있다 - '선택적 독서'가 필요!

cf. 거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1) 일종의 다면체다.

- 삶의 '전체'를 보여준다.
-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산/산맥, 그 아래 낮은 산과 구릉, 협곡과 골짜기, 그리고 평지가 있다.

2) 읽을 때마다 새롭다.

- 감각과 사고의 갱신, 불편함.진실은 불편하다!

3) 어느 한곳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계속 뻗어나간다.

- 사고와 언어의 운동/리듬이 느껴진다.
- 상투적이지 않다.

3. 불운한 저자, 벤야민

1) 그는 지독히 불순한 텍스트를 쓴 지독히 불운한 저자이다. 이 불운은 세 겹이다.

2) 그의 불행은, 그가 퇴행적이고 야만적인 시대를 살았고 시대적·역사적 차원, 스스로 불행하였으며 생활적·실존적 차원, 이 불행한 삶 속에서 글을 통해 추구한 행복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다 학문적·이념적 차원는 점에서, 세 겹이다.

- 대부르주아 출신, 강사 생활, 생계의 불안정, 국적 박탈, 망명, 자살….

3) 삶의 근본적 결손과 그 불충분성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 그와 대결했다는 점에서 벤야민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희구 바로 이 때문에 그는 가끔은 행복하기도 했던, 아니 좀 더 오래 행복했어도 좋았을 그런 작가였다. -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44~45

4. 급진적 사유의 온화함

1) 벤야민을 고찰하는 데 있어 출발점은 그의 절박한 삶이다. 이 삶의 상황은 청년 시절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된다. 그 신산스러움은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한 1933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1940년까지 7년 동안 특히 심했다.

2) 그 시절 벤야민이 한결같이 바랐던 것은 생계 걱정 없이 글을 쓰는 일이었다. 그는 매일처럼 이어지는 사회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독립적 자유 문필가'로서의 삶을 확약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대학교수직

에 지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교수직이 자신에게 맞다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첨예한 현실 인식과 사회 변혁적 관심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공산당에 입당하지는 않았다. 그럴 경우 있기 마련인 예속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3)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면서도 감각 · 사유적으로 더없이 섬세하고 온화했다.

-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93

5. 섬세한 감각과 견고한 사유

1) 지극히 섬세하지만 연약하기보다는 충격적일 만큼 강력하고, 이렇게 강력하여 기존 시각과 현저한 단층을 이루지만, 그러나 이 단층은 조야하기보다는 정묘精妙하게 느껴진다.

- 이런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그의 비평, 특히 프루스트와 카프카 그리고 레스코프 론論이다.

2) 아마도 이 정묘함으로 무장된 현저한 차별성 덕분에 벤야민의 사유는 오늘날에도 '살아남은' 것, 그러니까 시간적 풍화를 견뎌낸 지성사적 유산이 되지 않았나 싶다.

3) 근대의 성취와 병리학은 그에게 지극히 미묘하게 해부되고, 여기에서 작동하는 미세한 지각력과 신선한 표현, 철학적 강인함이 그의 사유의 중추로 자리한다.

-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97~98

6. 왜 예술인가?

1) 우리의 이성은 상품 세계가 허용하는 거짓 안락함에 자족하고 있고, 지금 사는 삶의 체제가 이성마저 도구화하는 보편적 기만체제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람은… 타율적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 삶은 어떻게 쇄신될 수 있는가?

2) 삶의 세계가 보편적 기만의 강제 체제 아래 있다면, 이 강제 체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많은 현실 진단이 비관적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3) 아도르노는 이런 기만의 폭로에 예술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예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이 재현 속에 이미 반성적 계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라 서구의 예술이론사/미학사에서, 특히 쉴러 이후 면면히 이어지는 인본주의 교양 전통의 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7–1. 프루스트론

1) "그르렁거리는 나의 숨소리는 내 펜의 소리와 아래층에서 나는 욕조 소리를 뒤덮고 있다."

프루스트 문장에 대한 벤야민의 논평도 예사로운 게 아니다.

"그의 문장구조에는 천식 때문에 질식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도처에서 리듬을 타며 담겨 있다."

2)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잣기처럼 프루스트의 문장은 불안과 갈망, 꿈과 깨어남을 오가면서 삶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육체와 영혼이 둘이 아니듯이, 죽음과 삶 또한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보여준다. 삶의 이질적 국면은 그의 글에서 물결처럼 어른거리며 뒤섞인다.

3) 프루스트는 숨 쉬기조차 힘든 천식을 견디면서 밤낮으로 썼고 꿈꾸며 또 썼다. 이런 가운데 몸은 더욱 기진맥진해갔다…. 육체는 탈진하기에 이르렀고, 정신은 마모되어 난관에 봉착했다. 죽어가는 몸으로 그는 불안이 엄습하기 전에 자신의 온 생애를 기억으로 되살리려 했고, 이 되살림의 기록이 곧《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다.

-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724

7–2. 카프카론

1) 인간은 알 수 없는 운명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산다. 그런 점에서 그는 '현존이 왜곡된' 생애를 살아가는 불구의 존재이다.

벤야민은 카프카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조수나 급사, 학생 또는 바보 같은 이 변두리 인물에 주목한다.

2) 카프카는 성공한 자와 승리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와 패배한 자의 궤적에 주목했다. 그의 문학적 의의는 좌초한 자들의 궤적을 발굴한 데 있다고 벤야민은 해석한다. "완전하지 않고 서투른 자를 위해 희망은 있기" 때문이다.

3) 문학 예술은 패배의 흔적을 즐겨 더듬는다. 카프카가 말했듯이, 희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패배한 자의 사연을 더듬는 가운데 우리는 희망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

4) 문학은 절망적 희망의 탐색 작업이다. -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738~739

7–3. 레스코프론

"그녀는 영혼이 선하여 어떤 인간에게도 고통을 줄 수 없었지요. 심지어 동물에게도 말이지요. 그녀는 고기도 생선도 먹지 않았는데, 그것은 살아 있는 것들에 연민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그 때문에 어머니를 타박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이 동물새끼들을 손수 키웠고, 그래서 그것들은 내 아이들이나 다름없어요. 내 자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이웃집에 가서도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녀는 말하길, '난 이 동물들이 살아 있을 때 본 걸요. 그것들은 내 친척이지요. 내 친척들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749

선한 영혼은 인간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 사람의 영혼은, 그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더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참으로 '선한'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그때의 삶은 '인간적인' 차원을 이미 넘어서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 인간의 차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 모두를 포용할 때, 그리하여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고귀한 것이 된다. 레스코프 어머니의 삶은 그런 선한 삶의 고귀한 예를 보여준다.

레스코프의 문학이 선하고 고귀한 것, 그리고 성스러움까지 포용한다면, 벤야민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다.

8. 진리=껍질 벗기기 = 무의도

1) 프루스트가 기억을 통해 삶을 기록하고, 카프카가 삶의 불구적 상태를 드러내며, 레스코프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어울리는 것을 쓴 것은 좀 더 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여기에는, 진실이란 깨어져 있고, 삶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2) 미의 진리는 대상을 껍질 속에 드러내는 것, 즉 껍질의 벗겨냄에 있다. 이 탈각화가 예술의 진리를 이룬다.

3) 그러나 탈각화는,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탈각할 수 없다는 인식을 수반한다. 껍질은 벗겨지는 것만큼이나 벗겨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밀은 비밀로 남는다.

껍질 벗길 수 없는 것의 껍질 벗기기 또는 껍질 벗길 수 있다는 것의 근본적 불가능성이 예술의 인식내용이다. -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593

4) 그래서 '무의도'가 필요하다. 의도 없음이야말로 진실하다! 언어와 사고에 있어 가능한 한 의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9. 진리와 아름다움

1) 벤야민은 진리와 아름다움, 진리와 인식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2) 그는 이 둘의 관계를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이 유동성의 근거를 경험현실에 밀착시키려 하며유물론적 사유, 이렇게 밀착된 세부에 대한 충실을 다시 전체 속에서 파악하려 하고별무리적 사유, 이 맥락적 이해 방식으로 현상을 구제하려고 한다.메시아적 신학관 -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588

10. 문화란 무엇인가?

1) 그것은 "끔찍함 없이 볼 수 없는" 것이다. -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933

2) "문화유산의 현존재는 그것을 만든 위대한 천재들의 노고뿐만 아니라 많건 적건 동시대 이름 없는 강제 부역자들에 힘입은 것이다. 문화의 기록물은 그것이 동시에 야만의 기록물이지 않은 채로 존재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 근본적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문화사도 공정치 않았고, 현재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기 어렵다."

- 벤야민,《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3) 역사의 거대한 기념비들은 거의 다 그렇다. – 예를 들어 만리장성, 피라미드 등.

11. 문화란 토르소다

1) "과거를 강제와 곤궁의 유산流産으로 파악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과거를 –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기껏해야 운반 도중에 잘려 나간, 그래서 귀중한 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름다운 조각상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덩어리로부터 미래의 자기 모습을 깎아내야 한다." – 발터 벤야민,〈토르소〉,《일방통행로》

2) 모든 사물에 그렇듯이, 문화에도 어둠과 그늘과 결락과 악취가 있다. 아니 문화야말

로, 그것이 인간의 적극적 산물인 한, 온갖 숨은 전략과 의도와 계산 아래 산출된 것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화적 산물은 끔찍함과 부당함 위에 서 있다. – 허영/자기 기만/문화속물주의snobism 로부터의 거리두기

3) 지금 있는 모든 문화적 성취가 원래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유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전해졌는지, 이렇게 전해진 것은 한 시대의 어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었는지 물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의 끔찍한 내부를 헤집는 일이다.

4) 우리는 문화의 이 착잡한 내부를, 그 어두운 생성과 전승의 방식을,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인물들처럼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 문화의 일은 이 전율할 만한 현실의 명징한 직시에 있다.–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936

12. 결론 – '화해적 단절'을 하면서

1) "인류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적으로 결별해야 한다." - 발터 벤야민,《아케이드 저작》

- 모든 문화 이해에는 "화해적 단절"이 필요하다! – 문광훈,《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p.929

- 이때 '화해'가 필요한 것은 기존의 전통에 대한 '존중'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절' 역시 필요한 것은, 모든 전승되는 기록물과 유산이 그 자체로 옳지는 않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예술론에서 언급했듯이, '껍질 벗기기' – 감각과 사고에서의 탈각화가 필요하다. 다시 탈각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일,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의 기존 기준으로부터 '반성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잠시 주변을 '다시re, '비춰보는flect' 일이다.

3) 반성 행위야말로 문학과 예술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삶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절실하다. 자기 삶을 깊은 의미에서 '돌보기' 위해 문학 예술은 불가결하다.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한길사

글쓴이 문광훈

글쓴이 문광훈은 고려대학교 독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충북대학교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자신만의 예술론과 미학론을 정립하는 일을 학문적 목표로 삼아온 그는 지금까지 네 방향에서 글을 써왔다. 첫째는 독일문학과 문예론으로 이에 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박사학위논문을 번역한 《페르세우스의 방패 — 바이스의 '저항의 미학' 읽기》가 있다. 둘째는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저서로서, 《시의 희생자 김수영》, 《정열의 수난》장정일론, 《한국현대소설과 근대적 자아의식》을 펴냈다. 셋째는 예술론과 미학으로, 사진평론 《거친 현실의 내면: 강운구론》과 《숨은 조화》, 《교감》《영혼의 조율》로 개정, 《렘브란트의 웃음》, 《심미주의 선언》을 썼다. 넷째는 김우창 읽기로, 《구체적 보편성의 모험》 이후 《김우창의 인문주의》와 《아도르노와 김우창의 예술문화론》을 거쳐 《사무사思無邪—'궁핍한 시대의 시인' 다시 읽기》에 이른다. 그 사이 김우창 선생과의 대담집인 《세 개의 동그라미: 마음–지각–이데아》를 출간했으며, 사진집 《요제프 수덱》,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 바이스의 희곡 《소송/새로운 소송》을 번역했다.

참고문헌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발터 벤야민의 문제의식》, 한길사

꿈, 인문학의 보고

이 승 욱
정신 분석가

1. 꿈의 목적

> 꿈이란 무엇인가? 언어 관습에서 꿈은 주로 사랑스러운 소원 성취자이다. 현실에서 기대 이상의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기쁨에 넘쳐 소리친다. -프로이트《꿈의 해석》

프로이트의 꿈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분명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항상 꿈은 소망 충족의 목적을 지닌다고 말한다. 한편, 융은 꿈을 이렇게 규정한다. "꿈은 인격 완성의 나침반이며 자기self 지혜의 메시지이다"라고. 언뜻 두 대가의 꿈에 대한 입장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두 사람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결국 우리는 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꿈을 통해 인격 완성의 소망을 충족하려 한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꿈을 이해하면, 해소되지 못한 감정적 경험이 억압된 채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경험과 유사한 외부 자극이 현실에서 주어지면 꿈을 통해 그 억압이 여전히 실재하고 있음을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억압된 감정, 초기 경험의 상흔을 꿈꾼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여 달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문제는 감정의 억압과 정신적 상흔은 쉽게 기억되지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남아서 많은 행동과 판단, 결정에 은밀한 영향을 계속 미쳐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억압된 감정과 결착된 에너지를 부활시켜서 어떻게 자기 삶의 동력과 자원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 꿈의 기능이자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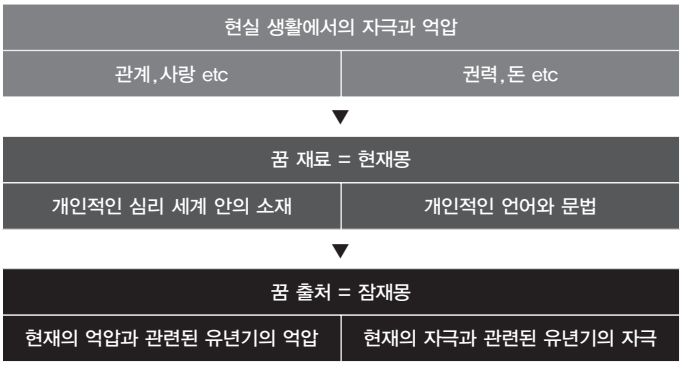
2. 꿈의 구조와 층위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꿈의 구조는 현재몽-현실에서의 자극 = 꿈작업 = 잠재몽-꿈의 기본 출처 으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몽-manifest dream 이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진행되는 의식적인 체험으로서 잠에서 깬 뒤 기억이 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잠재적 소망이 시각적인 이미지나 경험의 형태로 표현되는 의식적인 공상이다. 즉, 현재몽이란 잠재몽의 내용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도록, 잠재몽 내용과 연관되는 정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둘째, 잠재몽 내용**-latent dream content**이란 '꿈의 의미**the meaning of a dream**'를 말한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고 위협하는 무의식에 있는 소망, 욕구, 관념들로서 원초적인 본능을 말한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잠재몽의 주 내용은 유아기의 성적 욕구이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자신의 통제를 이완시킴으로써 예전에 억압되었던 자료들이 빠져 나와 꿈속에 나타난다. 즉 잠재몽 내용은 꿈이 일어나게 하는 선동자이며, 또한 정신 에너지의 원천이다.



프로이트 꿈의 구조 – 재료와 출처, 꿈 작업의 과정

〈칼 융〉

꿈 해석의 관점에서 칼 융은 꿈은 두 개의 구조/단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1) 객관 단계에서의 해석 : 꿈에서 사용된 상징이나 행위가 가진 인류사적 보편을 기준으로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민화, 신화, 전래 동화, 성서와 같이 오랜 기간 전승되어 인류 공통의 경험으로 공유되는 상징을 꿈 해석의 자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보편적 상징은 다음 단계에서 실시되는 주관 단계의 꿈 해석과 연결될 때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꿈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객관 단계에서는 꿈이 실제적인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과 함께 실시된다.

2) 주관 단계에서의 해석 : 꿈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요소들, 즉 무의식적인

경향, 감정, 생각 등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깨달아 의식에 동화시킴으로써 의식의 시야를 넓히는 해석이다. 여기에서 꿈 상징과 꿈 행위는 가능한 주관적 경험, 개인적 사건과 관련을 찾는 연상작업을 통해 가능하다.

3. 사고와 연상, 꿈 분석 실제 경험을 위하여

> 정신분석 작업 도중 나는 깊이 사고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자신의 심리적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의 평온함과는 달리 사고할 때는 심리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두 경우 다 주의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깊이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판적 기능 또한 작동시키고 있다. 그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인지한 후 이러한 생각의 일부를 비판을 통해 거부하거나 즉시 중단시켜 일단 시작된 사고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오로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평상시 파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생각들이 의식에 떠오른다. -프로이트,《꿈의 해석》

꿈 분석 실제를 체험하는 동안 자신의 꿈에 대해 기능적, 평가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멈추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떠한 경험, 기억, 감정, 환상, 소망 등도 금지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자유연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상된 모든 것들을 메모하거나, 필요할 경우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한다.

4. 꿈은 실제다, 심리적 현실의 육하원칙

1) 언제

언제 꿈을 꾸었나?

꿈꾸었던 당시의 현실은 내게 어떤 시기였나?

꿈의 배경은 어떤 시기였나? 여러 시기가 나타날 수 있음

2) 어디서

꿈을 꾼 장소, 공간, 배경, 공간의 느낌.

3) 누가

등장인물들의 이미지가 중요함: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 인물은 어떤 느낌으로 내게 남았는가?

4) 무엇을

등장인물들이 꿈에서 한 행위.

그 행위가 연상하는 것.

5)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무엇을'과 연결되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6) 왜

나는 왜 이 꿈을 꿨을까? '진정한 이득은 무엇인가?'

5. 닫는 말 – 꿈, 결행, 의지와 선택

꿈이 말하는 것은 깊은 내면의 요구이다. 결행 즉, 결심하고 행위로 옮기라는 내면의 절실한 요구이다. 억압함으로 돌보지 못했던 인격을 완성하려는 소망의 충족, 그것이 꿈의 진정한 메시지이다. 그것이 그 주체가 정당하게 살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삶의 진실이다. 꿈을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 실존적 인간이 되는 순간이다.

글쓴이 이승욱

글쓴이 이승욱은 뉴질랜드에서 정신분석을 전공했고 오클랜드의 정신병 전문치료센터에서 심리치료실장으로 일했다. 귀국 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자작업장학교의 교감직을 맡기도 했으며, 지금은 종로에서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의 생존조차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 · 실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승욱의 공공상담소〉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부모》공저, 《상처 떠나보내기》, 《사랑에 서툰 아빠들에게》, 《포기하는 용기》 등이 있다.

문학
문화
경제
사회

드라마와 문학은 어떻게 다를까?

주 찬 옥
드라마 작가

드라마나 영화가 소설과 같은 스토리텔링, 즉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둘은 전혀 다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KBS 〈TV 문학관〉, MBC 〈베스트셀러극장〉은 아예 기획 자체가 원작이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제가 이 〈베스트셀러극장〉 '매혹' 편으로 데뷔했는데 한 번 방송한 뒤 다음 방송 순서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수많은 책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원작을 찾는 거죠. 원작이 꼭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시가 원작이 되고 수필이 원작이 되는 기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학과 영상 예술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어느 점이 다르냐고 하면, 소설은 문자로 쓰인 언어 영역이고 드라마는 이미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매체입니다. 글자를 읽으면서 머리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억과 상상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는 이런 사고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사고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르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인간 내면의 심리 표현에는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상 예술은 처음엔 소설 등 문학에 기대서 출발했지만 점점 독자적인 길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영상 예술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하다는 점입니다. 소설은 그 나라 문자를 모르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영상물은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21세기에 어울리는 의사 전달 방법인 겁니다.

물론 지금도 원작이 있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문학성이 짙은 소설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외국 드라마가 원작이 되거나 만화가 원작이 되거나 인터넷 소설이 원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제라든가 인간 혹은 인생에 대한 담론이나 메시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다만 재미있는 설정이나 에피소드 혹은 독특한 캐릭터를 원한다는 얘깁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별에서 온 그대〉가 미국 방송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설정이 재미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더 이상 주제 얘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가 영상 문학으로의 기능보다는 오락에 점점 더 충실해지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막장은 더욱 막장답게 충실한 악다구니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자극적인 조미료는 점점 강해질 겁니다. 물론 그러는 한편 좋은 드라마, 사랑스런 드라마, 힐링되는 드라마도 많이 태어나겠죠.

드라마나 영화가 시나 소설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화나 드라마는 점점 더 문학에서 멀어지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전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풍부해질 거고 미적 감각이 길러질 거고 보다 더 시각적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깊이 있고 체계적인 사고, 철학적 사유를 기르고 싶다면 여전히 책, 전통적인 문학이 필요하겠지만요.

글쓴이 주찬옥

글쓴이 주찬옥은 1987년 MBC 〈베스트셀러극장〉 '매혹'으로 작가 데뷔했으며 작가주의 드라마 작가, 탁월한 심리 묘사의 대가로 일컬어진다. 섬세한 감정 묘사로 많은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대표작은 MBC 〈천사의 선택〉,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고개숙인 남자〉, 〈여자의 방〉, 〈원미동 사람들〉, 〈사랑해 당신을〉, 〈수줍은 연인〉, 〈외출〉, 〈운명처럼 널 사랑해〉, SBS 〈로비스트〉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 《로비스트》전 2권, 공저가 있다.

한국인의 일상 속 언어문화

이 병 혁

서울시립대학교 언어사회학과 명예교수

1. 한국인의 언어상像

전통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한국인은 말에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다. 풍수를 보는 지관, 영계와 소통하는 무당, 깊은 산에서 산삼을 캐는 심마니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말의 신성함, 함부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도 수용하지만, 소통에서 말을 잘함으로써 얻는 유용성도 활용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말이 세속화함으로써 이제 말은 입을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지게 되어, 특별히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자 노력의 산물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말을 일종의 자연재自然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말이 자연재가 아니라, 집단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公共材로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 문화의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재로 파악한다.

2. 한국어의 특성

한국어는 우선 어순이 주어+객어+서술어의 순서로 배열되는 원칙을 가짐으로써 서술어가 중심 기능을 한다.

둘째, 낱말 구성 요소인 어소語素, **morpheme**가 문법적 직능을 나타낸다. 서술어는 어간과 어미, 명사는 어체와 격어미로 이루어지고, 이 두 어미는 그 자신이 접착하는 낱말로 하여금, 한 문장의 어떠한 성분이 되게 하는 문법적 직능을 지닌다. 즉 서술어는 어미로써 활용하며, 명사는 격어미로 첨용添用한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말 대우待遇의 차이에 따라 문장체體가 달라지고, 따라서 그 성분 사이에 일정한 호응 관계가 성립한다. 공대恭待하는 데는 상대에게 존경하는 방법**하나이다, 합니다, 하오**을 쓰며, 자신에 관해서는 겸손하는 방법**하소서**을 쓴다. 이 공대나 하대下待에는 일정한 호응 규칙이 있다**진지-잡수시다, 밥-먹다, 어른-뵙다, 친구-보다**.

넷째, 형용사는 동사의 일종이며, 변화하지 않는 관형사가 있고, 명사는 문법적 성**gender**, 수**number**의 성질이 전혀 없고, 따라서 관사가 없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없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한국어는 분류학적으로 보면, 교착어 또는 접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언어이다.

옹 **Ong, 1995**의 분류법**구술성과 문자성**에 따르면, 한국어는 구술성의 언어에 속한다.

구술성의 언어 특징은 1) 언어 표현이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첨가적이고, 2)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이며, 3) 장황하거나 '다면적'이며, 4) 언어문화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며, 5)인간의 생활 세계에 밀착되어 있으며, 6) 발화 행위에서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며, 7) 인지 과정에선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 이입적, 또는 참여적이며, 8) 시,공간상으로 항상성이 있으며, 9) 개별적 사고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상황 의존적이다.

3.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징

첫째, 한국인이 언어를 대자적對自的 존재로 보지 않고, 즉자적卽自的 존재로 보는 탓인지, 일상적 소통 시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차분하게 조리 있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기분,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비속어 및 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밀성, 연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욕이 끼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너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다고 여긴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일상화 및 범용화 영향으로 약어(略語), 은어 및 전문어의 비표준적 어휘가 범람하여, 표준어가 실종된 감이 있다. 한국 사회는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의 분업화, 조직의 전문화, 역할의 단편화, 비인간화, 능률 위주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인간의 소외를 심화시켜 왔다. 이런 풍토 속에서 언중들이 소외감 극복을 위해 손쉽게 취하는 수단의 하나가 은어의 일상화 및 보편화이다. 외집단의 차원에서, 은어 사용자는 은어의 일상화를 기존의 일상 언어 규범에 대한 도전 내지 파괴로서 해석하며, 주변의 억압적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자위한다. 내집단의 차원에서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타자 지향적 행위로써 내집단의 은어를 일상화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의 감정 이입적이고, 상황 의존적 특성 탓인지, 한국인은 소통 시에 자기의 감정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대신, 다짜고짜 상대방을 한마디로 지적하고, 규정하고, 낙인찍는다"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위선자야" 등등. 한마디로 '내 얘기'가 아니라, '너 얘기'로 포문을 연다. 이런 소통 방식은 상대방에게 분노, 격앙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소통의 단절에 이르게 되어, 쌍방은 서로가 가해자, 피해자로 전락한다.

넷째,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광복, 6.25전쟁, 대외 의존적 경제정책, 정보화, 세계화

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어는 일어, 영어 등의 외국어의 지배와 영향 하에 놓여 있다. 특히 영어는 오늘날 세계어로 군림하고 있고, 그 결과 서울 거리는 온통 영어 간판과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고, 한국인은 모두 영어 배우기 광풍 속에 갇혀 있다. 이제 한국어는 맞춤법이 틀리고, 문법에 어긋나도 괜찮고, 영어가 틀리면 쪽팔리는 세상이 되었다. 바야흐로 한국어 대對 영어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4. 한국인의 언어문화 개선 방향

첫째, 언어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즉자적인 자연재가 아니라, 인간이 공들여 만들어 냈고, 계속 다듬어가는 귀중한 대자적인 문화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언어는 소중하고, 신성한 기氣로서, 우리가 아끼고 가다듬는 만큼 좋아지는 에너지로서,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자산이다.

둘째, 소통의 상대를 자기의 분신으로 보지 말고, 자기와 다른 행성 출신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보낼 수 있기 전에,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도 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즉 내 발언과 관련되는 남의 정신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느끼고 있어야만 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을 요구할 뿐 아니라, 미리 예상된 응답에 의해 바로 그 형식과 내용이 형성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의사소통은 상호 주관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내 안에 너 있다".

셋째, 소통 시에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솔직한 느낌이나 진솔한 감정을 토로하여, 상대방과 감정이입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보여주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리하여 상호 신뢰에까지 이를 수 있다.

넷째, 언어가 바로 권력인 세상에서 쉽지 않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권은 구글과 맞먹거나 능가하는 한국어 정보화 사업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한국어 정보검색만으로도 이 세상의 웬만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영어 배우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배우는데 드는 엄청난 돈과 노력을 한국어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문화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쓴이 이병혁

글쓴이 이병혁은 1949년 함남 함주군 상기천면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언어를 매개로 한 언어사회학과 심리사회학 연구에 심취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저서 및 역서로는 《언어사회학 서설: 이데올로기와 언어》, 《한국사회와 언어사회학》, 《사랑의 대상으로서 시선과 목소리》공역, 《코기토와 무의식》공역 등이 있다.

참고문헌

이병혁, 《한국사회와 언어사회학》, 나남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Ong, W. J.이기우,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

김 성 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문학번역원장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다문화 시대라 함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거나 경계를 넘어 서로 뒤섞이는 시대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단일 문화와 단일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나라가 다양한 문화와 혼혈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W. Said 는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모든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어느 문화도 단일하거나 순수할 수는 없다. 모든 문화는 혼혈이고 다양하며, 놀랄 만큼 변별적이고 다층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 문화나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장점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대신 문화가 뒤섞이며 생겨나는 하이브리드 문화와, 인종 간 결혼이 만들어내는 혼혈인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사이드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방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기존의 기득권 지배 문화가 그동안 주류로부터 배제되어 온 주변부 문화를 포용할 만큼 유연하고 관대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태도는 이제 변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한다.

최근 인종 간 결혼, 즉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도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혼혈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란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수인종 문화를 한국 문화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역시 다문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게 되었고, 머지않아 우리도 타문화/타인종과 더불어 사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 인기와 확산도 사실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의 문화는 무시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경계가 사라지고 혼합 문화가 인정받는 이 시대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도 얼마든지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는 쉬워진 세계 여행과 문화적 국경을 없앤 SNS의 확산 덕분에 타문화라는 이질감이나 거부감 없이 한류를 좋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분에 한류는 국경을 초월해 지구촌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된 것이다. 즉 한류가 한국 것이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다보니 우연히

한국 것이었다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류의 매력이 대단해서 한류 현상이 생겼고, 일단 한류를 좋아하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 이면에는 문화적 국경 해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K-Pop은 그것이 서양적 요소와 동양적 요소를 혼합하고 있어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SNS의 놀랄 만큼 빠른 확산 속도 덕분에 오늘날 한류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펴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한류의 세계 확산에는 박수를 치면서, 외국의 대중문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상륙과 인기에는 적개심을 품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그런 행동은 마치 해외에서 한류의 인기에 분노해 혐한을 선동하는 사람들과도 같기 때문이다.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사이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리는 우리 것에만 관심을 갖겠다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다. 베토벤은 독일인인 것만큼이나 서인도제도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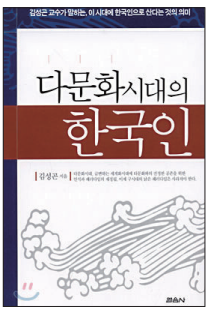
타자와 더불어 사는 다문화 시대, 또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좁아지는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고 융성하려면 우선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지도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는 한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며 East Sea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만 가능한 이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일본에서 볼 때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 즉 West Sea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Sea of Japan 밑 괄호 속에 East Sea라고 표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병기가 아니라, 전자를 주된 이름으로 그리고 후자를 종의 이름으로 표기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동해를 Sea of Korea라고 표기했더라면, 미국에서도 Sea of Japan/ Sea of Korea라고 나란히 병기했을 것이다. 두 나라는 주와 종으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해의 영문 명칭 문제는 우리의 국제 감각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편협한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말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다른 나라/다른 문화와 더불어 사는 세계의 시민이 되어야만 한다. 때로 문화적 이해와 교류는 국가 간의 정치적 충돌이나 외교적 갈등도 부드럽게 해결해줄 수 있다. 다문화 시대에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도 해체되고, 영상-전자매체와

활자 매체의 구분도 흐려진다. 그러므로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both/and'의 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동반자로 만들어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예컨대, 영화는 소설의 적이 아니라, 강력한 동반자/후원자가 될 수 있다. 소설 출간이 영화와 맞물리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아무도 안 읽는 책을 사람들이 찾아 읽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의 성공은 원작의 천문학적 판매증가를 초래했다. 마찬가지로, 종이책과 전자책도 서로를 해치는 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문화/다매체 시대에는 전자책을 부인하고 종이책만 책이라고 주장하거나, 키보드가 아닌 펜으로 써야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살아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파피루스 시대에는 종이책을 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붓으로 쓰던 시대에는 펜으로 쓰는 것을 천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문학과 문화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것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또 다문화 시대에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문화에는 차이만 있을 뿐, 주종이나 우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수 문화도 주류 문화와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만 한다.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은 '우리끼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자와 더불어 사는 '세계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느 민족도 고립되어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것에만 애정을 갖는 시대는 지났다. 12세기 유럽의 사상가 성 빅터 유고Hugo of St. Victor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고국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자기 고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 모두를 다 타국처럼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김성곤,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 열음사

글쓴이 김성곤

글쓴이 김성곤은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이며 서울대학교 영문과 명예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이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원장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원장, 문학과영상학회 초대 회장,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회장,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장, 한국 아메리카학회 회장, 뉴욕주립대 한국총동문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외국문학〉 책임 편집위원, 〈21세기문학〉 편집위원, 문학사상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김성곤 교수의 영화 에세이》, 《헐리웃, 20세기 문화의 거울》, 《문학과 영화》, 《김성곤의 영화 기행》, 《영화로 보는 미국》 등 문화와 영화를 접목한 저서와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 《퓨전 시대의 새로운 문화 읽기》, 《글로벌 시대의 문학》, 《하이브리드 시대의 문학》 등 다수의 평론집이 있다.

참고문헌

김성곤,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 열음사
김성곤, 《글로벌 시대의 문학》, 민음사

우리는 지난 100년간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주 영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여러분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파트 상가에 가면 어김없이 부동산 가게와 함께 '치맥집'이 있지 않나요? 좀 더 대단지에 사신다면 아예 '먹자골목'에 비견되는 상가가 있지요. 이곳에 자리 잡은 음식점의 메뉴를 한번 말해 볼까요. 피자 · 스파게티 · 보쌈 · 짜장면 · 해장국 · 감자탕 · 족발 · 김밥 · 떡볶이 · 회 · 삼겹살 · 낙지볶음 · 커피 등. 아마 직장 근처에서도 30분만 걸으면 이런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도시입니다. 조금만 공을 들이면 일본 라멘, 인도 음식, 파키스탄 음식, 터키 음식, 몽골 음식, 네팔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도 찾을 수 있지요. 심지어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 운영하는 훠궈나 양꼬치구이도 굳이 연변까지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작년 가을에《식탁 위의 한국사 : 메뉴로 본 20세기 한국 음식문화사》란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본 독자들 중에는 무척 반갑게 저의 글을 대해 준 분도 있었지만, 불쾌감을 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역사가 무척 오래된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잡채'가 알고 보니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했기 때문이지요. '잡채'는 한자로 '雜菜'라고 씁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분명히 조선 후기의 궁중 잔치에서도 올랐습니다. 1796년 1월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지금의 수원에 행차를 했습니다. 수원에 도착하여 정조는 점심 수라상을 받았는데, 그때 잡채 한 그릇도 상 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조리법이 나와 있지 않아 혜경궁 홍씨가 어떤 잡채를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시기인 1800년대 중엽에 쓰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글 필사본 조리서《규곤요람閨壼要覽·음식록》에 '잡채법'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잡채라 : 숙주나물 거두절미하고 미나리를 숙주 길이만큼 썰고 곤자소니 소 대장의 골반 안에 있는 창자의 끝부분 와 양 소의 위 을 삶아 그와 같이 채치고 파 데쳐서 채치고 한데 갖은 고명하는데 육회 채 쳐 한데 볶아서 각 등물을 모두 한데 섞어 무쳐 닭의 계란 부쳐 가늘게 채 쳐서 위에다 뿌리고 잣가루 뿌리고 겨자에 무치느니라."

지금의 잡채와 비교하면 재료를 길쭉하게 썰어서 무치는 것만 똑같지 나머지 주재료나 양념 방법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잡채라면 당면이 가장 핵심 재료인데, 위의 조리법에서는 당면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1921년에 당시 여고 교사였던 방신영이란 분이

펴낸 《조선요리제법》이란 책에 잡채 조리법이 나옵니다. 그녀는 잡채를 나물의 한 종류로 분류하면서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도라지·미나리·황화채·제육돼지고기 저육을 발음하기 쉽게 제육·표고버섯을 채 쳐 담고 "파를 이겨 넣은 후 간장과 기름과 깨소금 후춧가루를 쳐서 한참 섞어 가지고 기름에 볶아 내어 당면唐麵을 물에 불려 삶아 가지고 썰어서 다 함께 담고 잘 섞어서 접시에 소복이 담은 후 알고명 채 치고 표고 석이버섯을 불려서 실과 같이 잘게 채 쳐 기름에 볶아 가지고 맨 위에 뿌리고 또 잣가루를 그 위에 뿌리느니라"고 써 두었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당면이 들어간 잡채 조리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알다시피 당면은 그 이름에서만 보아도 중국이 원산지인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당나라 때의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주족이 아닌 한족의 음식이란 의미에서 호胡가 아니라 당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것을 당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펀탸오粉條 혹은 펀쓰粉絲라고 부릅니다. 고구마나 감자의 전분, 곧 녹말의 일부를 뜨거운 물을 붓고 반죽하여 풀처럼 만들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녹말을 붓고 저으면서 그것을 섭씨 40도 정도의 더운물을 붓고 치댑니다. 이 반죽을 국수틀로 눌러서 뜨거운 물이 담긴 솥에 뽑아낸 다음에 식혀서 햇볕에 말리면 당면이 만들어집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이 당면도 한반도에 소개되었습니다. 밀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밀국수를 일상적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수에 대해 대단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던 조선의 선비들에게 당면은 매우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방신영이 당면이 들어간 잡채를 소개한 지 9년이 지난 1930년 3월 6일자 〈동아일보〉에 서울의 동덕여고보 가정선생 송금선이 소개한 잡채 조리법이 실렸습니다. 송금선의 잡채 조리법 역시 방신영의 것과 똑같이 당면이 들어갑니다. 특히 잡채의 간을 맞추는 부분에서 방신영은 단지 간장이라고 적은 데 비해, 송금선은 일본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장은 곧 일본간장을 가리킵니다. 송금선은 여러 가지 재료에 양념을 한 다음에 조선간장과 일본간장을 반반씩 하여 간을 맞추든지, 아니면 일본간장만으로 간을 맞추면 맛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조선간장과 일본간장은 그 맛이 다릅니다. 보통 '왜간장'이라고도 불렸던 이 일본간장은 조선간장에 비해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먹는 공장제 간장이 대부분 이 일본식 간장입니다.

해방 이후에 당면잡채는 한정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심지어 분식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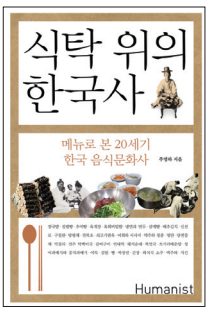
도 중요한 메뉴가 되어 대중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1976년에 출판된 황혜성의《한국요리백과사전》에서는 잡채를 궁중 음식 중에서 숙채로 다루었습니다. 당연히 당면이 들어간 잡채입니다. 마침내 양조간장으로 무치는 방식의 당면잡채가 1970년대에 한국 음식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선 후기의 '잡채'는 당면잡채에게 이름을 뺏기게 되었지요. 1930년대 이래 지금까지 생일상·돌상·회갑상과 같은 잔칫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당면잡채는 20세기 전반기 한반도에 살았던 조선인 · 중국인 · 일본인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당면잡채와 비슷한 음식은 무척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 영향을 준 일본 음식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음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간장을 베이스로 하여 무, 가마보코かまぼこ, 곤약, 삶은 계란 따위가 들어간 국물요리를 가리키는 오뎅御田이 해방 이후에 가마보코만을 어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양식에 일본식을 가미한 와요카시和洋菓子는 호두과자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음식이 한국 음식에 끼친 영향도 큽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인이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으로 짜장면을 꼽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짜장면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무려 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음식이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1920년대에 겨울냉면이 서울에 와서 겨울에 한강에서 캐낸 얼음을 전기로 냉장시키면서 여름냉면이 탄생한데 비해, 부산의 밀국수는 함경도 이주민이 감자전분 대신에 밀가루로 만든 냉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받은 밀가루 덕분이지요. 이 밀가루는 수제비를 비롯하여 인스턴트라면에 이르기까지 1960~70년대 분식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주변부에 동향인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집에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거나 동네 근처에 고향 음식점을 만들어 향수를 달랬습니다. 이맘때 서울에서 전주비빔밥이 유명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라도의 홍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즈음에 외국 음식이 한국 음식 속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맥도날드를 비롯한 미국의 패스트푸드와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음식점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 도시화·산업화·세계화의 결과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김장은 김치냉장고 덕택에 고층 아파트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모두들 너무나 오래된 옛날 음식인 탕국을 마련합니다. 이것을 혼란스럽게 바라볼 일은 아닙니다. 사실 20세기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음식은 혼성 문화hybrid culture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만들어 낸 결과이지요. 음식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입니다. 우리 것 남의 것을 너무 따지지 말고 식탁 위에서 남의 사정을 통해서 우리 사정을 아는 시대를 살아가면 어떨지요.



주영하, 《식탁 위의 한국사》, 휴머니스트

글쓴이 주영하

글쓴이 주영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이다.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음식의 역사와 문화이며, 책의 문화사 시각에서 문헌연구, 구술사의 시각에서 현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음식전쟁 문화전쟁》,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 《차폰 잔폰 짬뽕》, 《맛있는 세계사》, 《음식인문학》, 《식탁 위의 한국사》 등이 있다.

천년 한식의 숲을 거닐다

정 혜 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현대는 새로운 미각의 시대이다. 동시에 세계는 음식 전쟁 중이다. 음식 전쟁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음식에 대한 문화적 가치 부여이다. 그러나 한국 음식은 그동안 문화로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문화를 국제화시키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지구화의 과정에서 한국 음식 역시 문화의 한 항목으로 등장한다. 문화로서의 한국 음식에 대한 접근은 대중 소비문화의 한 항목으로 한국 음식을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한식 밥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역사와 의미 체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한민족의 음식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은 모든 음식에 원리와 철학을 담아 왔다. 우리가 우리 음식을 수천 년 간 즐겨 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무엇보다 한민족이 먹고 즐기는 음식에 대한 이해야 말로 그 민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세계가 자국 음식 전쟁터가 되어 가는 요즘,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탄생한 음식에 대한 문화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들은 '천년 한식'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이해란 음식의 탄생 배경, 철학, 원리 사회, 경제적 배경, 무엇보다 그 음식을 공유한 사람들의 삶을 포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식을 단순히 주식과 부식의 조율로 풀지 않고 우리 음식에 나타난 미학의 관점에서 원리별로 재해석해본다. 이에 따라 '섞음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배려'의 음식,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음식, 그리고 '풍류'의 음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식의 역사, 고조리서와 문학과 그림들

우리 민족 5천 년의 역사는 우리 음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음식 관련 기록 문화유산도 많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최고最高, 最古 의 조리서로 인정받는《음식디미방》, 남성 유학자가 쓴《수운잡방》 같은 고조리서가 있고, 조선 후기 실학서에도 요리는 중요하였다.《규합총서》에는 과학적인 지식과 옛 여인네들이 사용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들이 살아 있다.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인 만큼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살아 움직인다. 또한 판소리 소설이나 기속시紀俗詩와 같은 문학과 조선 시대 풍속화 등에도 우리의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혼불》,《토지》,《미망》과 같은 소설을 통해서도 전통 음식 문화가 세세하게 살아난다. 이러한 것들이 한식의 역사인 셈이다.

한식韓食의 미학

1. 섞음의 미학을 보여주는 음식

우리 음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다는 점이다. 개별 식재료의 맛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 음식과는 다른 특징이다. 아마도 어울리고 무리 짓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에 많은 부분 성공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비빔밥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워낙 익숙해 있어 특이함을 모르지만 세상에 비빔밥처럼 그렇게 많은 음식 재료들을 뒤죽박죽 섞어서 먹는 음식은 어디에도 없다. 비빔밥 외에도 섞음의 미학으로 만드는 한국 음식이 많다.

1) 세계적인 음식 - 비빔밥

비빔밥은 원래 골동반骨同飯, 혹은 骨董飯이라 불렸는데 어지럽게 다 섞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음식은 조선 초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거의 1800년대 말엽에 나온 조리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만일 전통을 아주 오래 된 과거에만 한정해서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비빔밥은 전통 음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늘 전통은 새롭게 창조된다는 의미에서 보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비빔밥은 창조적 전통 음식이다.

2) 화해의 음식 - 탕평채

탕평채는 조선 시대 영조 때 실시했던 '탕평책'에서 나왔다. '탕평'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듯이 탕평책은 사색당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다.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나누어 먹었다는 설을 가진 탕평채는 모든 재료를 다 섞어서 만드는 어울림의 대표 음식으로 화해의 음식이다.

3) 영양이 뛰어난 - 잡채

잡채란 음식도 동물성인 고기와 여러 채소 및 당면을 섞어 만드는 것이니 섞음의 철학이 위력을 발휘하는 음식이다. 잡채는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고, 외국인 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의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늘 수위를 차지하는 음식이다. 과거 원조 잡채에는 당면이 없었으나 뛰어난 창조력으로 당면을 넣어 더 영양가 있게 재창조한 음식이다.

4) 섞음의 철학을 오행론에 실어서 구현한 음식 - 구절판

깨끗한 교자상 차림에 올라가 있는 구절판은 아름다운 음식이다. 구절판이란 아홉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릇을 말하는데 그 각각의 칸에는 제각기 다른 음식들이 담긴다. 반질반질한 칠기 찬합에 색 맞추어 담긴 음식 재료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저걸 어떻게 먹어 치울 수 있을까 하는 비장한 마음까지 드는 음식이다. 그렇게 예쁘다. 그런데 이 음식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 우리 음식에는 음양오행 사상이 실천되고 있다. 음양오행의 철학이 잘 실현된 음식이 바로 구절판이다. 구절판에는 우선 음 동물성 식품과 양 식물성 식품의 음식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각 음식들은 제각각 오방색 청, 적, 황, 백, 흑과 오미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맛를 지니고 있어 조화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 재료들을 한번에 느끼며 먹을 수 있도록 가운데 칸에는 밀전병을 놓아 함께 싸먹도록 하였다. 바로 쌈 문화의 결정판이다.

5) 신선이 남기고 간 냄비 하나 - 신선로

신선로 神仙爐 는 우리 음식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이다. 요즘 사람들은 신선로라는 요리를 잘 모를지 몰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책자 같은 데 단골로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이 신선로이다. 신선로는 한마디로 온갖 동식물의 귀한 재료가 다 들어가 오묘한 국물 맛을 보여주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이 음식을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라는 뜻에서 열구자탕 悅口子湯 이라고 불렀다. 또한 신선로라는 이름에는 조선의 떠돌이 시인인 정희량의 전설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2.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발효 음식 – 김치, 간장, 된장

한식의 특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발효 식품이 많다는 것이다. 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빚어내는 발효 음식이 한식의 특징이고 이에는 말할 것도 없이 김치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간장, 된장, 고추장 등도 빼놓을 수 없다.

1) 민족의 음식 - 김치

지금까지 알려진 김치의 종류는 약 200여 종에 달한다. 아마 세상의 어느 민족도 단일 음식만으로 200여 종 이상을 개발해내는 끈기를 가진 민족은 드물 것이다. 소금에 절인

채소인 '저' 한 가지를 놓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 시도해 만들다 보니 200여 가지가 된 것이다. 김치 종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유구가 1827년에 쓴 《임원십육지》에 이미 90가지 이상의 김치 종류가 나온다. 그리고 이 좁은 땅에서 지역마다 지역 식자재와 날씨에 맞는 김치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의 다양성은 놀랄만하다. 2013년 유네스코에는 김장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오래 묵을수록 좋은 음식 - 간장, 된장, 고추장

발효 음식 하면 간장 된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음식을 요리하면서 간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추장이나 된장은 국이나 찌개 같은 것을 만들 때 전체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장醬의 맛은 모든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세계적으로 느림을 지향하는 발효 음식들이 많지만 적어도 6개월 혹은 수백 년을 내려오는 음식은 드물다.

3. 배려의 미학을 보여주는 음식들 – 숙깍두기, 섭산적, 타락죽

조선은 유교 사회였으므로 제사와 같은 의례 음식들이 발달하고, 연장자를 우대하는 가르침에 따라 노인들을 배려하는 음식 등이 나온다. 현대와 같은 초고령화사회에서 되새겨볼 만한 음식들이다. 숙깍두기는 그런 예이다. 깍두기란 음식은 맛은 있지만 좀 딱딱하다. 그래서 노인들의 부실한 치아로는 씹기가 힘들어 나온 게 숙깍두기인데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무로 깍두기를 담기 전에 한 번 찐 다음 깍두기를 담는 것이다. 또 다른 음식은 섭산적이다. 쇠고기를 넓게 저며 양념해 구운 음식인데 대개 쇠고기가 귀했던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을 했던 귀중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쇠고기가 질기므로 산적은 노인들에게는 부적절한 음식이다. 그러나 노인들이라고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겠는가? 이 섭산적이라는 음식은 쇠고기를 좋아하는 노인들을 위해 고기를 칼로 잘게 다진 후 다시 산적 형태로 만들어 구운 음식이다. 우유는 조선 시대 가장 귀한 식재료로, 이로 만든 타락죽은 노인을 극도로 공경한 음식의 대표 주자였다. 죽은 노인들이 소화하는 데에 매우 편안한 음식이다. 그런데 여기다 타락, 즉 우유를 넣어서 영양까지 완벽한 음식을 만들었다. 우유는 지금이야 너무 흔한 식품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귀한 식품이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음식을 노인들을 지극히 공경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바치는 것이다

4. 아름다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음식 – 앵두편, 미나리강회, 오이선, 호박선, 족편

일본 음식을 아름다움의 극치라고들 하지만 우리 음식 중에는 아름다움을 실천한 음식들이 많다. 우리 음식은 인위적인 아름다움이기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1) 아름다움의 미학 - 앵두편

앵두편은 조상들의 환상적인 색채 감각과 그에 못지않은 과학적인 면모가 있는 음식이다. 서양의 과일젤리는 과일즙에 동물성 젤라틴을 넣어서 굳혀 만든 야들야들한 질감의 음식이다. 그에 비해 앵두편은 식물성 전분으로 엉기게 해서 만든 음식이다. 식물성 전분은 여러 식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질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녹두에서 얻은 전분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녹두로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녹두 녹말을 만들어 내고 이 성분의 엉기는 성질을 이용해서 과일편을 만들어 낸 것이다.

2) 채소로 만든 회 - 미나리강회, 파강회

생선회를 일본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생선회를 즐겨 먹었다. 생선회뿐만 아니라 채소를 이용한 회 요리도 많다. 미나리강회나 파강회를 만드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미나리는 긴 겨울을 지나고 미나리가 갓 나올 때가 가장 맛있다. 그래서 '처갓집 세배는 미나리강회 먹을 때나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음력 정월 보름이 지나서 바로 나오는 미나리도 먹을 겸 느지막이 세배를 간다는 의미이다. 처갓집에 세배하러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음식에 담아 교묘히 전달하는 남정네들의 마음이 재미있게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제때 나는 제철 채소의 신선한 맛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제때 찾아 먹으려 하는 그 마음도 재미있다. 미나리나 파를 이용해 고기와 달걀지단을 넣어 색감을 예쁘게 만들어 낸 음식으로 맛과 멋이 흘러넘친다.

3) 우족의 화려한 변신 - 족편

족足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으로 유명한 것은 족발이다. 이 족발 말고 쇠족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 바로 족편이다. 이 음식은 유명한 실학자인 서유구가 쓴《옹희잡지》에도 자세히 나온다. 소족을 오래 곤 다음 갖은 양념을 다해 만드는데 보기에도 심란한 소족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시킨 것이 놀랍다. 이 족편의 특징은 야들야들한 맛에 있고

이 맛 감은 족의 콜라겐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식인 과일젤리는 바로 이 콜라겐 성분을 굳힌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우족에 동물성 단백질인 콜라겐 성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소족을 오래 오래 고은 다음 여기다 달걀지단이나 실고추, 파 같은 온갖 종류의 고명을 이용해 색감과 영양을 더 높였다. 최근의 미용을 위한 콜라겐 음식의 고전판이다.

4) '선膳' 음식의 아름다움 - 오이선, 호박선, 어선

지금 많이 잊혀 가고 있는 요리 중 하나가 '선' 음식이다. 우리가 찜이라는 요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한데 선 요리에는 익숙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 '선' 음식은 찜의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다. 오이선은 오이를 주재료로, 호박선은 호박을 주재료로 한다. 방법은 오이소박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오이나 호박 안에다가 '소'를 넣고 삶아서 찜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어선'은 생선살을 넓게 저민 다음 '소'를 안에 넣고 둘둘 말아서 수증기 찜을 해서 만든 음식으로 조리법이 섬세한 만큼 정말 아름답다.

5. 풍류의 미학을 보여주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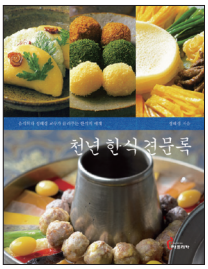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절기나 계절에 맞추어 먹는 음식이 대단히 중요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경 사회는 바로 이 절기에 따라 움직여지니까 이러한 때들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1) 눈 오는 밤에 구워 먹는 고기 - 설야멱적雪夜覓炙

우리 음식 중에 유명한 것이 불고기이다. 불고기는 불에 구워진 고기라는 뜻으로 최근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기구이는 맥적에서 유래되었고 '맥'은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고구려를 가리킨다. 따라서 맥적은 고구려의 고기구이라고 하였다. 적炙은《예기》에 의하면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서 직화를 쬐어 구이하는 것이다. 예부터 중국 사람이 이를 숭상하여 중요한 잔치에 이 음식을 먼저 내놓았다고 하니 예부터 고기구이는 인기 음식이다. 눈 오는 밤에 찾아 먹는 고기구이라는 뜻의 설야멱적은 개성의 중요한 음식이었고, 이 풍경은 음식뿐만 아니라 〈야연〉이라는 풍속화에서 적나라하게 보인다.

결結

한국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정성과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을 지켜왔다. 우리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섞음과 어울림을 구현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천천히 가는 '느림의 미학'을 지향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정신이 한국 음식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인들은 한민족의 오랜 역사를 지탱하여 준 김치와 장류와 같은 발효 음식들을 포함하는 전 지구적 음식인 한식을 전 세계인들과 나눔으로서 세계인들의 건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혜경, 《천년 한식 견문록》, 파프리카

글쓴이 정혜경

글쓴이 정혜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가정학회 부회장으로 한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식을 과학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김치 품질 측정기, 기능성 솔잎 맛김, 한방 맥주 등의 제품 특허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 음식 오디세이》, 《천년 한식 견문록》, 《정혜경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음식 이야기》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정혜경, 《천년 한식 견문록》, 파프리카

두려움의 시대를 넘는 '살림의 경제학'

강 수 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추락에 대한 두려움, 배제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그런데 과연 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공동체적 관계망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닐까 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 사람과 자연의 관계망, 심지어 우리 자신과 내면의 관계망이 하나씩 둘씩 찢겨 나가고 훼손된 결과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원래 모든 존재는 상호 관계 속에서 전일성을 느끼며 안정감을 갖고 살아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관계가 폭력적으로 왜곡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동시에 거역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래서 파괴된 공동체적 관계망 이후 모래알처럼 흩어진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부단히 경쟁을 통해 자기만의 경쟁력을 드러내지 못하면 배제되고 만다. 옆으로는 팔꿈치로 타자를 밀어내야 하고 아래로는 낮은 사람을 갈구어야 하며 위로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을 떨거나 잘 비벼대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갈-비의 변증법'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적 관계망을 잃은 이후 우리는 생존 전략으로 '강자 동일시'를 한다. 강자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강자 그룹에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편한 느낌을 갖는다. 나아가 그 강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무시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가짜 마음이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전개되는 경제는 살림의 경제가 아니라 죽임의 경제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 타자를 죽이고 자연을 죽이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 죽인다는 뜻에서 그렇다.

현재의 돈벌이 패러다임이란 한마디로 모든 삶의 가치가 '돈벌이'에 있다는 말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돈벌이를 잘하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하고, 돈벌이가 잘 안 되면 '세상과 경제가 모두 잘 안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 돈벌이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다리 질서'인데, 이는 사회질서가 마치 사다리처럼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서 붙은 말이다. 사다리 질서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옆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기보다 낮은 이는 통제하며 높은 이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살아남거나 승진을 할 수 있다. 승진을 할수록 '떡고물', 즉 기득권이 커지기에

돈벌이 패러다임과 사다리 질서의 패러다임에 갇힌 사고와 행위를 하는 이들은 오로지 '사다리 오르기'만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며 살기 쉽다.

흔히 '석유왕'으로 통하는 J. D. 록펠러1839~1937는 '스탠더드 오일'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 53세에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지만 노동자 탄압이나 독과점 등의 방법으로 '더러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면이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고 절망했으나 우연한 기회에 남을 도우면서 새로운 삶의 희열을 느꼈다. 이후 자선사업을 시작하면서 병이 완치되었고 그는 92세까지 장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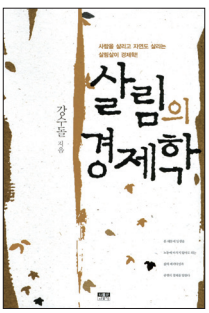
자서전에서 록펠러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다. 말인즉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는 것이며, 세계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은 죽임의 과정이었고, 이웃과 나누는 길은 살림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돈벌이 논리 위에 사다리 질서로 움직이는 경제를 '죽임의 경제'라 부른다. 돈벌이 경제가 억압과 착취, 기만과 파괴를 일삼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건강하고 온화한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과 정신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와 더불어 사람의 내면과 정신을 살리는 경제는 '살림의 경제'이다. 살림의 경제는 예禮가 바른 경제이며, 이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티끌보다' 겸손해질 때에만 가능해진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다른 존재를 존중하거나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죽임의 경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타협적 저항을 하면서도 참된 대안을 겸허히 찾아 나서야 한다.

살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휴대해야 하는 것은 삶의 '자율성'과 '연대성'이다. 유기농 농사, 마을 공동체, 아나바다 운동, 대안 교육, 마을 축제, 지역 화폐, 유기농 생협, 직거래, 공정 무역, 경영 참여, 자주 관리, 협동 조합, 사회적 경제, 의료생협, 민중 무역 등이 모두 살림의 경제를 위한 대안들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가 어깨를 걸고 함께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런 것들이 살림의 경제를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절대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소통과

연대를 통해 바른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때만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살림의 경제학'은 '희망의 경제학'이며 '행복의 경제학'이기도 하다. 살림의 경제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미끼로 상품을 더 많이 팔려는 세력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수돌, 《살림의 경제학》,
인물과 사상사

글쓴이 강수돌

글쓴이 강수돌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노사 관계를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돈의 경영'이 아닌 '삶의 경영'을 가르치고 있다. 2005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년 동안 조치원 신안1리 마을 이장을 하며 고층 아파트 반대 운동과 마을 공동체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살림의 경제학》, 《이장이 된 교수, 전원일기를 쓰다》, 《나부터 마을혁명》, 《잘 산다는 것》, 《자본주의와 노사 관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 경영》, 《내 마음의 길잡이, 개와 고양이》 등이 있다.

참고문헌

강수돌, 《살림의 경제학》, 인물과 사상사, 2009.
강수돌,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이상북스, 2014.
강수돌, 《팔꿈치 사회》, 갈라파고스, 2013.

우리 뉴스는 왜?
-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홍 성 일
미디어 비평가

2014년은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제28 보병사단윤일병 폭행 치사 사건, 고 신해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우울한 소식이 끊이질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힘들어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히 말하자면 늘 사건, 사고는 있었다. 2014년이 유난한 것은 아니다. 다만 2014년 세간에 더 회자된 사건, 사고가 많았을 뿐이며, 이것은 무엇보다 사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에 관한 뉴스를 우리가 더 많이 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 자체를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뉴스가 단지 일어난 일의 중계에만 머무른다면 2014년 말, 많은 대중들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설명할 수 없다. 뉴스는 일어난 일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의 의미까지 더불어 전한다. 운전을 하다 흘끗 보이는 "어제 서울 시내 교통사고 부상자 26명, 사망 2명"이란 전광판 숫자에 어떠한 감정적인 여운을 갖기는 어렵다. 숫자 속의 사람이 신혼부부라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들이라는, 혹은 늘 지적되곤 하던 겨울 빙판길이었다는 구체적 맥락이 부여될 때 숫자는 뉴스가 되고, 뉴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느끼는 2014년의 상실감과 무력감은 벌어진 일에 대한 감정이며 동시에 우리네 뉴스, 그리고 뉴스 속 우리 사회에 대한 상실감과 무력감인 셈이다.

단지 기자나 언론이 뉴스에 열심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이 게을렀다면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올해의 사건, 사고를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채널, 인터넷과 신문에서 뉴스는 차고 넘쳤고, 우리 역시도 뉴스를 보는 데 열심이었으며,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제는 열심의 진정성이 아니라 열심의 방향성이다. 뉴스가 사건, 사고에 의미를 더한다면, 그 뉴스 속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수많은 뉴스들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았을까? 뉴스를 열심히 챙겨봤다면, 뉴스를 챙겨 본 우리는 무엇 때문에 뉴스를 보았던 것일까? 혹시 타인의 불행으로 나를 위안하려는 관음증과 가학성은 아니었을까?

사건, 사고에 뉴스가 더한 의미의 맥락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뉴스는 손쉽게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으로 탈바꿈된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SNS가 사람들과 사람들을 엮는 오늘날, 뉴스는 더 이상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접한 뉴스의 사실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다. 뉴스가 더한 의미가 과연 옳은 맥락에 부여된 의미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올 한 해,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비아냥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기자+쓰레기’라는 조롱은 뉴스를 만드는 데 열심이었던 기자들의 자존감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맥락을 거스르거나 호도하고 뉴스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그것은 뉴스이기 이전에 그저 쓰레기에 불과함을 많은 대중들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의 ‘기레기’의 의미가 단지 연예인을 좇는 파파라치에 한정되었다면, 2014년의 ‘기레기’는 전체 기자 사회 일반으로 확장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 딴죽 건 대중을 무한히 선한 존재로만 여길 수도 없다. 우리 사회 또한 여러 이익집단으로 갈려 있다. 그중에는 어떤 뉴스를 통해 이득을 누리는 이들이 있으며, 반대로 그 뉴스로 더 불리해지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각박한 경쟁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곤 한다. 필요 이상으로 조롱하고 냉소하며 뉴스가 전한 내용에 살을 붙여 뉴스를 흉기로 만드는 데 열심인 이들도 있다. 인터넷 뉴스 아래 달린 댓글에서 그와 같은 살벌한 풍경을 자주 접한다.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도 ‘기레기’ 못지않은 ‘쓰레기’이다.

좋은 뉴스가, 그리고 좋은 뉴스 수용자가 점점 드물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뉴스를 혐오하거나 뉴스에 무심한 이들 또한 많다. 뉴스에 대한 관심을 오지랖이 넓다고 말하며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인 게 남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 없는 개인은 없다. 그 혹은 그녀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며 학생이거나 회사의 구성원이기에, 어찌 보면 이들의 뉴스 무관심은 사회를 전하는 뉴스에 대한 책임 방기이고 타인에게로의 책임 전가라 할 수 있다. 나쁜 뉴스가 많고 나쁜 뉴스 독자가 많다는 걸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뉴스와 모든 뉴스로부터 눈과 귀를 닫을 수는 없다. 그럴수록 뉴스는 더욱 더 그들만의 뉴스가 되기 쉬워질 것이다. 오늘의 ‘기레기’와 나쁜 독자는 어떤 면에서 좋은 뉴스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힘을 잃는 시대 변화와 맞물려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성급히 좋은 뉴스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냉정히 되살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좋은 뉴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이란 말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뉴스가 망가질 때 우리 사회 역시 망가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셈이니까. 하지만 2014년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떨쳐내고 이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을 좋은 뉴스에 대한 관심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뉴스는 많은 이들이 읽고 보기 때문에

가장 집단적이고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공식적이며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늘 접하므로 일상적으로 사회를 알 수 있는 진입로이다. 더 많이 뉴스를 읽고 보며, 더 많이 뉴스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자. 훈훈한 미담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과장된 미담은 자칫 현실의 비참함을 가리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다수의 좋은 기자와 여전히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좋은 수용자가 존재한다. 다만 덩치 큰 미꾸라지들이 전체 뉴스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기자와 좋은 수용자가 이 흙탕물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바로 옆에 두고서도 서로 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들에 대한 격려와 이들 사이의 연대를 위해서라도,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뉴스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홍성일,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돌베개

글쓴이 홍성일

글쓴이 홍성일은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이다. 지은 책으로는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은유들》공저, 《PD 저널리즘》공저, 《글로벌 시대 미디어 문화의 다양성》공저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비디오 게임》공역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 연구 및 문화 정책, 저널리즘, 언론 운동이다.

참고문헌

홍성일, 《세상은 어떻게 뉴스가 될까》, 돌베개

역사 신화 종교

역사와 문화로 본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유 초 하

충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1. 전통 사상의 범위와 주류에 대한 오해들

한국 사상이라고 하면 흔히들 유儒/불佛/선仙 또는 유儒/도道/불佛의 세 가지 종교三敎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仙 사상은 상고시대 한국사의 사상 전통을 계승하는 다양한 변이 양태로서 의미를 지닌 것이며, 중국에서 유입된 도교 사상이 아니다. '한국 도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 사상사의 내재적 발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고유 사상 유파들에 대해 그 근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까닭에 그것을 수입된 중국 도교의 아류들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왔다.

한국 문화사에 대한 주체 결석의 관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국의 역사를 '한恨의 역사'로, 한국의 문화를 '한의 문화'로 특징 지우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욕구의 좌절과 삶의 파국에 대처하는 편집적·강박적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한'을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로 표현하는 이른바 민속학이 유행해왔다. 이는 한국사 전체를 안팎의 침략/억압/수탈의 연속 및 그로 인한 좌절 / 상실 / 설움 / 비원의 덩어리로 보는 소극적·비관적 관점과 상응한다. 그런 태도에서라면 중민衆民과 원귀들의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무당 푸닥거리 곧 살풀이굿이 한국 문화의 정수에 해당하리라. 5천 년의 역사를 인고와 일방적 희생의 연쇄로 보고 그에 대한 신적 구원을 미래 전망으로 설정하는 함석헌流의 역사관도 이러한 소극적 자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동양 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핵심적으로 대표하는 요소로서 중국의 '형태', 일본의 '색'과 함께 한국의 '선'을 꼽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流의 추상적 예술 사관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현실에서 비의도적으로 만난 불운과 비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을 통해 '신의 위로'를 향해 다가서는 것을 구원으로 상정하는 이러한 태도와 관점은 해방 이후 세대에까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어두운 곳과 비관적 방향에서 찾도록 하는 데 크게 그리고 널리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한국 사상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이 퍼지게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 사학계에 금과옥조로 부과된 실증주의 사관과 역사 기술 방법이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이나 명확한 물질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중요한 역사적 변화는 해석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는, 당시 일본 학계의 일견 당연한 듯이 들리는 방법론적 치밀성은 실상 한국사의 자연스러운 주체적 변화·발전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목적의식을, 아니라면 적어도 무의식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도에 부응하는 태도는 일본 식민 사관을 추수追隨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2. 문화 정체성 왜곡의 역사적 요인 세 가지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상의 전통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의 비뚤어진 안목들이 형성된 데에는 역사적 한국 사회를 강타한 세 가지 흐름의 외세 침략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중국·일본·미국은 한국사의 서로 다른 시기에 정치·군사·경제·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침략해 들어옴으로써 역사적 한국인의 삶과 의식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영향은 한국사 구성 주체의 각성 정도와 대외 세력 관계의 추이에 따라 때로 강렬한 대결의식과 치열한 투쟁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철학적 사유를 하나의 중심으로 포괄하는 사상적·문화적 측면에서는 역사적 공동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심각한 균열을 주는 각인으로 온존되어왔다.

저들 외세의 침투가 끼친 당대의 일차적 폐해는 민족 구성원들의 생명의 손상, 국토의 상실, 재물의 약탈 또는 경제적 수탈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의 재생산 조건이 해체된 다음에도 침략의 사상적·문화적 영향은 지속되어왔고 앞으로 해체될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은 재빨리 떨쳐내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될 점은 한국의 철학 · 사상 ·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처음에는 외세에 의해 강제 또는 암시되었더라도 나중에는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민족 구성원 자신들이 그러한 시각을 진실로 받아들여 생활상의 평상의식 속에 신념의 형태로 내면화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왔고 전수해갈 것이라는 사실 내지 우려이다. 민족사의 어떤 외인적 비극이든 그 극복의 과업은 민족 구성원 자신의 내인적 동력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에서 근대를 일으키고 현대로의 진입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이끌어온 것은 역사적 한국인들 자신이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일구어온 것 또한 일차적·원천적으로 한국인들 자신이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인류 공통의 지적 유산이라면 그보다 훨씬 강한 의미에서 원효 / 이황 / 정약용은 한국인의 지적 유산이며, 로빈 후드가 영국의 문학적 자산이라면 정도전과 임꺽정과 홍경래는 한국의 정치적 자산이다. 한국인은 일제강점 이후 새롭게 형성된 턱없는 겸손과 자기 비하의 잘못된 전통을 이제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3. 미래 문화 참여 요건으로서의 역사 탐구

과학·철학·문학·음악·미술·영화·연극 등의 영역에서 한국이 유럽과 미국을 모범으로 삼은 지 두 세대가 흘렀다. 이제 학문과 예술의 거의 모든 장르에서 서양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을 압도하고 있다. 학문·예술·종교의 고급문화뿐이 아니다.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서양적인 것이 양적 비중과 질적 평가에서 월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생활 문화의 측면에서 한국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퇴조한 상태에 있다.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서양화되어간다는 것은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물론 없다. 일반인의 일상적 삶을 놓고 볼 때 서양화는 노동의 절약과 여가의 신장, 향유의 증대와 행복 추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하거나 동반한다. 이는 곧 삶의 질이 향상되어감을 뜻한다. 이러한 선진화를 세계적 수준으로의 진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우리는 삶의 서양화를 곧 통속적 의미의 세계화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세계화는 그러나 단순히 삶의 수준의 선진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화란 무엇보다 먼저 삶의 내용이 세계적 연관 속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삶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그러나 삶의 내용이 세계적 연관 속에 놓인다는 것과는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서양적 생활문화에 대한 오늘날 한국인들의 선호選好는 일정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주체적 선택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외제품 선호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외국에의 선망羨望은 다분히 즉흥적이고 무반성적인 기분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선진국 상품은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정도를 근거로 하는 무비판적 사대주의가 신세대의 의식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서양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이 있다. 서양적 발상과 방법론에 입각한 학문이 지배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예컨대 데카르트나 버클리의 철학에서 무언가 허전함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주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적인 것을 선호하는 가운데서도 때로 특히 해외 체류 중에는 쌀밥과 김치와 된장이 그립다고 느끼는 것이다. 미국 문화 - 서양 문화가 한국인의 일상적 삶을 온전히 채워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 한국적·동양적 요소가 배어 있음을 뜻한다. 육체와 정신의 양 영역에서 서양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을 채운다는 것은 보다 고양된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데에 소중한 자산이 된다. 예컨대 지금껏 익힌 '서양 철학'에 담기지 않은 '동양 철학'의 특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일은 나아가 '인류 철학' 또는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은 '철학'을 일구어내는 작업

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

오늘의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오늘의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현실은 과거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며, 미래의 자산으로 누적된다. 오늘의 현실은 미래의 역사로서 미래 현실의 규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가 직접 느끼고 꼬집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경제·정치·문화의 각 수준에서 이어져온 역사적 동인들이 숨 쉬고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햇빛 아래 드러내고 씻어내고 치장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 살찌우는 작업에 우리는 나서야 한다.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에는 현실을 규정하는 소이연所以然의 힘이 담겨 있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특성이나 위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한국 현실과 한국인의 특성 속에 담겨 있는, 역사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요소들을 또렷하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현실과 역사 양쪽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문화적 세계화는 전통에 대한 이해 - 소화 - 비판을 거쳐서만 원활히 이루어진다. 보편 문화를 일구거나 그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것들과 외래적인 것들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양자를 종합 지양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21세기적 세계 문화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서 온당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 앞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온당한 재정립을 위해, 지난 세기 지배 문화 - 중심 문화로서의 구미 문화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우리 자신의 전통과 역사에 주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글쓴이 유초하

글쓴이 유초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사, 고려대학교에서 문학석사, 철학박사를 수료했다. 충북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했고 2014년 퇴직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한국사상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고문, 한국철학회 연구이사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사상사의 인식》공저 외 3권이 있다.

조선 시대《연행록》으로 살펴본 한 · 중 외교

서 인 범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연행사 · 《연행록》 · 연행길

연행사란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약 700년 동안 중국의 원나라 · 명나라 ·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던 사신을 말한다.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에 파견한 사신을 조천사朝天使라고 불렀지만, 청나라가 들어선 조선 후기부터는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燕京, 즉 현재의 북경에 가는 사신이라는 의미로 연행사라 불렀다. 이런 명칭의 차이에는 명나라만 중화中華의 왕조로 여겨 사대事大하는 반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를 갖출 수 없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이 남긴 기록에도《연행록》燕行錄이라는 명칭을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조선 시대에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을 일괄해 '연행사'라 부르고자 한다

조선 사신의 사행 기록인《연행록》은 현재 약 600여 종에 달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연행록》은 대부분 청나라 때의 작품이다. 명나라 때보다 청나라 때 쓰인《연행록》내용이 더 풍부하다. 사신들이《연행록》을 남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 뒤에 길을 떠날 후배 사신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연행사가 남겨 놓은 사행 기록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사행단의 조직과 구성에서 시작해 파견 목적과 임무, 사신의 의례와 외교, 정보 수집 같은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안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황성皇城인 자금성에 대한 견문을 비롯해 연행 노정에서 목격한 중국의 풍속, 신앙의 양태 등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명승지에 대한 사신의 감상, 역사 유적지, 음식, 풍속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연행사는 압록강에서 요양을 지나 광녕廣寧, 지금의 북진을 거쳐 산해관山海關을 통과해 북경으로 들어갔다. 조선 초에 정착된 이 경로는 약 200년 동안 유지됐으나, 광해군 11년인 1619년 후금의 누르하치가 요양을 점령하면서 단절되었다. 이후 사행은 인조 15년인 1637년까지 해로를 통해 북경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평안도 선사포에서 배를 타고 출항해 서해 북단 항로인 장산군도長山群島와 묘도군도廟島群島를 지나 산동山東반도에 상륙한 다음 육로를 거쳐 북경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연행사는 다시 육로를 이용했다. 노정의 변천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심양으로 올라간 후 '주류하周流河'라 불리던 거류하巨流河를 지나 광녕에 도착하였다. 광녕 이후로는 명나라 때의 길을 이용하였다.

명나라 때는 조선에서 연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다. 즉 황제의 탄생일

을 축하하는 성절사聖節使, 새해를 축하하는 정단사正旦使,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는 천추사千秋使를 파견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했다.

육로로 북경에 들어가는 인원은 정사·부사·서장관·군관·역관 등 30여 명에 말몰이꾼까지 합하면 대략 300~600명이었고, 해로의 경우는 배 3~6척에 선원 등을 합쳐 총 300~500명으로 편성되었다.

2. 요동도사를 통한 영토 분쟁 해결

명나라 때 압록강에서 산해관까지의 요동遼東 지역에는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설치되어 있었다. 요동도사는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을 관할하며 양국의 조정을 연결해주던 부서로 대단히 중요했다. 하지만 요동도사가 요동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요동도사의 관청이 설치되어 있던 요양遼陽으로부터 압록강까지는 조선인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 변장邊牆이 축조되자 여진족 방어가 용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명나라는 주민들을 요동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자연히 압록강 하구 연안의 조선 영토인 위화도·신도·어적도 등의 섬에도 중국인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이에 월경 문제 등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외교관들의 활동이 분주해졌다. 조선과 명나라 조정을 연결해주던 요동도사는 조선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사신들은 이곳에서 조선의 이익을 위해 진력을 다해 외교 활동을 펼쳤다.

연행사는 요동도사에 가기 위해 험준한 회녕령會寧嶺·청석령靑石嶺·석문령石門嶺을 넘어야 했고, 팔도하八渡河·탕하湯河 등의 큰 하천을 건너야 했다.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물은 넘쳐흘렀다.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어 사람과 말이 넘어져 죽는 사건이 빈번하였다. 사행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청나라가 들어서자 사행들은 요양에서 심양으로 올라간 뒤 주류하 등을 거쳐 광녕에 도착하였다.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後金을 세운 뒤, 1625년에 도성을 심양으로 천도하였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 즉 태종은 여진족을 만주족으로, 심양을 성경盛京으로 이름을 고쳤다. 1644년 순치제順治帝가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가 수도로 삼자 성경은 배도陪都로서 동북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637

년 정묘호란 당시 청나라의 구왕九王 도르곤多爾袞에게 잡혀 온 소현세자과 봉림대군, 그리고 조선 관료의 자제들이 생활했던 곳이 심양관瀋陽館이다.

요양을 지난 사신들은 영원성寧遠城, 지금의 흥성시에 도착했다. 이곳은 명나라 말 두 명의 영웅, 즉 원숭환袁崇煥과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가 격전을 벌인 곳이다. 성을 공격하다 처참하게 쓰러져가는 군사들을 보고는 분하고 놀란 누르하치가 피를 토한 구혈대嘔血臺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영원성에는 여인의 미모에 목숨을 버린 어느 탕자의 이야기도 깃들어 있다.

3. 야만의 땅에서 고귀한 문명의 품으로

산해관은 명나라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서달徐達이 축조한 성으로 북으로는 각산角山과 이어지고 남으로는 발해와 접한다. 야만과 문명의 경계 지점으로 불렸다. 산해관은 이민족의 침입은 물론 내지인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제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사행단은 산해관 동문인 웅장한 천하제일관을 지나 그 왼편에 자리 잡은 병부분사兵部分司라는 관청에서 병부주사兵部主事로부터 철저한 신분 조회를 당했다. 그 이후에야 북경으로 향할 수 있었다.

산해관 일대에는 만리장성이 바다로 들어간 노룡두老龍頭, 해신을 모신 천비묘天妃廟 사당, 몽골과 여진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파른 산 위에 쌓은 각산장성, 냇가에 삼엄한 방비 태세를 구축한 구문구장성九門口長城이 설치되어 있다. 절조를 지키려던 맹강녀孟姜女와 그녀의 미모에 반한 진시황의 고사도 전해지고 있다.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이르는 길은 지리적 특성상 모래가 많이 흩날린다. 조선 성종 연간에 최부崔溥도 이 지역의 지명에 모래 '사沙' 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서술하였는데 사하진沙河鎭이 좋은 예이다. 그의 말대로 사하진 일대는 지금도 모래 먼지가 심하게 일어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다.

행정구역상 당산시唐山市 풍윤구豊潤區 관할 하의 고려포高麗鋪는 조선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돼지고기를 넣은 빵인 육병肉餠과 우리나라의 냉면과 비슷한 조선면을 파는 식당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국시대 연나라 소왕昭王의 무덤이 있는 무종산無終山 부근의 옥전현玉田縣에서는 인조 연간부터 활약한 통사 한원韓瑗과 관부館夫로 고용된 가난한 한 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북경 서남부에 위치한 통주시通州市에는 총 길이 1900킬로미터에 달하는 조운로漕運路가 있다. 이곳은 강남의 항주杭州로 향하는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조선 사신들은 중국에서 본 멋진 광경의 하나로 이곳의 돛단배를 꼽았다. 사행단은 통주성 서문을 나와 팔리교八里橋를 건너 북경으로 들어갔다. 사신들은 자금성으로 들어가기 직전 사행길의 최종 종착점인 동악묘東嶽廟에서 평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사행은 누런 보자기로 싼 황제에게 바치는 표문表文과 예부에 바치는 자문咨文을 받들고 걸어서 황성의 동문인 조양문朝陽門으로 향했다.

4. 황제를 알현하고 외교에 전력하다

왕명의 완수 여부는 전적으로 통사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신이 대동했던 통사 중에는 평범한 자도, 나이가 어린 자도 있었다. 경험이 미진한 통사를 수반한 경우 일 처리가 능숙하지 못해 사신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그 때문에 한양에서 출발하기 전 유능한 통사를 선발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했다.

회동관에 도착한 다음 날 사신은 통사를 홍려시에 보내 사행단의 인원과 마필의 수, 세폐와 방물의 수량이 담긴 단자單子를 바치도록 했다. 홍려시 주부主簿 및 회동관 부사가 사행단에게 관복을 차려입게 하고는 조회 보는 날의 예의禮儀를 가르쳤다. 어긋나거나 잘하지 못하면 서너 차례라도 더 연습한 뒤에야 마칠 수 있었다.

사행은 황제를 알현하는 새벽 1~3시에 자금성으로 들어갔다. 황제가 다니는 길인 어로御路에 이르러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알현이 끝나면 사신은 예부禮部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서尙書에게 임금의 자문을 바치고, 통사로 하여금 예부 소속의 부서를 찾아가 의례의 절차와 일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때 조선에서 가져온 특산물인 방물方物과 공마貢馬를 예부에 바치고 검열을 받았다. 회동관에서 사행을 축하하는 하마연下馬宴을 마치면 왕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여러 관청을 찾아다녔다.

사신과 통사의 외교 활동은 처절하였다. 한 예로 조선 시대 최대 현안인 종계변무宗系辨誣를 들 수 있다. 종계변무란 명나라의《태조실록》과《대명회전》에 태조 이성계의 가계를 고려 말의 권신 이인임의 후손이라 기록하여 조선이 이를 문제 삼아 수정을 요청한 사건이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태조의 세계世系 문제는 왕통의 합법성과 왕권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을 요구했지만 명나라 관료들은 태조 주원장의 조훈祖訓이라며 선뜻 수락하지 않았다. 조선은 수십 차례에 걸쳐 사행을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선조 17년1584년 주청사 황정욱黃廷彧 등이 세계가 시정된《만력대명회전》판본을 가지고 돌아온다. 조선 최대 현안인 종계변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사신들은 왕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부 등 부서와의 공식적인 접촉은 물론 일찍이 선배 외교관들이 중국 측과 쌓아놓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주로 조선에 사신으로 들어왔던 관료들을 찾아갔다.

흥미로운 점은 명나라 때는 조선 출신 환관들이 고위직에 있었는데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회피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대신들은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이들에게 외교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은 의리에 맞지 않고, 사신이 할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치부해버렸다.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얻지 못한 것이다.

사행의 언사와 행동거지는 대단히 중요해 한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예행연습을 할 정도였다. 특히 조선 내부의 사정을 누설하면 절대로 안 되었다. 잘못된 언행으로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했다는 죄명으로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자마자 붙잡혀 국문을 당하는 사신도 있었다.

사신이 중국에서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점의 하나는 중국 관료와 서리들의 끊임없는 인정물품人情物品, 즉 뇌물 요구였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었다. 죄악시되는 행동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였다. 하지만 조선 사신에게 있어서는 골칫거리였다. 중국인들은 일을 주선하기 전에는 일의 성사를 위하여 미리 쓰는 돈인 용전容錢을, 일이 완성된 후에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때 쓰는 돈인 희전喜錢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감내해가며 왕명을 완수하던 사신들의 모습은《연행록》이나《조선왕조실록》에서 절절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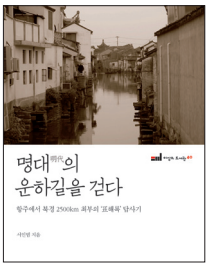
회동관에 체류하던 사신은 고관의 자제와 지방 학교에서 추천한 인재가 과거시험 공부를 하던 곳인 국자감과 공자의 사당인 공묘를 찾았다. 조선 유자儒者와 만세의 사표師表인 공자와의 대면이었다.

5. 청나라 황제의 머리를 식혀준 도시, 열하

박지원의《열하일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승덕承德은 북경에서 동북 방향으로 25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도중에는 동쪽으로 사마대장성, 서쪽으로 고북구장성과 연결되는 금산령장성이 산과 산을 잇고 있다. 나는 새조차도 넘기 힘들었을 법한 장성이다.

승덕에는 소주蘇州의 졸정원拙政園·유원留園, 북경의 이화원頤和園과 더불어 중국의 4대 명원 중 한 곳인 피서산장이 있다. 북경의 원명원圓明園-이화원과 더불어 청나라 황제의 이궁으로 불리던 이곳은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하천이 있다고 하여 열하행궁熱河行宮으로도 불렸다. 강희제·건륭제 등은 매년 음력 5월부터 9월까지 북경의 더위를 피해 이곳에 머무르면서 몽골이나 티베트의 왕공을 알현하였다.

현재는 〈강희대전〉이라는 연극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피서 산장을 조성한 강희제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으로, 시내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원보산元寶山 기슭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다. 36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인 무대에 무려 16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강희제는 중국에 들어온 벨기에 출신 선교사 페르비스트와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다. 나는 인간 세상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외친다.



서인범,《명대의 운하길을 걷다》, 한길사



서인범,《연행사의 길을 가다》, 한길사

글쓴이 서인범

글쓴이 서인범은 동국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도호쿠대학교 문학부 동양사학과에서 〈명대병제사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에서 동양근세사를 가르치면서 명·청시대의 중요한 기록인《연행록》을 번역하고 있다. 2004년 최부의《표해록》을 2400여 개의 역주를 달아 한길사에서 출판했다. 그 후 명대의 조운로와《표해록》의 길이 중첩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고 최부가 밟았던 여정을 따라 항주에서 북경까지 길을 떠났다. 이 여정을 글로 엮어 2012년 한길사에서《명대의 운하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EBS 세계테마기행〉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후 최부의 나머지 여정인 북경에서 압록강까지의 길이 조선시대 사행길과 겹친다는 것에 착안해 2013년 답사를 떠났다. 총 길이 2000킬로미터를 22박 23일의 일정으로 도보, 고철덩어리 버스, 택시, 기차 등을 이용해 총 경비 1200만 원을 들여 답사했다. 이 답사는《연행사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근대 한국의 성과 사랑

전 봉 관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이 강의는《경성고민상담소 : 독자 상담으로 본 근대의 성과 사랑》민음사, 2014 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타인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 이러한 고민과 사생활 역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고,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이러한 고민과 사생활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사생활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인간에 대한 이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없이 공허하다. 그것은 마치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사생활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사私'생활이다.

여기에 인문학의 딜레마가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학문인 인문학은 인간의 공적 생활과 사생활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공적 생활과 달리 비밀이 보호되는 사생활은 연구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말하자면 인문학은 사생활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접근할 경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사생활에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자로서 강연자가 찾은 자료는 신문 독자문답란이었다. 〈조선일보〉 독자문답란 '어찌하리까'와 〈조선중앙일보〉 독자문답란 '명암의 십자로'에 소개된 사연과 답변을 바탕으로 강연자는 1930년대 한국인이 사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고민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 신문 독자문답 코너들은 독자가 자신의 고민을 편지에 적어 신문사에 보내면 기자나 사회 저명인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이 상담해주는 형식이었다.

1930년대 독자문답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연은 조혼이 야기한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 고민이었다. 실제 사연 하나를 살펴보자.

문 : 남편과 시가에서 버림받은 방랑녀
이대로 떠다닐까요, 개가를 할까요
저는 31세 된 여자입니다. 15세 때 부모의 주선으로 다섯 살 연하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부모가 없어서 외조모님 슬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년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딸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외조모는 제가 열 살과 여섯 살 되는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학대하는 까닭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오직 남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롄에 가 있다고 합니다. 시외조모는 자식이 없는 분으로 저의 남편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시외조모는 저보고 다른 곳으로 개가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남편의 양모인 시외조모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저는 어찌하리까? 남편은 회개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개가를 할까요? 이 모양으로 일생을 지낼까요? 쫓겨서 남의 집에서 살아 볼까요? 이 일을 어찌하리까? 재령 답답생

답 : 남자에게 의존하지 마시오
도덕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소
당신이 당신의 남편과 시외조모에게 당신이 할 의무를 다하였는데 당신을 의지할 곳이 없이 내던져두고 다른 곳으로 개가를 하라고까지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한 일은 결코 당신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대 조선 여자가 흔히 남성에게서 받는 학대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남편과 고약한 시부모는 하루바삐 바른 길로 회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론을 말해야 무엇합니까? 당신이 당분간 지금 현 상태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참고 있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되겠지만 그런 가망이 없다면 적당한 곳이 있으면 개가해도 무방할 줄 압니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반드시 행복이 오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두 아들의 앞길을 위하야 노력하시는 것도 당신에게는 장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남자라는 것에 의뢰하지 않고 산다는 점에서는 고상한 생활일는지 모릅니다. 여하간 당신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개가하는 것이 반드시 도덕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리까?' 1933. 10. 10.

'재령 답답생'은 결혼 16년 차 주부이지만, 사연을 보낼 당시 연령은 고작 서른하나에 불과했다. 16년 동안이나 부부의 연을 이어온 그녀의 남편은 한술 더 떠 그녀보다 다섯 살 적은 스물여섯이었다. 남편의 경우 열 살에 혼인해 큰아들은 열여섯, 둘째아들

은 스물에 본 셈이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1.9세, 여성 29.1세에 달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각에서 '재령 답답생' 부부는 경이로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혼인한 부부다. 그러나 조혼早婚이 성행한 1920~30년대 한국 가정에서 이렇듯 조숙한 부부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192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조선 내에서 10세부터 16세까지 유배우자有配偶者 수가 424,936명이며, 5세에서 9세까지가 970명, 그 밖에도 3세 6명, 2세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재령 답답생'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17세 미만 유배우자 숫자가 전인구의 2%를 상회했고, 제2차 성징이 채 나타나지도 않은 영유아의 혼인조차 드물지 않았다. 15세 여성과 10세 남성이 혼인한 '재령 답답생' 부부는 적어도 결혼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가정'일 수는 없었다.

'재령 답답생'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아내의 외도는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간통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었지만, '재령 답답생'의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시집에서 눈칫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살아볼 만하건만 남성중심주의에 젖은 시외조모는 가련한 며느리를 위로하고 달래기는커녕 당당하게 손자와 이혼을 요구하며 학대를 거듭한다. 16년 동안의 불우한 결혼 생활에 대해 '재령 답답생'이 시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재령 답답생'이 처한 상황은 조혼이 만연하고, 남성중심주의가 견고하게 뿌리내린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잉태된 일종의 사회 문제였다. 그러한 구조적 모순은 어느 개인의 신념과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답변을 맡은 기자가 "무책임한 남편과 고약한 시부모는 하루바삐 바른 길로 회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그러나 이런 이상론을 말해야 무엇합니까?" 하며 서둘러 말꼬리를 돌린 것도, 기자라고 남편과 시외조모를 회개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혼은 '제2부인' 혹은 '신여성 첩'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문 : 몇 해를 기다려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신 여성의 탄원

저는 금년 19세이고 이름은 정자입니다. 작년 4월에 우연히 모 전문학교 2학년

학생과 서로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습니다. 만일을 두려워하여 민적등본까지 교환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미혼자였습니다. 저는 조금도 불안하다는 생각 없이 상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후 9월에 그와 같이 고향에 가보니 뜻밖에 본처와 일곱 살 먹은 여자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된 사람은 그제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본처는 구여성일뿐더러 뜻이 맞지 않아 몇 해 안에 이혼해 보낼 것이니 고생이 되고 타인들의 조소를 받더라도 참아 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몇 해 안에는 해결이 되겠지 하고 울분과 고통을 참아 넘기며 그럭저럭 오늘날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달에 뜻밖에 본처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울어도 시원치 않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맘에 없다는 아내에게서 자식까지 낳았으면서도 참아 달랍니다. 저는 그런 꼴을 보기 싫어 만사를 단념하고 상경하였더니 남편 된 사람이 쫓아 올라와서 한 3년만 있으면 해결될 테니 그동안은 동경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헤매는 여성입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고, 본처가 자식을 자꾸 낳으면 저의 신세는 어찌될까요? 울고 있는 여성

답 : 남편 말대로 공부하오

남편의 말대로 기다림이 좋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본처와 관계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 남자의 의지가 박약한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지금 그 경우에서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데 있는 것이니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일 처리에는 아무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남자의 말대로 동경에 유학하여 공부에 힘쓰시고 좋은 독서를 하면서 3년간은 애써 그 남자와의 머리 아픈 문제를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 약속한 3년 후에 그의 행동을 보아가면서 당신의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R 기자

-'어찌하리까' 1933. 9. 20.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 본처는 물론 일곱 살 난 딸까지 있더라. '울고 있는 여성', 열아홉 살 신여성 정자의 사연은 이렇게 정리된다. 조혼이 성행하던 시절이다 보니 '울고 있는 여성'과 같이 기혼 남성에게 속아서 결혼하는 여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명백한 사기 결혼이지만, '울고 있는 여성'은 기혼 남성의 파렴치한 중혼重婚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음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다지 크게 질타하지 않는다. 더욱이 답변을 맡은 'R 기자'가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라 위로한 것은 남편에게 숨겨놓은 처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본처와 관계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었다. 한 남성이 두 아내와 동시에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세상에 흔히 있는 일로 치부될 정도였으니, 남편에게 숨겨놓은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적어도 제삼자의 시각에서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두 여성과 동거한다는 것은 축첩蓄妾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되던 전근대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조선 시대 여성 윤리의 근간이었던 칠거지악七去之惡에는 설령 남편이 첩을 들이더라도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는 '투기妬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여성'은 '남편'의 본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첩임에 분명하지만, 전근대 사회의 첩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첩妾'은 '처妻'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축첩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조선 시대도 혼인 제도의 기본 원칙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일부일처제란 남자가 한 여자와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 부인, 아내 등으로 부를 수 있는 여성은 단 한 명만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취하는 중혼重婚, 정처正妻를 두고 첩을 정처로 삼는 병축竝畜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일부일처제였다.

가정에서 첩은 처와 비교할 수 없이 미천한 존재였다. 설령 이혼이나 사망으로 처의 자리가 빈다 하더라도, 한 번 첩으로 집안에 들어온 여성은 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으며 성장한 여성이 첩살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첩의 지위에 있는 그녀가 구여성 본처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지식과 능력 면에서 우월했다. 이처럼 조혼한 남성과의 중혼으로 뜻하지 않게 첩이 된 신여성을 전통 사회의 첩과 구분하기 위해 '제2부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가정에서의 법적 지위는 구여성 본처가 높지만, 교육 정도와 사회적

지위는 첩의 위치에 있는 신여성이 높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 등장한 제2부인은 전통 사회의 첩과는 성격이 달랐다.

1930년대 신문 독자문답란에 흔히 등장하는 사연은 이런 것이었다. 기혼 남성이 처녀와 연애하고, 처녀가 애인에게 처자식이 있는 줄 알면서 동거에 들어간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성폭력 피해여성을 정조를 잃은 여성 취급한다. 기혼 여성이 애인과 성관계를 맺고, 아기를 임신한 여성이 아기의 아빠가 아닌 남성과 결혼한다. 남성이 애인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애인이 요구를 들어주면 애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선다. 두 남자와 동시에 교제하다가 임신한 여성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여성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 부잣집 아들과 온천으로 여행을 떠난다. 지금 20대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의 20대가 그러했다.

한국인들은 과거가 현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었고, 근대 이후 윤리는 타락을 거듭해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가족 윤리와 성윤리 역시 마찬가지다. 예의범절을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 시대에는 아름다운 가정 윤리와 성윤리를 확립하고 있었지만, 자본과 물질이 지배하는 근대 이후 숭고하고 고귀했던 과거의 윤리는 타락하고 훼손되었다고 믿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

이러한 믿음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선 시대 자식들이 부모를 더 공경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조선 시대 여성들이 성적으로 더 절제된 생활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윤리적 이상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의 가족 윤리와 성윤리가 현재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했다고 할 수 있을까?

장유유서, 남존여비의 원칙이 요구되었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행복했을 리 없다. 축첩마저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사회가 지금보다 성윤리가 절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조선 시대는 유교 윤리 자체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엄격히 강조되었을 뿐, 그 윤리적 규범이 지금보다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가까운 윤리를 확립한 시기는 조선 시대가 아니라 21세기 현재이다.

과거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더 윤리적이었을 것이라는 명백히 잘못된 믿음은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신화와 젊은 시절에 대한 기성세대의 망각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동방예의지국은 오랜 기간 중국의 변방으로 살아온 한국인에게 문화적 자존심과도 같은 관념이었다.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은 한국인 스스로가 만든 관념이지, 중국인들이 한반도의 국가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설령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예의를 아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한국인들이 예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성적 방종의 측면에서 80년 전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이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 강연자의 세대인 40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성숙한 성 윤리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성 윤리에 있어서 과거가 현재보다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과 자기 세대의 과거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다.

성과 사랑 그리고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면서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고민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 강의에서는 80여 년 전 과거 세대의 고민을 다루었지만, 고민의 성격과 깊이가 조금 바뀌었을 뿐 현대인들도 비슷한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 강의가 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데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있고,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 미래 세대의 소통에 아주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 독자 상담으로 본 근대의 성과 사랑》, 민음사

글쓴이 전봉관

글쓴이 전봉관은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KAIST 인문사회과학과 및 문화기술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근대 문학을 공부하다가 그 시대 문화의 발랄함과 역동성에 매료되어 박사학위 취득 후 본격적으로 근대 문화 연구에 뛰어들었다. 지은 책으로 1930년대 한국의 골드러시를 다룬 《황금광시대》, 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을 다룬 《경성기담》, 근대 조선을 들썩인 투기 열풍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룬 《럭키경성》, 근대 조선을 울린 충격적 자살 사건을 다룬 《경성자살클럽》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전봉관, 《경성고민상담소 : 독자 상담으로 본 근대의 성과 사랑》, 민음사

상상력과 스토리의 원천 동양 신화 -중국 신화를 중심으로

정 재 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신화 – 상상력, 이미지, 스토리의 원천

근대 이후 '역사란 무엇인가'가 중심된 화두였다면 탈근대를 말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신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신화 관련 서적의 출판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형 서점에서는 아예 이를 위한 코너까지 따로 마련했을 정도이다. 이는 지나치게 기술화, 합리화되어 메마른 우리의 심성에 신화가 따뜻한 생명력과 활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신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상고 인류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담은 신성한 이야기라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신화는 당시 인류에게 있어서는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보다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요, 생활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화는 아득한 시절 인류 공통의 경험의 표현이므로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편성 및 원형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의 원초적인 욕망과 사유의 산물인 신화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상상력은 순간적인 두뇌 회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고전에 대한 소양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 중 가장 오래 된 고전이 신화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상상력의 뿌리가 신화인 것이다. 상상력은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를 신봉했던 근대에 이르러 애매하고 불안정한 생각으로 폄하되거나 심지어는 불온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상상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의 특징이 긍정되고 '상상하는 힘', 곧 상상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간주되면서 종래 백일몽으로 여겨졌던 상상력은 재평가된 지 오래이다.

이미지는 인간 존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의 형상을 좇아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신화적 언술에서 이미 인간은 이미지 그 자체임을 알게 된다. 신화에는 인류가 뇌리에 떠올린 가장 오래된 이미지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도 근대에 들어와 폄하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지는 실체를 호도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그것이 현실에 미치는 엄청난 힘과 생산적 효과를 간과 혹은 외면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 매체의 미증유의 변혁은 싫든 좋든 인간 존재의 이미지로서의 본질을 예증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스토리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다. 스토리의 기능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대 국가가 스토리 곧 서사에 의해 정체성을 확

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가설이다. 이러한 스토리의 원조가 신화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가장 오래된 스토리인 신화는 오늘날의 스토리가 갖는 모든 작용을 예시한다. 스토리 역시 한때 비논리성, 사실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진지한 담론의 영역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이야기하기' 곧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주목하는 바가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상력, 이미지, 스토리 이 세 가지는 당대 문화에서 크게 대두하고 있는 인문학적 아이템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의 가장 오래된 원형은 신화에 있다. 신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오늘날 가장 풍미하고 있는 인문학적 아이템들의 본질, 작용, 기능 등을 파악함으로써 현실 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기존의 인문학에 대해 창신創新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 동양 신화의 개념 및 범위

세계 각 민족은 각기 고유의 신화를 갖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나 중국은 단일한 민족 구성체가 아니므로 이때의 중국은 민족 개념이 아닌 국가, 지역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우리가 중국 신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한국 신화나 일본 신화처럼 단일한 민족 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신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대륙에는 오늘날 중심 민족인 한족漢族을 비롯 만족, 몽고족, 위구르족, 회족, 장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신화란 한족을 비롯해 소수민족 전체의 신화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서 말한다면 중국 총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사이에서 구전되어오거나 문헌상으로 전해져 오는 신화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족 신화일지라도 고대부터 다양한 주변 민족의 신화를 흡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일민족 신화의 개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상고시대의 중국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족 중심의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 문명이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형태였다. 근래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중국 문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황하黃河 유역에서 기원하여 그 문명이 변방으로 파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요녕遼寧이나 장강長江 유역 등 변방의 여러 지역에서도 일찍부터 발달한 문명이 있어서 다원적으로 여러 지역 문명이 결합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상고 문명

을 반영하는 중국 신화는 다양한 지역 및 주변 민족 신화의 총체이자 동아시아 문화의 원천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동양 신화의 구분 및 종류

중국 신화는 크게 지역 및 거주 종족 그리고 신화 내용에 따른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구분해 볼 수 있다.

1) 지역 및 거주 종족에 따른 분류

① 동방 동이계東夷系 신화

황하 하류 및 산동반도, 요동반도 등 발해만 일대와 동부 해안지대에 거주하던 동이계 종족 계통의 동부 해안지대에 거주하던 동이계 종족 계통의 신화이다. 북방 신화도 이에 포괄된다. 제준帝俊, 예羿 신화 등이 대표이다.

② 서방 화하계華夏系 신화

황하 중상류 지역으로 후대의 이른바 중원 지역. 이곳에 거주했던 한족의 선조인 화하계 종족 계통의 신화이다. 황제黃帝 신화가 대표이다.

③ 남방 묘만계苗蠻系 신화

장강 이남에 거주했던 묘만계 종족 계통의 신화이다. 염제炎帝, 치우蚩尤, 축융祝融 신화 등이 대표이다이들을 동이계 신화로 보는 견해도 있음.

동방 동이계 신화가 내용적으로 가장 풍부하며 남방 묘만계 신화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넓게는 중국 신화를 동이계 신화와 화하계 신화의 대립 구조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2) 신화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창세 신화

우주, 인류, 문화의 발생 및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반고盤古 신화, 복희伏犧·여와女媧 신화 등이 대표.

② 영웅 신화

반신반인적, 초인적 존재의 모험, 탐색, 건국의 과정을 다룬 신화이다. 신화, 황제黃帝

신화, 대우大禹 신화 등이 대표.

③ 자연 신화

태양, 달, 비, 바람, 조수, 초목 등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외경을 표현한 신화이다. 희화羲和 신화, 항아姮娥 신화, 하백河伯 신화 등이 대표.

이 외에도 이들 세 가지 범주에 포괄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생략한다.

4. 동양 신화 관련 자료

고전 문헌에 많이 흩어져서 전해 내려오지만 중요한 것들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산해경山海經

중국의 대표적 신화 지리서. 기원전 3~4세기 경 무당 계층에 의해 형성되었다. 중국과 변방 지역의 신들과 이방인, 괴상한 사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2) 초사楚辭

남방 초국楚國 의 시가. 기원전 4세기 경 주로 굴원屈原 에 의해 지어졌다. 신화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3) 회남자淮南子

기원전 2세기, 전한前漢 의 유안劉安이 지은 도가 계통의 책으로 신화 자료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

5. 동양 신화의 의의와 가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사유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젖어 있었다. 신화도 그리스 로마가 표준이고 익숙하고 동양 신화는 오히려 잘 모르는 형편이다. 우리는 서구 문화 반대편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동양 문화의 중요한 원천인 중국 신화를 잘 알아야 세계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중국 신화의 다양한 지역적, 종족적 특성을 통하여 중국 문명의 기원이 결코 한족 중심의 일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주변 문화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보다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중국 및 동아시아 문명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교와 같은 지배적 사조에 치중하여 왔는데 중국 신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 및 동아시아의 민속, 종교, 문화, 예술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상상력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및 동아시아의 기층 문화의 원천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신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지나친 합리주의와 과학만능주의에 기울어진 메마른 감성의 회복, 풍부한 상상력 등 신화의 힘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성을 도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화가 갖는 보편성을 통해 인류에 대한 평등 의식과 애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재서, 《이야기 동양 신화》,
김영사

글쓴이 정재서

글쓴이 정재서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하버드옌칭연구소와 일본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에서 연구 생활을 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불사의 신화와 사상》, 《동양적인 것의 슬픔》,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등이 있다. 1994년에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2008년에 비교문화상과 우호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정재서, 《이야기 동양 신화》, 김영사
정재서 역주, 《산해경》, 민음사

유일신론의 종말, 이제는 범재신론이다

이 찬 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신이 하나'라는 말

유일신 종교 전통에서 말하는 '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 중의 하나' 혹은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처럼 수량적으로 이해하곤 한다. 신이 우주의 근원이고 창조자라면서도, 그 창조자를 광활한 우주의 어느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비슷한 존재처럼 생각하거나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특정 인간에게 전파 같은 계시를 내려 보내는 신령 같은 존재로 축소시킨다. 그러면서 그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며 배타적 자세를 견지하기도 한다. 종교로 인한 갈등도 여기서 비롯될 때가 많다. 이것은 '신이 하나'라는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 때문이다.

> **'신이 하나'라고 할 때의 '하나'는 사실상 '전체'를 의미한다. 신이 하나라는 말은 신이 모든 곳에 있다는 말과 같다.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것의 근원이고 과정이고 목적으로 여겨지기에 '하나'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것이다 :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 - 로마서 11:36

비유하자면 신은 자연법칙과 유사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자연법칙 안에서 움직인다. 자연법칙을 관찰하는 눈도 자연법칙에 따르듯이, 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신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은 단순한 대상이기보다는 자신을 포함해 만물의 근원적인 주체에 붙여진 이름이다.

2. 컴퍼스의 원리

중세 기하학자들은 '전체로서의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컴퍼스의 원리를 비유로 사용하곤 했다. 컴퍼스는 우주의 창조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이다. 컴퍼스의 뾰족한 침은 신의 눈과 같다. 그리고 컴퍼스의 팔은 신의 창조력과 같다. 신의 눈과 같은 그 침이 스스로를 확장하면서 세상이라는 원이 창조되었다. 그 의미는 단순하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한 듯해도, 세상이 아무리 제 잘난 듯 움직여도, 모두 신의 창조력 안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상상할 때 그 상상된 세계가 컴퍼스의 팔로 그

려진 원과 같다면, 상상의 주체는 컴퍼스의 침과 같다. 내가 하는 각종 상상들이 전부 내 안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듯, 컴퍼스의 중심과 팔은 신이 자신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삼라만상은 원으로 상징되는 전체 안에 있다. 그 전체 안에 있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원은 완전과 전체를 의미하면서, 사물 하나하나를 가능하게 해준 장소이자 원천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사도행전 17:28 고 하듯이, 신이 하나라고 할 때의 그 신은 만물이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자 그 만물을 감싸 안는 원과 같다.

그리스 수학자들은 컴퍼스의 침과 그 침의 자기 확장인 원이라는 전체를 숫자 '하나' 그리스어 모나드 로 나타냈다. 원이 모든 모양의 원형이듯이, 1은 모든 수의 부모이다. 가령 3×1=3, 5×1=5처럼, 어떤 숫자든 거기에 1을 곱하면 그대로 그 수 자신이 된다. 어떤 수를 1로 나눌 때도 똑같다. 1은 함께하는 모든 것의 속성을 그대로 보존시킨다. 1은 모든 것을 떠받치면서 조용히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살려준다. 비유하자면 1은 온갖 소리에 대해 침묵이며, 형상에 대해 무형이며, 현상에 대해 근원이다. 그 근원의 외화外化 가 '원'인 것이다.

3. 'ᄒᆞᆫ'과 지대무외至大無外

한국 기독교인은 신을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표기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우리말 어원은 'ᄒᆞᆫ'이다. 'ᄒᆞᆫ'은 하나, 하늘, 크다, 빛, 무규정성 등을 의미한다. 'ㅎㅡㄴ'은 하나이자 전체를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ᄒᆞᆫ'을 그리스 기하학자들은 '점'과 '원'으로 표현했고, 숫자로는 하나, 즉 '모나드'로 표현했다.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며 여전히 논쟁하는 이들이 있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모두 'ᄒᆞᆫ'에 어원을 둔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고전인《장자》雜篇 에 "지극히 큰 것은 밖이 없으니 그것을 '큰 하나'라고 한다至大無外 謂之大一. 지극히 작은 것은 안이 없으니 그것을 '작은 하나'라고 한다至小無內 謂之小一"는 말이 있다. 여기서 '지극히 큰 것은 밖이 없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하나'의 의미를 잘 말해준다. 만일 어떤 것에 밖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에 감싸여 있다는 뜻이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뜻이다. 밖이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은 전체

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다.

4. 범재신론

이러한 '하나'의 의미를 잘 살린 신론을 '범재신론汎在神論, **panentheism**'이라 한다. 의미인즉, '모든 것**pan**은 신**theos** 안에 있다**en**는 주장**ism**'이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All-in-God-ism'이라 할 수 있다.

범재신론에서 만물과 신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all범=만물 ≤God신"이 된다. all=God이 만물에 대한 신의 내재성을 의미한다면, all〈God은 만물에 대한 신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신은 만물에 내재하면서 넘어선다. 내재성과 초월성을 한데 묶어 간단하게 표현하면, all≤God이 된다. 범재신론으로 보면, 신이 없는 곳이 없다. 이른바 '무소부재無所不在'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신은 알라, 불성佛性, 브라흐만이라 해도 상관없는 광활한 세계이다. 천天, 리理, 도道 등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보편의 세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이 없는 곳이 없다. 신이 없다는 주장마저 가능하게 해주는 세계가 범재신론적 신이다.

5. 다신론과 범재신론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신론多神論, **polytheism**도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한 양식이 된다. '신'이 사실상 전체를 의미한다면, 그 전체는 여럿多을 포함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범재신론의 '신'과 다신론의 '다'는 모순이 아니다. 다신론의 '다'는 범재신론에서의 '범'의 범주에 있으며, 그 '범'의 조화가 '신'의 내용이 된다. 다신론도 우주적 전체성을 설명하는 한 양식이다. 우주적 전체성을 담아내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하는 여러 신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 다신론에서는 한 신을 섬긴다며 다른 신을 버리지 않는다. 개별 신들은 전체의 일부이기에 다른 일부를 버리면 전체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신 제우스는 아내이자 가정의 신인 헤라의 견제를 받는다. 아폴론은 태양을 주관하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하데스는 죽음을 관장한다. 갈등과 긴장, 아름다움과 죽음, 태양과 달을 무시하고서 세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의 긴장과 역동은 다양한 신들의 역할과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설명된다.

인도에서도 브라흐마가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준다면, 시바는 파괴와 죽음의 원리를

나타내준다. 이들 모두 세상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다름 혹은 다양성을 거부하고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신론은 이런 견해 위에 서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유일신 사상에 근거해 다신론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신론과 유일신론은 사실상 신 혹은 세계에 대한 설명 양식의 차이일 뿐이다. 신의 역할과 범주상의 차이가 있고, 설명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전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다신론의 난점이라면 여러 신들의 관계와 그 여러 신들의 상위적 질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신론 체계에서 '다'多를 통일하는 근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통일성을 개개 신들의 총합만으로 온전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신들의 유기적 관계까지 말해야 하고, 그 신들을 신들 되게 해주는 근원까지 설명해야 한다. 그럴 때 신들의 존재 의의도 밝혀진다.

6. 범신론, 무신론, 그리고 범재신론

범재신론은 범신론泛神論, **pantheism**도 포함하면서 넘어선다. 범신론은 단순하게 풀면 '모든 것**pan**이 신**theos**이라는 견해'이다. 여기서는 신이 모든 것에 철저히 내재하기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신과 동일시된다. 스피노자**Baruch Spinoza**의 주장을 빌려 표현하면, 신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존재 속에 현존하는 존재 질서의 법칙"이다. 이 신은 모든 존재에 대해 초월적이기보다는 전적으로 내재적이다.

하지만 범신론 관련 논의에서 '범'**all**과 '신'**God**의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모든 것'이 '신'일 수 있는가. "신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말로 신의 내재성은 해명되지만, 과연 내재성만으로 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떼이야르 드 샤르뎅은 범신론이 개체들의 거리를 줄여 합일에 이르도록 하는 우주적 차원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본다. 신은 개체의 중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안에 있으면서 개체를 추동해 전체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개체 안에 있으면서 개체를 넘어서는 신의 초월성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지니고서, 개체들의 근원이면서 언제나 개체를 넘어서는 전체로서의 측면도 동시에 살려내려는 것이 범재신론이다. 범재신론에서 신은 모든 개체들 안에 있으면서 개체들을 총합한 그 '이상'이다. 'all = God' 혹은 'all 〈 God'이라기보다는 'all ≤ God'인 것이다.

범재신론은 무신론 atheism 도 포괄하고 넘어선다. 만일 무신론이 신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상대적 '없음'의 차원에 머문다면, 범재신론에서의 '신'은 그 상대적 '없음'마저 안으로부터 뒷받침해주는 근원이자 전체이다. 폴 틸리히가 "소외와 절망의 상태도 영원한 신적 창조력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듯이, 범재신론의 신은 상대적 '없음'도 포섭하며 넘어서는 전체이다. 모든 의미를 지탱해주는 근원이다. 이렇게 범재신론에서는 무신론을 넘고 포괄하면서 신의 절대성과 보편성도 확보한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오복음 5:45 는 예수의 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타 혹은 선/악 이분법을 벗어나 다양성을 살리도록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선과 악, 의와 불의 모두 신의 비춤 속에 있을 때 선과 악이 되고 의와 불의가 된다.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상대적 혹은 대립적 차원에 있다면, 예수의 '아버지'는 그 상대성과 대립성을 넘어선다.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고 할 때의 그 신이 상대성과 대립성을 내포하면서도 초월하듯이, 예수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수의 메시지 속에 담긴 신론은 범재신론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적용 사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범재신론은 오해된 유일신론, 즉 신을 인간의 본성 nature 밖 또는 높은 곳 super 에 두는 초자연적 유신론 supernatural theism 의 한계를 극복한다. '하나 mono 의 신 theos '이라는 말의 '하나'를 수량적 하나가 아니라 전체이자 근원으로 해석하게 해줌으로써, 유일신론을 사실상 '택일신론' 擇一神論, henotheism 수준으로 남겨두는 상당수 기독교인들의 오해도 극복하게 해준다. 범재신론이 수량적 차원에서 오해되고 있는 유일신론의 진정한 의미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범재신론은 '일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때 도달하게 되는 종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유일신론에서 범재신론으로

이른바 유일신론 monotheism 은 제대로만 해석한다면 범재신론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유일신론과 범재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는 사실상 '전체'이자 '근원'을 나타내주기 위한 수학적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해가 대중적으로 통용되기에는 그동안 유일신론에 대한 오해의 폭이 비할 수 없이 커서, 이제는 유일신론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폐기하는 것이 차

라리 나을 것 같다. 물론 유일신론을 폐기한다면, 그것은 폐기를 위한 폐기라기보다는, 유일신론을 넘어 진정한 유일신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폐기이다. 예수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복음 5:17 고 할 때, 그 완성으로서의 폐기와 같다. 범재신론은 유일신론의 폐기이자 재해석이고, 그런 의미의 유일신론의 완성이다. 이러한 신론에 입각할 때 종교가 이야기하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초도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찬수, 《유일신론의 종말, 이제는 범재신론이다》, 동연

글쓴이 이찬수

글쓴이 이찬수는 서강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불교학과 신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대학교 교수, 일본 WCRP평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종교로 세계 읽기》, 《인간은 신의 암호》, 《일본정신》,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녹색평화란 무엇인가》공저 등이 있고,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절대 그 이후》, 《화엄철학》 등이 있다. 종교 철학에 기반을 둔 평화 인문학의 심화와 확장을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참고문헌

이찬수, 《유일신론의 종말, 이제는 범재신론이다》, 동연
김경재, 《이름 없는 하느님》, 삼인
마이클 슈나이더,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 경문사

예 술
과 학

세기말 벨 에포크 파리의 예술 세계

함 혜 리
서울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14년. 제국주의 열강들이 치열하게 세력을 겨루던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9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남기고 1918년 11월 전쟁은 끝났다.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전쟁이 그렇게 잔혹하고, 오래 가리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아무 걱정도 없이 평화롭고 풍요롭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말하곤 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어."



반 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벨 에포크 La Belle Epoque 는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19세기 말부터 1차 대전 발발까지 파리가 번성한 평화롭고 화려한 시대, 그 문화를 회고하여 사용하던 단어다. 제 3 공화정 시기에 해당하는 1890~1914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1차 대전의 공포와 대조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

산업 기술과 자본주의 발달로 프랑스에서는 급속한 현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됐다. 구시대의 신과 권위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시대적 정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아직 모호한 시기였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모든 전통과의 단절을 이룬 혁명의 열풍은 혼란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기계 등 산업기술의 발달과 과학적 연구의 비약적인 성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시기. 프랑스 대혁명 100년 기념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파리에 에펠탑이라는 명물이 등장한다. 산업, 기계, 기술, 전기, 교통수단 발달과 함께 제2차 산업혁명의 절정기인 1900년 만국박람회로 파리는 최첨단 기술문명의 도시, 유행의 도시임을 만방에 알렸다. 파리에 첫 지하철이 개통된 것도 이때이다.



고흐, 고갱, 피카소, 모딜리아니, 마네, 르누아르, 보들레르, 랭보, 지오노 사르트르… 삶과 사랑이 무르익었던 곳 파리, 카페



몽마르뜨의 물랭루즈

산업혁명과 식민지 경영으로 축적된 막대한 재화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최소한의 여유가 생긴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가 상승하고, 경제적 번영과 함께 부르주아들은 심미적이고 향락적인 취향을 따라 자유롭게 인생의 향락을 즐겼다. 예술가, 부르주아, 사교계 명사들이 즐겨 찾는 몽마르트르의 물랭루즈, 르샤누아르 등 카페 콘세르와 캬바레가 번창했다.

낙천적인 시대적 에너지와 경제적 풍요로움은 예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파리는 거대한 예술의 용광로였다. 예술적 영감과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천재들이 함께 어울리며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장르를 불문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현대 예술 사조의 근간을 제공하게 된다.

문학에서는 19세기 중반 낭만주의 발자크, 스탕달 이후 이에 대한 비판으로 에밀 졸라와 모파상을 필두로 사실주의가 등장했고 보들레르의 상징주의 영향을 받은 시인 베를

렌, 랭보, 말라르메, 아폴리네르가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했다. 르누아르, 드가,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가운데 쇠라, 고갱 등 후기 인상파, 앙리 마티스, 앙드레 드랭으로 대표되는 야수파, 피카소의 입체파, 그리고 아르누보 등 예술사조가 파리에서 등장했다. 화려한 색채와 활달한 선이 두드러지는 그림으로 유명한 툴루즈 로트렉은 몽마르트르를 명소로 만든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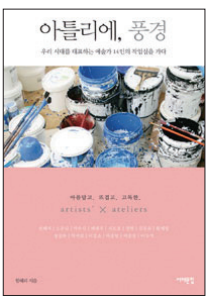


폴 고갱 〈아를르의 카페에서〉



에드가 드가 〈카페에서〉

벨 에포크는 살롱 음악의 전성기였다. 심각한 음악보다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감미롭고 감상적인 피아노 솔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협주, 왈츠가 파리에서 유행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포레, 사티, 생상, 드뷔시, 마스네, 라벨 등은 여전히 사랑받는 그 시절의 작곡가들이다.



함혜리, 《아틀리에 풍경》, 서해문집

글쓴이 함혜리

글쓴이 함혜리는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2대학에서 언론학 박사과정 D.E.A.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신문 예술담당 선임기자로 30년 가까이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 프랑스와는 무슨 인연이 있는지 20대 중반 휴직하고 유학을 떠나 4년간 체류했고, 10년 뒤 관훈클럽 신영기금 지원으로 1년간 프랑스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파리 특파원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프랑스는 FRANCE가 아니다》, 《아틀리에 풍경》이 있다.

참고자료

함혜리, 《아틀리에 풍경》, 서해문집

한국 뮤지컬에는 왜 킬러 콘텐츠가 없는가

최 민 우
중앙일보 기자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계를 3~4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70~80년대 한국인은 팝송을 많이 들었다. 레드 제플린을 듣고, 아바에 취했고, 마이클 잭슨을 따라했다. 2004년에 나온 유하 감독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버스에서 괴롭히던 선배들을 따돌리고 도망친 세 명이 빵집에서 얘기를 나눈다.

권상우 = 한가인을 향해 **이어폰 끼고 있던데,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나 봐요?**
한가인 = 아 예. 팝송 프로 듣는 거 좋아해요.
이정진 = 팝송? 수준 있네.

영화는 1978년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는 그랬다. 팝송을 듣는 건 수준 있는 문화 행위였고, 가요를 듣는 건 수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어도 자신 있게 수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찜찜했다. 그만큼 한국 가요와 영·미권 음악 간의 완성도 차이란 게 있었다. 수준 차만큼 음반 판매량·라디오 방송 횟수 등에서 팝음악은 가요를 월등히 앞섰다.

균열은 1980년 〈창밖의 여자〉를 들고 나온 조용필이었다. 조용필은 당시 한국 가요 음반으론 사상 처음 100만 장을 돌파했다. 조용필은 1980년대 내내 한국 대중 음악의 키워드였지만 혼자서 팝음악 전체를 상대하기란 버거웠다.

결정타는 1992년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170만 장을 팔아치운 〈난 알아요〉는 역대 데뷔 앨범 최고 판매량이었다. 2집 〈하여가〉는 최초의 더블 밀리언셀러200만장 돌파를 기록했다. 랩의 한국화, 댄스 음악의 돌풍, 뮤직 비디오의 정착 등 음악적인 성과 이외에도 사회 비판적 가사, 10대 청소년의 절대적 지지, 신비주의 전략, 다양한 패션 아이템 등 사회·패션·교육·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서태지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쳤다. 10대가 대중문화의 중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한 것도 이때부터였고, 무엇보다 가요가 팝음악보다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서태지의 등장 이후였다. 가요계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의 탄생이었다.

이는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1970~80년대 한국의 대중은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봤다. 〈인디아나 존스〉는 박진감이 넘쳤고, 〈람보〉의 통쾌한 액션에 박수를 보냈다. 홍콩 영화도 득세했다. 성룡·주윤발·왕조현·장국영 등이 최고 스타로 각광받았다. 비록 이장호

· 배창호라는 감독이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 영화는 〈애마부인〉으로 대표되는 '에로티시즘'이 주류였고, 완성도도 떨어졌다.

한국 영화의 터닝 포인트는 1999년 〈쉬리〉였다. 순 제작비 24억원. 지금으로 치면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선 기념비적인 액수였다. 할리우드 못지않은 다이내믹한 총격신 등은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탄생이었다. 전국 관객 620여만 명은 〈타이타닉〉의 440만 명을 가뿐히 뛰어넘는 기록으로 당시 역대 최고 흥행작이라는 타이틀을 선사했다. 〈쉬리〉는 '큰 돈 들여 만들어도 남길 수 있다'란 확신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한국 영화의 제작방식과 규모는 완벽히 달라졌다. 이후 국면은 익히 알려진 대로 이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보다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높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궤적은 TV 드라마도 비슷하다. 1970~80년대 한국인들은 미국 외화 시리즈를 좋아했다. 〈6백만불의 사나이〉, 〈소머즈〉, 〈원더우먼〉 등이 안방극장을 점령했고, 〈V〉, 〈맥가이버〉도 인기였다. 안방 건넌방을 오가는, 한국의 일일 연속극은 1주일을 안 봐도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준 건 1991년 〈여명의 눈동자〉였다. 2년 간의 기획, 36부 시리즈, 필리핀 · 중국 현지 로케이션, 회당 2억 원의 제작비 등 기간 · 물량 · 규모 등에서 과거와 차원이 달랐다.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의 출발점에 〈여명의 눈동자〉가 또렷이 위치해 있었다.

새삼스레 한국 가요 · 영화 · 드라마의 과거사史를 들춘 건 각 장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똑같은 패턴이었다. 1970~80년대엔 외국, 특히 미국에 비해 한국의 콘텐츠는 경쟁력이 떨어졌다. 소비자 역시 미국 대중문화를 소비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것만으론 만족하진 못한 듯하다. 그건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와는 다른 차원이다. 알아듣기 힘든 팝송이 아닌, 흥얼흥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노래를 원했다. 스펙터클함은 조금 떨어져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다. 이런 대중의 욕구에 부응해 적절한 시기에 킬러 콘텐츠가 터져 나왔다. 가요의 서태지, 영화의 〈쉬리〉, 드라마의 〈여명의 눈동자〉가 그들이다. 킬러 콘텐츠의 탄생 이후 각 장르의 지형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대박 신화는 자본 유입을 용이

하게 했고, 우수 인재가 들어왔으며, 한국 콘텐츠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또 다른 히트 상품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전세는 역전됐고, 주도권 역시 외국이 아닌 우리가 갖게 됐다. 20세기 후반 한국 대중문화가 성장해 온 공통적인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뮤지컬은 어떤가. 21세기 어떤 장르보다 시장 규모가 가장 빠르게 확대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한국 뮤지컬에도 이미 킬러 콘텐츠가 나왔어야, 아니면 이쯤에선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대박이 제대로 터졌다는 뮤지컬은 보이지 않는다. 1995년 초연된 〈명성황후〉가 그중 가장 히트한 축에 속하지만, 〈명성황후〉 이후 한국 뮤지컬이 대세가 되진 못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건 외국에서 물 건너온 뮤지컬들이다.

왜 그럴까. 다시 한 번 보자. 가요나 영화나 드라마는 간단한 구조이다. 처음엔 외국, 특히 미국 것이 잘 나갔는데 한국 콘텐츠가 이를 뒤쫓다 한국판 킬러 콘텐츠가 터진 뒤엔 판세가 뒤집어졌다. 세 장르 모두 '한국'과 '외국'이라는 양측으로 정확히 갈라져 있다.

뮤지컬은 다르다. 한국 뮤지컬과 외국 뮤지컬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중간 지대가 있다. 이른바 '라이선스License 뮤지컬'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라이선스 뮤지컬이란 한국이냐, 외국이냐로 딱 가르기 모호하다. 뮤지컬이란 장르의 고유한 특성이자, 뮤지컬에서만 가능한 제작 형태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처음 만들기는 외국 사람이 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초연했다. 반응이 좋아 몇 년 간 공연됐고, 검증이 되자 한국 제작자가 나타나 판권을 따냈다. 그리고 한국 무대에 올렸다. 대본은 똑같고, 음악도 똑같고, 등장인물도 똑같다. 대신 한국말로 해야 하므로 번역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출연진이 한국 배우이다. 이게 라이선스 뮤지컬이다. 한국에서 공연된 〈오페라의 유령〉이, 〈맘마미아〉가, 〈지킬 앤 하이드〉가 다 이렇게 제작됐다.

뮤지컬에만 유독 '창작 뮤지컬'이란 말이 자주 쓰인다. 조금 어색하지 않은가. 예술이란 영역을 논하면서 어떻게 창작이란 단어가 강조되는지. 예술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 사실 다 창작이라야 정상이다. 근데 뮤지컬에 창작이란 말을 앞에다 쓰는 건, 창작이 아닌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영화에선 창작 영화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건 영화를 만든다는 행위가 다 창작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이 만들든, 외국 사람이 만들든,

아니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합쳐 만들든 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에 창작이다. 리메이크나 표절 시비와는 다른 문제이다. 드라마나 대중음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뮤지컬은 그렇지 않다. 한국인이 만든 건 창작 뮤지컬, 외국인이 만든 건 외국 뮤지컬, 외국인이 만든 뒤 한국인이 따라하는 건 라이선스 뮤지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물론 한국인이 만든 걸 외국인이 따라 해도 라이선스 뮤지컬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껏 손에 꼽을 정도이다. 라이선스 뮤지컬 중엔 외국 것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100% 그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름 운용의 묘를 살려 대폭적인 변화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외국 창작물에 기반한다는 건 똑같다. 이 얘기가 라이선스 뮤지컬이 무의미하다거나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다른 대중문화와 다른,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임을 말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라이선스 뮤지컬은 한국만의 유별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히 제작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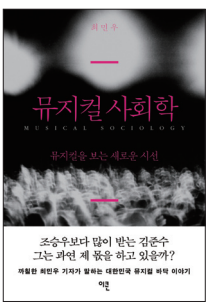
그럼 라이선스 뮤지컬이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전체 시장 규모의 70%에 육박한다. 시장을 주도하며 대세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이 지점에서 바로 뮤지컬은 킬러 콘텐츠를 탄생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갖게 된다. 다른 장르가 외국〉한국으로 바로 주도권이 넘어온 데 비해 뮤지컬은, 타 장르엔 없는 새로운 제작 형태인 라이선스 뮤지컬이 중간에 떡하니 위치해, 외국에서 바로 창작 뮤지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창작 뮤지컬의 킬러 콘텐츠가 탄생하지 못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세면 왜 대박이 날만한 창작 뮤지컬은 만들기 힘든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관객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킬러 콘텐츠는 창작자의 고뇌에 찬 위대한 창조물이다. 〈쉬리〉는 강제규 감독의 뛰어난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중이 그런 영화를 원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 들어 영화아카데미 출신의 감독들이 하나둘 배출되면서 한국 영화는 그 이전과 다른 때깔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혼이야기〉, 〈접속〉 등에서 보이듯 동시대의 언어를 담아내고 있었다. 한국 영화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기 시작한 관객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버금가는, 설사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가능성을 담은 영화가 출연하면 열렬히 응원해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 그 적절한 타이밍에 〈쉬리〉가 나온 것이다.

반면 뮤지컬은 상황이 다르다. 〈맘마미아〉를 예로 들어보자. 관객은 이 뮤지컬이 외국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건 머리로다. 하지만 눈과 귀는 아니다. 눈에선 박해미가 보이고, 전수경이 넘어지며, 최정원이 열창한다. 귀로는 아바의 노랫말이 "나는 나, 너는 너"라며 선명하게 꽂힌다. 가끔씩 "댄싱 퀸"이라는 영어가 들리긴 하지만 그 정도를 못 알아들을 만큼 무식하진 않다. 정서상의 미묘한 차이가, 번역상의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대에 나와 있는 배우가 한국 사람이고, 그들이 말하고 노래하는 언어가 한국말인데 뭐가 그리 불편할까. 안을 들여다보고 들었던 정보로는 〈맘마미아〉가 외국 뮤지컬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림은 한국 뮤지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그러니 굳이, 꼭 한국 뮤지컬을 봐야할 절실함이 관객으로선 생길 리 만무하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다. 관객의 기준점은 이미 〈오페라의 유령〉이다. 김소현크리스틴과 홍광호팬텀라는 한국 배우가 서 있는 와중에 거대한 샹들리에는 천장에서 내려와 쿵 떨어지고, 바닥에 숨어 있는 촛불은 어느새 올라와 아득한 공간을 연출한다. '20세기의 모차르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선율은 또 얼마나 비장한가. 이미 세계적으로도 잘 나간다고 검증된 무대를 본 관객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한국 창작 뮤지컬을 본다면 어떨까. 비웃지 않을까. 이처럼 라이선스 뮤지컬은 논리상으론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지만, 정서상으론 '한국 것'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최고 수준의 라이선스 뮤지컬에 눈과 귀가 길들여진 대중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고 딱히 봐주지 않는다.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어내야 발걸음을 향할 자세이다. 한국 뮤지컬 창작자들로선 유예기간이 없는 셈이다.



최민우, 《뮤지컬 사회학》, 이콘

글쓴이 최민우

글쓴이 최민우는 서울 변두리에서 초 · 중 · 고를 나왔고 1997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대학 시절 연극반, 방송작가 과정, 원조 홍대 클러버 등의 경력을 구실 삼아 줄곧 문화부 입성을 노렸으나 "생긴대로 살라"는 선배들의 선입견에 주변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5년 문화부 공연 담당을 맡고는 '결코 떠나지 않으리'란 잔머리로 '더 뮤지컬 어워즈'를 런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게 부메랑이 돼 2013년 7회 때까지 총괄 책임자로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 2009년부터 4년간 '최민우 기자의 까칠한 무대'라는 칼럼을 연재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학교 등에 출강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관광문화학과 겸임교수이자 중앙SUNDAY 정치부 기자이다.

참고문헌

최민우, 《뮤지컬 사회학》, 이콘

조선 시대 책가도 이야기
– 책거리의 특징과 위상

이 원 복
경기도박물관장

1. 책가도의 배경

– 학문 숭상의 민족성과 북학파北學派의 청 문물 선호

한자 문화권에서 고동기古銅器와 도자기 그리고 서책을 소재로 한 기명도器皿圖의 전통은 오래이며 한·중·일 모두에서 살필 수 있는 국제적인 양상이다. 반면에 조선 왕조에서 18세기 이후 즐겨 그려져 크게 유행된 책거리冊架圖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들어 우리 전통 회화의 독자적인 양상의 하나로 제시된다. 책과 문방제구 및 기타 기물을 함께 그려 일정한 양식을 이룩한 이들은 책거리·서가도·문방도·책탁문방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를 민화民畵로 간주해 민화 특별전을 통해 적지 아니한 명품들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민화에 앞서 자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의 녹취재祿取才에도 등장하듯 도화서 화원畵員들이 궁중 장식화 범주에서 시작해 어엿한 정형을 이룩한 그림이다. 점차 지방 양식까지 이루어지는 등 민화로 전이되어 빈번히 그려졌다. 짙은 채색濃彩에 사실적인 정확한 표현에 원근법과 명암의 구사 및 서양화풍의 유입이나 수용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조선은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국가로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고 선비들의 거주 공간인 사랑방에는 책을 보관하는 문갑과 사방탁자 등이 세트로 놓여졌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된 이들 목가구와 책가도에 등장한 중국의 다보각多寶閣이나 다보격多寶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책가도의 연원을 기명도에서 찾기도 하나 그보다는 조선 후기 북학파의 중국 문물 선호와 함께 대리만족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청淸중엽 경에 책가도가 그려졌다고 하나 미국에 있는 낭세영郎世寧, 1688~1766의 유작 1점과 민화 범주의 〈다보격경多寶格景〉만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을 뿐 매우 드물다.

'조선 3대 화가'에 속하며 '조선의 그림신선畵仙'으로 지칭되는 거장 김홍도를 비롯해, 장한종張漢宗, 1764~1815과 특히 이윤민李潤民, 1774~1841·이형록李亨錄, 1808~? 부자는 책가도로 명성을 얻은 화원이다. 특히 이 한 가지 분야로 명성을 얻은 화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높은 수요를 암시하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서 조선 말까지 궁궐의 그림에서 점차 상류 가정을 거쳐 중인中人들 소용의 민화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그려졌다.

2. 책가도의 특징

– 소재와 일 정형의 성립

책가도에 등장하는 책과 기명들 모두는 중국 것들이 대부분이니 그림 소재 때문에 일견 중국 그림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이같이 소재의 조합으로 형식과 양식을 이룸은 중국에선 찾아보기 힘드니 조선의 화가들에 의해 창안된 그림이다. 장한종과 이형록의 〈책거리〉를 중심으로 살피면 질서 정연한 논리적인 그림으로 책가도 계열의 정형으로 제시된다. 매우 엄정한 형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소재들의 사실적인 정확한 표현, 좌우 대칭 및 균형을 이룬 구성, 농담 및 명암, 고아한 색조의 원용 등 기량과 격조에서 돋보이며 서구적인 시각이 선명히 드러난다. 이 점에서 민화와 구별된다.

책은 여러 권이 한 질을 이뤄 갑匣 안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갑 없이 쌓인 것과 화첩으로 사료되는 것들도 있는데 표지가 화려한 비단으로 꾸며진 낱권들도 있다. 여러 갑이 한 칸에 놓인 것도 있고 갑끼리 조금 어긋나거나 한두 권의 책이 옆으로 조금 빠지는 것 등도 있어 단조로움을 깨는 의도를 읽게 된다. 크기와 권수, 그리고 책의 두께, 갑을 장식한 비단의 무늬 등 모두에서 차이를 두어 무엇보다도 꼭 같은 내용을 갖춘 칸이 없으니 고도로 계산된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용기들은 고동기와 고자기가 두루 보이며 또한 옥 등 석제품도 보인다. 수반이나 꽃병에 꽂힌 식물로 불수감, 석류, 수선화, 진달래, 작약 및 꿩 깃 등이 생동감 넘친 사실적인 묘사로 쉽게 알 수 있다. 수반에 수석이 놓인 것, 자기류로는 화병과 잔盞 등 차 관계 기명이 주류이다. 이 밖에 벼루, 붓, 도장 등 문방구류, 고동기로서는 고觚와 호壺를 비롯한 각종 중국 고대 청동기며 향로 등이다.

이와 같이 화가명이 명료한 것 외에 수준은 다소 뒤지나 이외에도 지방에서 활약한 화가로 사료되는 지산芝山, 옥천玉泉, 고송古松 등 숨겨진 도장隱印이 찍힌 책가도 등도 전한다.

3. 책거리의 두 범주

– 궁궐 그림에서 민화로 확산

사전적 정의로는 책거리 세 음절만으로도 책가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책가도란

명칭이 보다 일반화되었다. 책가도는 책거리와 같으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궁중 장식화나 화원이 그린 것, 같은 주제이나 민화 영역은 문방도 구분해 살피려 한다.

책가도는 병풍을 펼쳤을 때 전체가 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서책과 옛 그릇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들이다. 문방도는 별도의 책장 없이 기명과 서책끼리 어우러진 것이다. 시대가 떨어지는 창덕궁 소장 〈호피장막도虎皮帳幕圖〉는 8곡 병풍은 마치 호피장막의 일부분을 걷어 올려 그 안에 책가, 그 위에 놓인 각종 책을 비롯한 각종 기물들을 채우고 있다. 중국의 민간 연화처럼 드리운 휘장을 나타낸 점도 주목되나, 무엇보다도 등장된 기물들인 담뱃대·접선·방구 부채·안경·책상의 모습 등 조선 것들을 포함한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강한 현실감각을 보여 준다. 점차 엄정한 구성이 허물어져 시점을 무시하여 변형하고 도안화는 경향이 보이는데 제주도에선 기명을 빼버리고 책장 안에 독립된 책과 책상을 넣은 형태로 일종의 추상화 경향을 보이니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들은 민화에 속하는 것들이다.

민화 범주로 분류한 문방도는 두껍닫이 그림과 병풍으로 후자는 전체가 한 화면이 아니어서 연결된 책장은 아니다. 책장은 소규모로 한 폭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림의 격조와 기량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민화의 문방도 계열이 다채로워 시선을 모은다. 틀을 헐어 낸 자유분방한 시도로 문자도文字圖와 결합하거나 화면 내에서 화조도와 배합, 한 병풍에서 폭을 달리해 화조나 문방, 산수 등의 구별되는 소재로 모두 망라한 예도 있다. 우리 미감美感의 속성인 희화戱化의 길로 나아간다. 책과 책상과 각종 그릇 그리고 꽃과의 다양한 조합은 그림마다 다른 무수한 조합이 가능하다. 기물은 중첩되어 번잡한 구성을 보이며, 수묵 위주로 더욱 단순화시켜 간결한 직선미를 살려 도안화를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에 분류 또한 단순하지 않으나 각 폭이 독립된 화면을 이루고 있는 점, 책상 위에 책과 기명을 가지런히 나타낸 것, 책상 위에 바둑판 문갑 및 책장 등 다양한 기명을 모은 것, 흔한 예는 아니나 마치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나 불화의 감로왕도甘露王圖 처럼 상 위에 기명을 나열한 것들도 있다.

책거리는 우리나라 조선에서 정형이 이룩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구성과 특징을 선뜻 드러내 보인 그림이다. 이미 민화 연구가들이 언급했듯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비록 정형의 성립 시기는 조선 왕조 18세기로 조선 말까지 화단의 큰 흐름으로 유행했고 화풍상 뚜렷한 특징, 수적인 측면 등 타국과 구별되는 양상으로 독자성을

지닌다. 중국에서도 궁실 벽화 일부에서 그리고 청 중엽 이후의 이민족 계열 민간 연화에서 형태상 유사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성보다는 차이점이 커서 우리와는 구별된다. 책거리는 민화 범주에서 주목되었으나 어엿한 궁중 장식화에서 시작해 점차 민간 수요로 제작된 민화로 확산된다. 양자는 상호 보완이나 습합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조선 회화사의 표리를 이룬다.



장한종 1768–1815, 〈책가도〉, 종이에 채색
195.0x361.0cm, 경기도 박물관



이형록1808–1866이후, 〈책가도〉, 종이에 채색
202.0x438.2cm, 삼성미술관 Leeum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 박물관, 2012

글쓴이 이원복

글쓴이 이원복은 서강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국립광주, 전주, 청주, 공주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을 지냈다. 현재 경기도 박물관장으로 재직중이며, 경기문화재단과 송암문화재단 이사 및 동악미술사학회 간사로 서울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홀로 나귀타고 미술 숲을 거닐다》,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동물화, 다정한 벗 든든한 수호신》, 《한국의 말 그림》 등과 10여 권의 공저가 있다.

참고문헌

이원복, 〈책거리소고〉, 《근대한국미술논총 청여 이구열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학고재,1992.12, p.103~126.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 조선 후기 '민화'의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소고〉, 《미술자료》 66호 국립중앙박물관,2001.8, p.79~95.

책거리 특별전 전시도록, 《조선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박물관,2012.3

위대한 미술책
– 책으로 읽는 미술

이 진 숙
미술 평론가

1. 학습은 명랑하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두뇌와 삶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건강한 궁금함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세상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의미를 묻는 일이다. 길섶의 작은 꽃 하나조차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일은 세상과 더 멋진 관계를 갖는 일이다. 듣고 보고 더듬고 느낌으로 여는 세상의 풍요이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공부하는 일 역시 세상과 더 많이 감응해나가는 과정이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공부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등등. 그런 공부는 목표와 틀이 정해져 있다. 얼마나 공부했는지 저쪽에서 제시한 항목에 나의 학습을 맞추는 과정이다 보니 일종의 아무래도 재미가 덜하다. 그러나 내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하는 공부와 독서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과시용 공부가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공부니 마음의 기쁨이 더 크다. 조금 어려운 책을 만나서 시간과 공을 들일 수는 있지만, 지루할 틈은 없다. 메마른 지식 쌓기와는 거리가 먼 이런 학습은 명랑할 수밖에 없다.

《예술과 그 가치》에서 매튜 키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술 감상은 나의 자아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은 그 자체가 목표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더욱 심화된 시각을 형성하기 위한 공부는 살아 있는 것이다. 학습은 우선은 나에게 일차적인 행복감을 주지만, 나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통찰을 심화시켜서 타인을 지향하게 한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정보를 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었다.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여러 책을 보지 않아도 검색어 입력 한 번으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집단 지성의 위력을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 말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통찰이라고. 예술은 시대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에 근거한다. 예술을 감상하는 일은 세상에 대한 통찰을 강화하는 일이다.

미술책을 읽는 궁극의 목표는 미술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아니겠는가? 그동안 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또 미술 현장에서 일하면서 모두들 궁금해 하는 문제들, 반드시 알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들을 추리면서 공부에 현장감을 더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의 공부가 아니라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공부를 하고 싶었다. 책의 5개의 장은 미술계의 생태학적인 구조를 반영한다. 작가, 미술사가, 비평가, 이론가, 콜렉터와 미술 시장 관계자. 혹은

창작 – 미술 이론 – 미술관과 미술 시장을 포함한 미술 제도. 어떻게 분류를 하건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빼면 미술의 생태계는 온전히 파악될 수 없다. 한 축도 빼고 넘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물론 이 우주에서 태양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당연히 작가창작이다. 그리고 이 작가라는 태양이 계속 불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의 코로나 운동이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이 사회 전체의 미술적인 코로나 운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좋은 감상자는 좋은 예술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책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책의 영혼이야 모두들 알겠지만, 책의 육체라고 하니 좀 낯설 수도 있겠다. 책의 육체는 하드커버의 장정본, 소프트커버의 핸디북, 전혀 물리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전자책 같은 책의 물리적인 존재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육의 조화를 이룬 책을 사랑한다. 사실 지식의 깊이가 기준이었다면 책의 전체 리스트가 달라졌을 것이다. 책은 읽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식의 깊이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책의 몸으로서 갖는 언어의 유려함이다. 독자의 호흡을 배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졌는가가 중요했다. 소위 교과서적인 전문 서적들 중에서 대중들을 향하지 않은 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반듯한 한국어로 쓰인 '읽을 수 있는 책'을 선별했다. 훌륭한 내용이지만 문체의 조악함으로 독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책들은 뒤로 밀렸다. 많은 책들이 번역된 외국서이기 때문에 선별은 사실 더 어려웠다.

2. 미술의 생태계를 포괄하다

이 책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북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미술에 관심을 갖고 미술 관련 서적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수많은 미술 관련 서적 중에서 필독서를 꾸려 보았다. 앞서 말한 대로 미술의 생태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작가 이야기/서양 미술사/한국 미술/미술 이론과 비평/미술 시장과 콜렉터라는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중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한국 미술서적 시장은 매우 협소하다. 다양한 종류의 양서가 발간되지만, 초판 상태에서 절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절판된 책이라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츠베탕 토도로프의《일상 예찬》이 그런 책이다.

미술 생태계를 전부 포괄하여 책을 제시하는 것은 이 책의 두 번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은 대개 서양 미술만 좋아한다든지, 동양 미술만 좋아한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갖는 경우가 있다. 또 서양 미술 안에서도 고전 미술만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현대미술 쪽으로 기울어 있든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미술을 통해서 미감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대표 서적을 아우른다. 특히 미술 교육과 미술 시장 전반이 서양 미술에 치우쳐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그간의 '나'와 '우리'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서양 문학과 서양 미술을 전공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서양 미술과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이러 저러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이 지난 수년간의 주업이었다. 매순간 가슴이 팔딱팔딱 뛰는 즐거운 일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내가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에 봉착했다. 나의 지식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작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한국에 대한 공부였다. 이것은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에 젊음을 보낸 세대들, 한국사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다. 한국 미술의 뿌리에 대한 공부 없이 한국 현대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허한 일이었다. 늦었지만 공부를 시작해서 이 책 저 책을 두서없이 읽어나가면서 한국 미술의 원형을 그려보면서 한국인의 미감의 뿌리를 찾는 작업을 조금씩 해오고 있다.

내가 다른 자리에서도 썼듯이 과연 '무식은 우울한 일이고, 공부는 행복한 일이다'. 초심자의 마음이 되어 한국 미술사를 접하고 읽어나면서 받았던 감동을 순수하게 전하고 싶었다. 최근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의《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다니엘 튜더의《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숲의《스무 살엔 몰랐던 내한민국》등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통점은 우리가 너무 우리를 몰랐다는 것이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생기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미술사 관련된 서적을 쓰신 모든 저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를. 미술은 세상과의 행복한 관계 맺음이다. 한국 미술사 관련 독서는 그동안 몰랐던 자랑스러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인 서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나누는 문제의식은 책 밖의 치열한 미술 현장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여러 미술 관련 고전들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의 한국 미술을 다각도로 성찰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은 쓰였다.

최근에 나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다. 계정만 만들어놓고 거의 방문하지 않는 나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제발 좀 와보라는 안내 메일. 친구 요청, 친구 찾기의 리스트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고인이 친구 찾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호러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레 클릭을 해보았다. 그곳에서는 낯선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고인이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야 없다. 그러나 그를 알던 지인이 가끔씩 잊지 않고 방문해서 글을 남겼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이어서 생각났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등등…. 어쩌면 무덤에 찾아가서 할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쌓여가고 있었다. 뭐랄까 말할 수 없이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무덤을 찾아가는 이동의 불편함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육신을 버린 고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디지털 혁명은 죽음의 모습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정도로 결정적인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현실의 변화가 책의 목록 선정에 많은 고민을 가져왔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진 로버트슨과 크레이그 맥다니엘이 《테마 현대미술 노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세계화, 정체성, 노마드, 몸, 언어 등등의 중심 테마들은 당시의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으로 미술에서 주제화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들이 분명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한 세계화는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중시하는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책의 기획도 특정 이론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21세기의 혁신적인 디지털 문화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측면들이 반영된 책들이 소수이지만 포함되었다.

3.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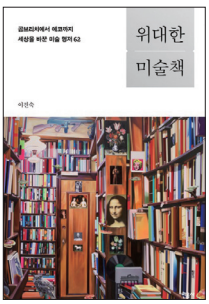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말이 떠오른다.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다." 어른들이 아이를 앉혀 놓고 공부해서 남 주냐고 다 네 것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핀잔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것, 맞다. 출세와 성공을 위한 공부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했다. 그리고 그것이 공부를 재미없게 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남 주는 공부를 해야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미술 공부를 해서 남한테 무얼 주냐고?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가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은연중에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력의 수요가 600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와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 인구가 1억으로 내수 시장 확보는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공동체 내부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자잘한 문제를 다듬어줄 문화적인 통합력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이 필수적으로 제기되며,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미술사를 살펴보면, 폐쇄적인 문화보다 개방적인 문화가, 순혈주의보다 혼성주의적인 문화가 조성되는 시대가 더 건강하고 국가적 융성을 가져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은 바야흐로 구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기 다른 디지털 기계들이 함께 결합되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컨버전스conversions, 융합의 시대가 아닌가? 문화적인 통합과 융합은 전 세계적인 대세이며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학습은 세계를 향해서 나를 여는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문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많은 부분 서양 미술과 관련된 책을 다루고 있지만,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책들을 읽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들뢰즈 식으로 말하면 세상은 완성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책이 완성될 리가 없다. 2013년 상반기까지의 리스트이다. 미술에 관한 좋은 책은 지금도 어디선가 쓰이고 있을 것이다. 또 나의 독서가 이 책들에 대한 유일한 평가가 아니다. 읽고 또 다른 견해가 이어지면서 생산적인 토론의 시작이 되었

으면 좋겠다. 지금 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독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정말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이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 언급된 책들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스스로 썩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엄한 법도 때문에 서평에서 제외된 나의 두 책《러시아 미술사, 위대한 유토피아의 꿈》과《미술의 빅뱅》도 챙겨 읽어주길 바란다. 제법 괜찮은 나의 아이들이다.



이진숙,《위대한 미술책》,
민음사

글쓴이 이진숙

글쓴이 이진숙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 인문대학 미술사학부에서 말레비치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5년간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생생한 미술 현장 경험을 쌓았다.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미술사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 인문학 강좌에서도 정규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 중앙SUNDAY에 〈이진숙의 접속! 미술과 문학〉과 조선일보에 〈권력과 얼굴〉이라는 미술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위대한 미술책》,《미술의 빅뱅》,《러시아 미술사》,《아름다움에 기대다》 등이 있다.

영화, 이미지와 움직임의 예술

김 호 영
한양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학학과 교수

1. 영화의 탄생, 운동 – 이미지의 탄생

1) 영화의 탄생 과정 : 움직임의 재현을 향한 열망

영화의 탄생 과정에는 움직임의 재현에 대한 서구 근대인들의 열망이 집약적으로 새겨져 있다. 한마디로, 영화는 1824년 니에프스의 '사진' 발명 이후 시작된 '실재의 재현'에 대한 열망과 1832년 플라토의 '페나키스티코프 Phenakisticope' 발명 이후 촉발된 '움직임의 구현'에 대한 열망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탄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망막의 잔상 현상 및 이미지의 분할과 결합 원리를 이용해 실재의 움직임을 재현한 페나키스티코프는 이후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들을 동작의 인위적 분할과 연결에 대한 탐구로 이끈다. 그 결과, 프랑스의 물리학자 에밀 레노는 영화촬영기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최초의 만화영화촬영기 '프락시노스코프 Praxinoscope'를 발명하며 1887, 프랑스의 생리학자 에티엔 쥘 마레는 영화촬영기의 전신인 동체사진기 '크로노포토그라프 chronophotograph'를 발명해낸다 1888. 그리고 에디슨과 딕슨은 마레의 크로노포토그라프에 결여되어 있던 필름 천공술을 보완해, 1893년 마침내 최초의 영화 촬영기인 '키네토스코프 Kinetoscope'를 발명해낸다.

그러나 기존의 모든 기술적 결함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키네토스코프에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키네토스코프로 촬영된 필름은 단지 '페니 아케이드'라는 박스 형태의 장치를 통해 혼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디슨과 딕슨은 키네토스코프를 단지 기발한 장난감 정도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촬영된 필름을 재미있는 볼거리 정도라 평가했지만,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영화촬영기와 필름 영화 이 훨씬 더 많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발명품이라는 것을 간파한다. 그리고 이 영화촬영기에 '영사' 기능을 부여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촬영된 필름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낸다 1894. 바로 '시네마토그래프 cinématographe'이다. 이후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해 여러 필름들을 촬영하며, 1895년 12월 28일 파리 '그랑 카페'에서 1프랑의 입장료를 받고 마침내 최초의 공식적인 영화 상영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이 흔히 얘기하는 영화 탄생의 날이다.

요컨대, 에디슨과 딕슨이 간과하고 뤼미에르 형제가 간파했던 것은 바로 영화의 엄청난 대중적 파급력이다. 그리고 대중적 파급력의 기저에는 바로 '실재의 운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영화 이미지의 운동성'이 자리하고 있다. 즉 '움직이는 실제 오브제 사물

이나 사람'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움직이는 영화 이미지'. 그것이 바로 영화를 탄생하자마자 엄청난 반향과 함께 강력한 대중적 매체로 자리 잡게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2) 타 예술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갈망

그런데 당시 '실재 움직임의 재현'을 갈망했던 것은 영화만이 아니었다. 영화가 탄생하기 전부터 기존의 여러 예술들은 '움직임의 재현'을 갈망하며, 그것을 새로운 당면과제로 삼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벌인다.

가령, 인상주의 화가들이 재현하고자 했던 '실재의 인상'에는 '실재의 움직임의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모네의 그림들에 나타나는 빛의 인상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가시적 세계를 이루는 '빛의 움직임'들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며, 드가의 그림에 등장하는 불균형한 자세와 절단된 신체의 인물들은 동작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회화라는 고정 이미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 고흐의 후기 그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용돌이치는 터치와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들은 화가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감정 변화와 욕망의 흐름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화가의 눈에 비치는 세계의 움직임들, 즉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시적 세계의 무수한 변화를 담아낸다. 짐멜의 언급처럼, 고흐는 운동성을 육체와 영혼의 공통 형식이자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공통 형식으로 간주하면서 회화라는 정지된 표면에 운동성을 부여한 최초의 선구자 중 하나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댕의 조각의 현대성도 그것의 '운동성'으로부터 나온다. 로댕은 조각을 무엇보다 '운동'의 예술로 보았다. 미켈란젤로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 조각이 '순수한 육체', 즉 균형과 조화를 갖춘 '추상적-조형적 구조물'을 추구했다면, 로댕은 '운동성'이야말로 '육체'와 '영혼'의 유일한 공통분모라고 간주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육체의 운동성'을 조각의 본질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고전 조각이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조화와 균형을 통해 존재의 '이상적 실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로댕의 조각은 운동을 통해 인간의 '실제적인 육체성'을 표현하고 구체적 삶의 형식들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3) '운동 이미지'로서의 영화 이미지

이처럼 영화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회화와 조각을 비롯한 여러 예술 장르들은 움직임

의 재현을 하나의 지상 목표로 삼으면서 각자가 지닌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의 움직임의 재현과 여타 예술에서의 움직임의 재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타 예술들이 '정지된 이미지'를 통해 실재의 '움직임의 효과'를 내려는 것과 달리, 영화는 그것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실재 움직임'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즉 영화는 자신만의 고유한 움직이는 이미지운동-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영화가 실재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어딘가 다르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화 이미지의 고유한 운동성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 탄생 시기부터 영화 이미지의 운동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베르그손은 지속 중이고 변화 중이며 운동 중인 모든 실재를 단속적이고 순간적이며 정지된 상태들의 합으로 이해하려는 근대 기계주의적 사고를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매체가 바로 영화라고 주장한다. 영화적 지각 구조와 사유 구조는 움직이는 것을 부동의 것에 의해, 지속하는 것을 순간적인 것에 의해 사유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착각, 즉 '기계론적 환영'에 근거하는 것이며, 영화가 만들어내는 운동은 실제 대상의 운동의 고유한 특질이 상실된 '거짓 운동'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벤야민은 인위적 연속성에 근거하는 기계적 메커니즘이 영화와 현실에서의 이미지 수용 양식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며, 영화야말로 현대인의 기계적 지각 구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엡슈타인, 발라즈, 강스 등 무성 영화인들은 영화 이미지의 진정한 운동성은 운동의 인위적 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는 '유동성'과 '가변성'을 있는 그대로 구현해내는 그것의 특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영화 이미지를 기계적인 분할과 결합의 산물이 아니라 영사의 순간 그것의 고유한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전물로 보았으며, 영화 이미지의 운동성 역시 실재의 운동과 유사하면서도 변별되는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들뢰즈는 영화 이미지를 단순한 포토그램 이미지들의 합이 아니라 그것들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즉 운동이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직접적인 소여所與로서 매개적 이미지"라고 간주한다. 즉 영화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운동 중인 '물질'이자 분할할 수 없는 '운동' 그 자체라고, 다시 말해 '운동 이미지'라고 본 것이다.

2. 영화적 운동의 다양한 차원

1) 신체의 운동과 신체 언어 – 보편 언어로서의 영화이미지

영화의 발달과 함께, 영화 이미지는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부각시킨다. 표정과 몸짓 같은 신체 움직임은 본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 즉 가장 중요한 언어였지만, 활자 문화의 발달과 함께 열등한 언어로 치부되면서 소멸되거나 쇠락해갔다. 그런데 발라즈에 따르면, 영화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표정과 몸짓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다시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부활시킨다. 즉 크고 작은 무수한 신체 움직임들은 영화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다양한 사건적 의미들 뿐 아니라 인간의 내적 정서와 감각적 상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가시적 언어'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일군의 무성 영화인들은 영화를 인류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실제로 신체 언어는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보편적인 소통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러한 신체 언어에 기반을 두는 영화 역시 특별한 학습과 설명 없이도 인종과 지역을 넘어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 클로즈업과 내적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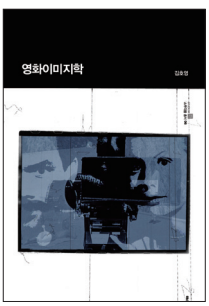
또한 영화 이미지는 '클로즈업 close-up '의 발명과 더불어 인간의 내적 움직임을 가장 잘 전달하는 매체로 부상한다. 1920년대 들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클로즈업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상의 무의식의 지대를 확대해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발라즈, 벤야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흐름을 강조해 보여주는 기능도 수행했다. 특히 클로즈업된 영화 이미지 위에 나타나는 인간의 '얼굴'은 수시로 변화하는 다양한 감정들과 욕망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장이 되며, 내면 깊은 곳의 '영혼'이 올라와 모습을 드러내는 표면이 되기도 한다 엡슈타인, 발라즈. 즉 클로즈업을 통해 확대되고 강조되는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들은 일반 문자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적 상태들을, 단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내밀하고도 직접적인 영혼의 차원을 표현해낼 수 있는 가시적 언어이자 '내적 언어'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3) 세계의 운동, 사물의 운동

같은 시기에, 소비에트 영화인들은 영화를 통해 인간의 외적, 내적 운동뿐 아니라 세계의 운동을 구현해내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베르토프는 영화가 탈인간중심화된 촬영과 편집을 통해 세계의 물질적 운동과 리듬을 영화 안에 그대로 축소해 구현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가 보기에, 영화는 물질적 세계가 그대로 축소된 하나의 물질적 우주이며, 영화 이미지의 운동은 사물의 운동과 리듬을 있는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는 물질적 우주를 채우고 있는 사물들의 운동과 리듬을 인간적 지각이 아닌 '물질적 지각'의 시점에서, 즉 사물의 시점에서 포착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르토프를 포함한 일군의 영화인들은 영화가 인간의 경험과 의식을 넘어서는 물질들의 세계를, 즉 인간의 지각으로는 포착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3. 끝으로

정리하면, 영화는 실재의 움직임을 '재생'한 영화 이미지를 기반으로 탄생되었다. 현실 속 어느 대상들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시간의 진행을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시작이었다. 곧이어 영화 이미지의 '운동성'은 부재하는 대상의 현전성을 강화시키며 영화에 강력한 실재감을 부여했고, 그 '실재감'은 영화를 탁월한 대중적 파급력과 소통성을 갖춘 매체로 만들어주었다. 나아가, 영화적 운동성 자체가 분할된 단편들의 단순한 종합을 넘어 영화 이미지에 내재된 고유한 성질로 자리 잡아가면서, 영화의 운동성은 단지 실재의 운동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운동을 통해 실재의 운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발전되어간다. 영화사 초기, 영화가 구현하고자 했던 운동은 실제 세계의 다양한 운동과 연관된다. 모든 실재의 움직임이 내포하고 있는 유동성, 가변성에서부터 인간의 외적, 내적 동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사물과 세계의 물리적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 운동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영화는 실재의 움직임을 '재현'하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소망을 바탕으로 탄생했지만 그 스스로 움직이는 이미지의 총체가 되어갔으며, 자신의 고유한 운동성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다양한 운동을 자신만의 양식으로 구현하는 매체가 되어가고 있다.



김호영, 《영화이미지학》,
문학동네

글쓴이 김호영

글쓴이 김호영은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에서 영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영화이미지학》, 《프랑스 영화의 이해》,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패러디와 문화》공저, 《유럽영화예술》공저, 《베네치아의 기억》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인생사용법》, 《어느 미술애호가의 방》, 《시점–시네아스트의 시선에서 관객의 시선으로》, 《영화 속의 얼굴》, 《프랑스 영화》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호영, 《영화이미지학》, 문학동네, 2014.
질 들뢰즈, 《시네마 1. 운동–이미지》, 유진상 옮김, 시각과언어, 2002.
지가 베르토프, 《키노아이》, 김영란 옮김, 이매진, 2006.
자크 오몽, 《영화 속의 얼굴》, 김호영 옮김, 마음산책, 2006.
앙마뉘엘 툴레, 《영화의 탄생》, 김희균 옮김, 시공사, 1996.

우리 가곡 이야기
- 한국 가곡이 지나온 길

김 혜 선
소프라노

이 글은 2015년 10월 19일 출판도시 인문학당의 심층강좌 시간에 한 강의와 연주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강의와 더불어 연주가 병행되었기 때문에 음향 자료가 덧붙여졌으면 좋겠지만 당일의 연주를 온전한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관계로 검색 가능한 음향 자료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합니다. 또한 학술 논문이 아닌 관계로 인용문의 출처에 대한 상세한 각주는 생략하고 참고문헌 목록만을 첨부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기로 서양 음악이 전래된 통로는 군대와 교회 두 갈래였다. 군대가 군의 제반 의식 성격상 기악에 관심을 가졌다면, 교회는 회중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성악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노래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리기 시작한 것은 1885년 입국한 선교사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와 아펜젤러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 가 선교의 일환으로 행한 교육과 예배 시에 불린 노래와 찬송가들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그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해서 가르쳤는데, 이 찬송가들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최초의 서양 음계에 의한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찬송가를 매개로 비서구권 나라에 서양 음악이 유입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 찬송가들은 이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음악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교회는 서양 음악을 보급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 거점으로, 또한 선교사들은 서양 음악의 전달자이자 음악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양 음악의 또 다른 한 갈래는 군대였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키고자 조선 황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 이후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신식 군악대를 창설한 것이다. 이 군악대의 교육을 위해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트 **Franz von Eckert, 1852~1916** 가 초빙되었다. 그는 군악대원들에게 서양 음악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쳐 상당한 수준의 악단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러한 활동은 서양 음악 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00년 창설된 양악대는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다가 1915년 완전히 해산되고 말았다. 이 기간 동안 에케르트는 양악대를 통해 서양 음악을 전달하여 해산된 뒤 개인적으로 연주 활동 및 악기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양악 전문가를 배출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음악 연구에도 힘써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두 음악의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하는 등 우리나라의 초기 양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양악대의 활동은 찬송가의 유입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인이 전달해주는 음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서양 음악을 수용하였다는 점, 완제품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닌 악기 연주 방법, 편곡 및 채보 기술, 작곡법 등 음악적 기술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초기 서양 음악사는 노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교사들에 의한 찬송가의 전래 이전에도 초기 천주교의 성가는 비밀리에 불렸을 것이다. 실제로 절두산 성지로 끌려가던 순교자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다. 다만 그 노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른 최초의 서양 노래는 1887년 크리스마스, 베델교회에서 부른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우리의 노래는 찬송가와 일본 군가, 창가와 나라 사랑을 노래한 애국 창가, 일명 애국가들이었다.

1920년 최초의 가곡이라고 일컬어지는 홍난파의 〈봉선화봉숭아〉가 작곡된다. 〈봉선화〉는 원래 홍난파가 그의 소설《처녀혼》의 서두에 첨부한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애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이 곡에 후에 김형준이 시를 붙여 완성된 곡이 한국 최초의 예술가곡 〈봉선화〉인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박태준, 안기영, 현제명, 이흥렬 등의 작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선교사에게 음악을 배우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으며 작곡이 아닌 바이올린, 피아노, 성악 등 다른 전공을 하다가 작곡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작곡한 초기의 가곡들은 대부분 찬송가풍의 단순한 반주부를 가진 유절 가곡들로 서양 장단 음계의 구성에 음악 형식면에서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가사를 가진, 구조적으로는 서양적이지만 정서적, 기능적으로는 한국적인 요소를 가진 노래들이다.

이러한 초기 가곡들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근대적인 모양새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한다. 채동선, 김세형, 김성태, 조두남, 김동진 등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작곡가들이 앞서 언급한 작곡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사공의 노래〉, 〈그 집 앞〉, 〈부끄러움〉, 〈코스모스를 노래함〉, 〈가고파〉, 〈그리워〉, 〈봄이 오면〉, 〈선구자〉 등 지금까지도

애창되는 친숙한 곡들을 지어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노래들이 점차 그 형식면에서 보다 넓은 음역대에 풍부한 화성과 조금 더 정교한 반주부를 가지게 되고, 유절가곡만이 아닌 노래 전체가 하나의 구성을 지닌 통절가곡의 모습을 보이는 곡도 많이 나타난다.

1940~50년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연을 품은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일제 말기의 암울함은 음악계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1940년대 초반, 일제의 압제가 극에 달했던 시절에는 오히려 아름다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다는 것이다. 〈꽃구름 속에〉, 〈산〉, 〈뱃노래〉, 〈새타령〉, 〈수선화〉, 〈신아리랑〉, 〈동심초〉 등 사회의 분위기와 상관없는 내용의 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다.

해방 이후 1940년대 후반은 첨예한 좌우의 대립 속에 음악가들도 정치와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험적,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젊은 좌익 성향의 작곡가들은 현실 비판, 해학과 풍자를 곁들인 사실주의 성향을 보이는 작품들을 썼는데, 김순남, 이건우, 윤이상 등의 작곡가들이 있다. 이들 외에도 이 시기에 활동한 작곡가들은 금수현, 김규환, 나운영, 이호섭, 하대응, 구두회, 변훈 등이 있는데 이들은 192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이미 서양 음악과, 또 가곡과 친숙하였던 세대로 초기의 습작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원하는 것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세대였다. 이들은 민요풍의 토속적이며 운율이 잘 맞는 정형시를 쓴 소월의 시를 곡으로 많이 만들었으며, 전통음악과의 결합, 자유로운 조성의 현대적인 시도 등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며 가곡의 지평을 넓혀갔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는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한국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예술가들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남으로, 혹은 북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다. 작곡가 김순남, 이건우, 안기영 등과 시인 정지용과 같은 이들이 월북, 또는 납북되었으며, 이들의 작품들은 1988년 해금이 될 때까지 무대에 오를 수 없어 아까운 훌륭한 작품들이 잊혀져갔다. 이 전쟁기에는 〈이별의 노래〉, 〈사월의 노래〉, 〈명태〉, 〈떠나가는 배〉, 〈비목〉 같은 노래들이 작곡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가곡은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하기 시작한다. 전쟁 이후 많은 작곡가와 연주가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오면서 음악 내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문화 소비 계층이 늘어나면서 음악 외적으로도 팽창의 조건이 충족되기 시작한다. 대규모 연주장이 늘어나고 방송과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며 오케스

트라 반주와 함께하는 가곡 연주회와 음반 녹음이 많아졌다. 분단 상황이 고착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사회가 안정되자 음악도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심미성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게 되었다. 방송사의 정기적인 가곡의 밤 연주회가 늘어나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가곡을 사용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성악가나 가곡이 생겨나게 되었다. 베이스바리톤 오현명이 부른 〈명태〉, 테너 엄정행의 〈목련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가 드라마에서 부른 〈비목〉과 같은 곡들은 공전의 히트를 쳤다. 김연준, 최영섭 등 유명 작곡가가 쓴 〈청산에 살리라〉, 〈그리운 금강산〉 등의 애창곡류의 가곡이 인기를 끄는 와중에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으나 백병동, 정회갑 같은 작곡가는 조성이 확실하게 파괴된 무조의 실험적인 곡들을 내놓기도 하였다.

1988년은 한국 가곡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에 월북 예술가들의 작품이 해금이 되어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금기시되며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김순남, 이건우 등의 수준 높은 가곡들과 정지용으로 대표되는 월북 작가들의 시에 붙여진 가곡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선보여지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방송사 등에서 신작 가곡을 위촉하거나 경연 대회를 열어 새로운 가곡을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썼던 시기이다. 경연 대회를 통한 신인 작곡가가 나타나는가 하면, 신작 가곡 발표회에서 많은 작품들이 선보여지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중적인 행보와는 별도로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가곡을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 하려는 단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가곡은 사실 지금까지 학문의 대상이나 구현해야 할 예술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리며 삶에 위로를 주는 애창곡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런 기능도 당연히 담당해야 하지만 한국 가곡이 태어난 지 1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한국 가곡도 보다 예술성 높고 색체가 확실한 우리의 대표 문화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가곡을 단지 애창곡으로 부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그 발전을 모색하려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진지하고 실험적인 연구를 하려는 단체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방송이나 기업 등은 이벤트성 행사를 선호하는 상황이어서 속이 꽉 찬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든 이들이

힘을 합하여 한국 가곡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 가곡 연주

이날의 연주는 4개의 무대로 나뉘어져 총 10곡의 한국 가곡이 연주되었다. 연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연주자 : 소프라노 김혜선, 피아노 한방원

봉선화 홍난파 곡/김형준 시
바우고개 이흥렬 곡/이서향 시
고향 채동선 곡/정지용 시

신아리랑 김동진 곡/양명문 시
청산리 벽계수야 이영조 곡/황진이 시
고풍의상 윤이상 곡/조지훈 시

추억 백병동 곡/조병화 시
그를 꿈꾼 밤 김순남 곡/김소월 시

비목 장일남 곡/한명희 시
눈 김효근 곡/김효근 시

첫 번째 무대는 초기 한국 가곡이 어떤 단계를 거쳐 자라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3곡의 가곡으로 꾸며졌다. 첫 곡 〈봉선화〉는 이미 언급한 대로 최초의 한국 가곡이라 인정받는 곡이다. 단순한 선율에 찬송가풍의 반주부가 곁들여진 전형적인 유절가곡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 가곡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빈약한 반주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두 번째 곡 〈바우고개〉는 변형된 유절가곡으로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간의 변화를 준 선율의 유절가곡이지만 매 절마다 반주를 다르게 붙여서 변

화를 준 작품이다. 첫 무대의 마지막 곡 〈고향〉은 시를 쓴 정지용의 월북으로 금지곡이 되었던 곡이다. 1988년 해금이 되기 전까지 이 곡은 원 가사로 연주될 수 없는 처지였다. 금지곡이 된 이후 이은상의 시 《그리움》 혹은 박목월의 시 〈망향〉 등의 시에 붙여져서 연주되곤 하였다. 한 선율에 세 편의 가사가 있었던 셈이다. 곡은 유절가곡의 형태에서 벗어나 한 통으로 작곡된 통절가곡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전의 가곡들에 비해 성악가의 역량을 더 많이 요구하는 작품이다.

봉선화 https://www.youtube.com/watch?v=A4up8Ytyxek

바우고개 https://www.youtube.com/watch?v=W9KVsYfiF1o

고향 https://www.youtube.com/watch?v=-_NDDVzcOgU

두 번째 무대는 전통음악적 요소를 기본으로 작곡된 가곡 세 곡으로 구성되었다. 전통음악이라는 주재료가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첫 곡 〈신아리랑〉은 단순히 서양 노래에 아리랑을 소재로 쓰인 곡이다. 소재가 아리랑일 뿐 곡의 구성이나 진행은 전형적인 서양의 기법과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곡 〈청산리 벽계수야〉는 원래 황진이의 시조로 시조창으로 불리는 곡이다. 작곡가 이영조는 이 작품을 시조창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작곡했다. 반주만을 덧붙이고 노래의 선은 시조창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곡은 윤이상의 〈고풍의상〉이다. 이 곡은 윤이상 초기 작품으로 완성된 윤이상의 작품세계를 온전히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가 서양음악의 양식에 우리의 고전을 녹여내기 위해 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여러 형태의 시도들이 하나의 노래 안에 들어있어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전통적 재료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작곡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신아리랑 https://www.youtube.com/watch?v=Yx2Y32WBC0o

고풍의상 https://www.youtube.com/watch?v=QyPnrjdWe20

세 번째 무대는 조성에 머물지 않고 무조성의 현대적 어법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꾸몄다. 첫 곡은 백병동의 〈추억〉이다. 유명한 김성태, 최영섭의 곡들과는 달리 백병동은 이 곡에서 조성을 알아볼 수 없게 흔들어 놓은 상태의 곡으로 만들었다. 현대적 어법

의 음악들은 연주자에게나 청중에게나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만들지만 잘 만들어지고 잘 해석된 현대곡은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불편하지만은 않은 묘한 감동을 주곤 한다. 이어지는 김순남의 〈그를 꿈꾼 밤〉은 조성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불협화음의 불편함도 그리 크지 않은 곡이다. 현대곡의 낯선 느낌을 전통 어법과 절묘하게 섞어 놓아 현대적 기법과 전통적 재료의 융합의 가능성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곡이다.

그를 꿈꾼 밤 https://www.youtube.com/watch?v=W8qPZlhhyTI

마지막 무대는 애창 가곡이다. 인기투표를 하면 언제나 상위권에 오르는 곡들 중 오래 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비목〉과 1981년 MBC 방송국에서 개최한 대학가곡제 제1회 대상을 수상한 이래 온 국민의 애창 가곡이 된 〈눈〉을 연주하였다.

비목 https://www.youtube.com/watch?v=1joOoic2ycM

눈 https://www.youtube.com/watch?v=2H_6OYoZDbc

글쓴이 김혜선

글쓴이 김혜선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에서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썼고, 한국독일가곡연구회와 한국 슈베르트협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독일 가곡과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에서 다수의 독창회와 연주를 하며 독일 가곡과 한국 가곡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광순, 〈한국가곡사〉, 《음악연구》, 한국음악학회, 1987, p.15~40

김미영, 〈가곡에서 예술가곡으로〉, 《낭만음악》, 제9권 제1호, 1996, p.125

김미옥, 〈초기 한국가곡 양식사〉, 《음악과 민족》, 제32호, 2006, p.55~97

김용환, 〈'한국 최초의 예술가곡'에 관한 소고〉, 《음악과 민족》, 제20호, 2000, p.253~287

나진규, 《애창 한국가곡 해설》, 도서출판 태성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솔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양악편》, 두리미디어

〈서양음악의 수용과 아시아〉, 《낭만음악》, 제17권 4호, 2006, p. 99~138

박찬호, 《한국 가요사》, 안동림 역, 미지북스

박혜정, 〈서양음악의 전래와 수용〉, 《국악과 교육》, 제23집, 2005, p. 231~266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100년사》,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신영자, 〈한국가곡 형성과 발전에 미친 개신교 찬송가의 영향〉, 《음악연구》, 제43집, 2009

오현명. 《한국가곡의 연주와 해석》, 음악춘추

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재미있는 음악이야기 -빨간 머리 신부님, 비발디

조 윤 범
음악가

비발디 Antonio Vivaldi, 1678~1741 는 정말 유명하다. 인터넷에서 비발디를 검색창에 쳐보자. 원래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쳐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인지 나는 요즈음 밤마다 내 이름을 쳐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작곡가 비발디도 쳐 보게 된 것이다. 결과는… 수영장 사진과 함께 등장한 비발디 파크.

사실 비발디라는 이름이 붙은 상호는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집 근처에 '비발디 부킹 노래방'도 있으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놀러 오는 유원지 같은 곳에 유난히도 '비발디'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아마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언제든 놀러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비발디의 〈사계〉만큼 유명한 곡은 또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1. 빨간 머리 신부님

비발디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를 보자. 우리는 이 비발디의 얼굴을 보고 '클래식 음악계의 신정환 씨'라고 한다. 정말 닮았다. 그러나 사실은 앞모습만 비슷할 뿐, 옆모습에서 두 인물은 그다지 닮은 부분이 없다.

하얀색의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시대를 감안해볼 때 가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가발을 벗은 비발디는 붉은색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만화 〈빨간 머리 앤〉의 주인공을 능가할 정도로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색 때문에 그는 '빨간 머리 신부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잠깐만, '신부님'이라고? 그렇다. 비발디의 직업은 작곡가가 아니라 신부님이었던 것이다. 음악을 너무도 좋아했고 항상 작곡을 했던 성직자였다. 사람들은 성직자가 되면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분들도 매우 바쁘다고 한다. 비발디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바이올린과 작곡을 하기 위해 신부님을 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그의 행적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다. 문제는 그가 정작 해야 할 설교는 하지 않고 미사 시간에도 작곡을 했다는 점이다. 신자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디론가 사라진 그를 찾기 위해 수녀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정신없이 작곡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물론 신도들은 좋아했다. 이분의 설교가 어차피 지루했던 이유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우리들도 좋아할

멋진 곡들을 많이 만들어 들려주었으니 당시 사람들도 분명히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곱게 볼 리가 없었고, 결국 비발디는 자주 경고를 받는 신부가 되었다.

2. 지진과 함께 태어나다

그는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다 베네치아가 베니스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나는 한참 만에 알았다. 유명한 작곡가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전설의 영웅들처럼 탄생 설화를 가진 작곡가는 아마 비발디뿐일 것이다.

비발디는 지진과 함께 태어났다. 세상을 흔들며 태어난 것이다. 사실만을 적자면 비발디의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고 있다가 지진이 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진통을 느낀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비발디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는 지진과 함께 태어났다!" 다소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딘가?

3. 설교보다 음악에 열중하다

그러나 비발디의 체력은 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병약했다. 하지만 그러한 건강 상태 덕분에 비발디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15세에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는데, 실제로 성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비발디의 신앙심은 후세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다른 학생들처럼 합숙하며 지내는 대신, 그는 아프다는 핑계로 항상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바이올린 공부 말이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며 딴짓만 하는 학생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시켜 주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랄까.

비발디는 25세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제 엄연히 미사를 주관할 수 있는 신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주 미사를 포기했다. 그의 최대 무기인 '병약한 몸'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그는 소녀원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다. 틈나는 대로 연습을 열심히 한 덕에 비발디는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그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법률가이자 극작가였던 카를로 골도니 Carlo Goldoni,

1707~1793는 "비발디는 바이올리니스트로는 만점, 작곡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 사제로서는 빵점이다"라고 그를 비난했다. 예술가들은 원래 이런 비난에 쉽게 상처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살아가는 직업이기에, 조그마한 비평에도 활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낙천적이었던 비발디는 재치 있게 반격했다. "골도니는 험담가로서는 만점, 극작가로서는 그저 그런 편, 법률가로서는 빵점이다"라고. 말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소녀원에는 수녀 교육을 받는 아이, 음악 교육을 받는 아이, 일반 교육을 받는 아이 등 세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다. 이들이 모두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소녀원의 분위기는 좀처럼 통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발디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연주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집중시켰다. 통제하기 힘든 단체 생활을 음악을 통해 극복한 예는 요즈음에도 많이 볼 수 있다. 비발디도 당시에 이런 방법을 썼고, 그것은 자신에게도 커다란 득이 되었다.

영화 〈레드 바이올린〉에는 이런 분위기를 재현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소녀원이 아니라 소년원이었지만 당시의 이런 문화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영화 속에서 연주하는 음악은 현대 음악가이자 영화 음악 작곡가인 존 코릴리아노John Corigliano, 1938~가 만든 비발디풍의 음악이다. 이 영화에서 그 곡을 연주하는 아역 배우는 바이올린을 정말 잘 켠다. 실제로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Joshua Bell, 1967~ 이 연주한 것이지만, 이 아이도 그만큼 했을 것이다. 손만 봐도 알 수 있다.

비발디는 실제로 소녀원에서 매주 연주회를 열었다. 도대체 그들 교육에 뭐가 우선인지 논란이 많기도 했지만, 연주에 감동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사람들은 "소녀들의 연주가 놀랍다. 특히 그 단장은 직접 작곡까지 한다"라고 평했는데, 그 단장이 바로 비발디였다. 그는 소녀 오케스트라를 통해 자신이 작곡한 많은 곡들을 시험했고, 좋은 곡들은 출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조화의 영감〉이나 〈화성과 인벤션의 시도〉 같은 제목들이 나올 수밖에.

4. 코렐리의 〈라 폴리아 변주곡〉

그가 첫 번째 출판한 곡 〈12곡의 트리오 소나타〉 중 어떤 곡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음악 같다. 바이올린을 배우는 아이들이 항상 고생하는 아르칸젤로 코렐리Arcangelo

Corelli, 1653~1713 의 〈라 폴리아〉와 상당히 흡사하다. 표절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가 그 곡의 선율로 다시 만든 변주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그렇게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원곡인 코렐리의 〈라 폴리아 변주곡〉은 오래된 춤곡 중 하나로, 같은 화음에서 멜로디가 계속 변형되는 곡이다. 이 곡은 유명한《스즈키 바이올린 교본》6권에 나온다. 갑자기 이 곡에서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 곡을 연주하다가 바이올린을 그만둔다. 이 곡은 그렇게 전 세계 바이올리니스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공헌한 곡이다. 만일 당신의 아이가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면, 지금 〈라 폴리아〉를 배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5. 화성의 노인

비발디가 세 번째 출판한 곡은 〈조화의 영감靈感〉이다. 원제는 'L'estro Armonico'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조화의 기쁨', '화성和聲의 기쁨' 혹은 '화성의 영감'이라고도 불렀다. 어떤 멋진 화음의 진행을 듣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작곡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화성火星의 노인', 즉 'Old Man from Mars'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12곡을 한 권으로 묶어서 내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 곡 역시 열두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되어 있다.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은 후세에 등장한 말러 Gustav Mahler, 1860~1911 의 교향곡처럼 엄청나게 긴 곡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곡의 단일 악보는 세워 놓으면 쓰러질 정도로 너무 얇았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원했던 것이다.

서울 사람들이라면 그중 여섯 번째 곡 Op.3-6을 '환승 협주곡'이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 왜냐하면 환승역이나 종점에서 이 음악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곡은 유명한 바이올린 교본인《스즈키 바이올린 교본》4권에서 중급 난이도로 배우는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다. 주위에는 이 곡을 어릴 때 연주해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이 아직 6권의 〈라 폴리아〉를 만나서 바이올린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비발디가 잊힐 때쯤 이 곡의 악보를 접하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였다. 바흐의 음악 중에는 비발

디의 곡을 오르간으로 편곡한 작품들이 많다. 바흐가 아니었다면 비발디는 역사 속에 묻혔을지 모르고, 바흐 역시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 이 아니었다면 잊혔을 수도 있다. 후배 작곡가들의 역할에서는 분명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6. 악보의 진화

비발디는 네덜란드에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한다. 물론 비발디는 클래식 음악의 원산지나 마찬가지인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악보 인쇄술은 네덜란드가 훨씬 우수했기 때문이다. 예전엔 보기 어려웠던 악보들이 이제 깔끔한 악보로 진화를 끝낸 시기가 바로 바로크 시대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높은음자리표 같은 기호들도 처음부터 그 모양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을 기억하는가? 어느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라고. '뭐, 어디서부터 그리면 어떤가? 누구나 알아볼 텐데.' 이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기호를 그렇게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선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음표가 걸려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솔'이라고 부른다.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음계들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이름을 붙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라마바사가나다', 영어권에서는 'CDEFGABC'다. '솔'은 곧 G다. 높은음자리표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G'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 기호가 바로 G 자다.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는 가온음자리표도 한번 보자. 그 기호를 알파벳과 연관시켜 보면 마치 'B'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C'이다. 그 표시의 의미는 세 번째 줄이 'C', 즉 '도'라는 얘기이다.

피아노의 왼손이나 첼로가 연주하는 낮은음자리표를 보자. 활처럼 휘어진 모양은 어디쯤 그리나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옆의 점 두 개는 정확히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사이에 두고 찍어야 한다. 그 줄은 바로 '파', 즉 'F'이다. 낮은음자리표 모양에서는 쉽게 그 글자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훨씬 다양한 진화 과정을 거친 끝에 오늘날의 모양이 되었다.

7. 열광하는 클래식

Op.4 〈열광〉도 역시 열두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집이다. 그중 아홉 번째 곡은 라디오 시그널로도 자주 사용되었던 신나는 곡이다. 나중에 말러의 교향곡에서도 그런 비슷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다. 아마도 비발디를 인용한 듯하다 이건 내 생각이다. '열광'이라는 제목은 참 멋지다. 그래, 우리도 클래식 음악을 듣고 열광할 수 있을 것이다! 콘서트장에서 헤드뱅잉을 하듯이.

교사에서 악장으로 승진한 비발디는 소녀원과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종교 예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 이 시기부터 여러 종교 음악들을 만든다. 오라토리오 〈유디트의 승리〉는 아시리아의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 온 유디트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강인하면서도 잔인한 이미지의 유디트는 음악보다도 미술에서 훨씬 많이 다루어졌다. 그녀를 주제로 한 그림들 중에는 정말로 끔찍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모두가 좋아하는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1862~1918 의 작품 〈유디트〉도 그녀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그 작품을 보면서도 의외로 그림 아래쪽에 있는 머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쨌거나 〈유디트의 승리〉에서 트럼펫은 아주 고음으로 등장하는데 연주하기 매우 까다롭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연주자는 트럼페터였는데, 이렇게 고음으로 멋진 소리를 내면 항상 오빠부대가 소리를 질렀다.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다.

8. 사랑에 빠진 신부님

말썽 많은 신부지만 비발디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교황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추기경도 그를 후원했다. 그러면 좀 성실히 신부의 직책에 충실해야 할 텐데 그는 더 큰 말썽을 일으켰다. 합창단원 안나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신부님이 말이다! 안나는 비발디가 지휘하는 합창단의 단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애한다는 소문으로도 그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비발디 담당 간호사의 언니였고 그 핑계로 자매는 신부님의 집에 드나들기까지 했다.

사태가 이러하니 교황청에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다. 수차례 그에게 경고를 했고, 비발디는 한술 더 떠서 설교하는 일을 거부했다. 결국 교황청은 비발디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발디는 그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징계랄 것도 없는 것이, '얼마 동안 특정 지역에서 미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비발디에게는 오히려 더 다행이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 시기에 수많은 음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원한 히트곡 〈사계〉도 그중 하나이다. 〈봄〉을 들으면 느껴지지 않는가?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이.

9. 열두 곡 중의 네 곡

그는 〈화성과 인벤션의 시도〉라는, 바이올린 협주곡 열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기법들로 가득 찬 악보를 발표한다. 그중엔 재미있는 제목의 곡들이 여러 개 있다. 5번 〈바다의 폭풍〉, 6번 〈기쁨〉, 10번 〈사냥〉…. 하지만 이 곡들은 오늘날 거의 연주되지 않는다. 왜일까?

이유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뒤의 곡들보다 훨씬 유명한 곡들이기 때문이다. 이 곡들의 제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렇다. 〈사계〉는 바로 〈화성과 인벤션의 시도〉라는 작품집의 일부이다. 맨 앞에 이 곡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 연주하는 것이다. 만약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아무리 길어도 전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명한 곡들이 나오기 때문에 뒤의 곡들은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고, 관객들 역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또 〈사계〉와 비슷한 멜로디들이 뒤의 곡들에서는 너무 자주 나온다. 6번 〈기쁨〉이라는 곡은 〈봄〉의 1악장과 매우 흡사하다. 오죽하면 20세기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Igor Fedorovich Stravinsky, 1882~1971는 "비발디는 똑같은 곡을 100곡 이상 작곡한 사람"이라고 놀리기까지 했겠는가. 〈바람의 속삭임에〉라는 합창곡이 있는데 이 곡 역시 〈봄〉과 거의 똑같을 정도다. 오늘날 이 곡들은 잘 공연되지 않는다. 민망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들 모두가 〈사계〉가 아니냐고 할 테니.

10. 부활

한동안 잊혔던 비발디의 〈사계〉는 역사적인 녹음들로 다시 부활했다. 이탈리아의 음악

원 졸업생들로 구성된 한 합주단이 이 곡으로 데뷔했는데, '이 무지치I Musici'라는 이름의 그 합주단이 낸 음반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록되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또 1990년대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로커처럼 옷을 입은 나이젤 케네디Nigel Kennedy, 1956~ 라는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사계〉를 녹음했다. 그가 모델로 나온 표지의 음반은 불티나게 팔렸다. 물론 음악도 매우 혁신적이었다. 당시의 평론가들은 그를 '나쁜 녀석Bad Boy'이라고 표현하며 그를 클래식계의 이단아로 못 박았다. 사실 그는 이단아도 아니었고 당시 나이로 보아 Boy도 아니었다. 어쨌든 그 음반은 역사적인 음반이 되어 버렸고, 요즘에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다. 대신 시대가 발전해 그의 콘서트 실황을 DVD로 볼 수 있다.

11. 독특한 제목들

45세 즈음에 여행을 하던 중 비발디는 초상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그림이 비발디와 가장 닮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해 보자. 역시 신정환 씨와 닮지는 않았다.

Op.9 〈라 체트라〉 같은 곡들도 있는데 음악이 옛날 하프의 전신이었던 '체트라'라는 악기를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 Op.10은 바이올린 협주곡이 아니라 플루트 협주곡들을 모은 악보집인데, 신나고 재미있는 곡들이 많이 들어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도 써먹었던 제목의 작품 〈바다의 폭풍〉, 아름답고 느린 〈밤〉을 들어 보면 플루트가 참 잘 어울린다. 더 잘 어울리는 것은 〈황금방울새〉와 같은 곡이다. 이 곡에서의 플루트 소리는 정말 새소리 같다.

다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돌아온 그는 〈열정〉이라는 악보집을 출판한다. 이 악보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인간의 감정들을 표현한 곡으로 '좋아하는 것', '불안', '사랑에 빠진 자'와 같은 재미있는 제목들이 붙어 있다. 하지만 막상 들어 보면 제목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곡들이다. 좀 억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주관적인 것이구나 싶기도 하다.

12. 사랑과 바꾼 베네치아

계속해서 신부로서의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작곡만 하던 비발디는 소녀원에서의 직책

도 잃고 교황청으로부터도 점점 더 심한 압박에 시달린다. 화가 난 비발디는 이제 고향 베네치아에서 큰 연주를 기획한다. 자신의 예술성을 과시하고 떠나려는 것이다.

51세에 그는 〈드레스덴 협주곡〉이라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걸작을 고향에서 발표한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곡들이 연주되었고, 사람들은 떠나는 그를 아쉬워했다. 그는 그 무대를 뒤로 하고 빈으로 갈 계획이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칼 6세가 자신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간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는 "사랑과 베네치아를 바꿨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만일 그 시대에 전화나 휴대폰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발디가 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칼 6세는 사망한 뒤였다.

후원자를 찾지 못한 비발디는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자신이 평생 모았던 돈을 모두 탕진한 후였다. 나도 그렇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비발디 역시 씀씀이가 헤펐던 것이다. 사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예술가는 별로 없다 우리는 남들이 아무리 말린다 해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비발디의 장례식 때는 소년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불렀고 그중에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그는 훗날 '교향곡의 아버지'가 된다.





조윤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살림

글쓴이 조윤범

글쓴이 조윤범은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대중과의 소통 능력, 틀을 깨는 상상력과 기획력으로 클래식 음악계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칼럼 기고와 강의, 웹디자인, 악보 편집, 편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음악과 방송, 출판 분야를 종횡무진 오가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이다. 2005년부터 2년 동안 한국일보에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칼럼을 기고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극동아트TV 전 예당아트TV 에서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쓴 책이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1 · 2권이다. CBS 음악FM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DJ로도 활약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재미있는 음악이야기 -빨간 머리 신부님, 비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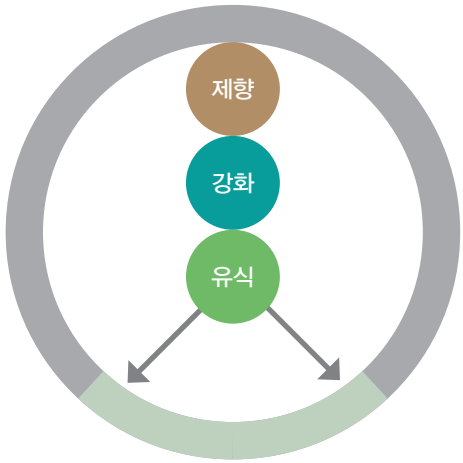
조선 시대 지성들의 요람, 서원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서원書院은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사림士林 계층이 16세기 말부터 그들 활동의 근거지로 향촌에 건립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이다. 사림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전인全人 교육을 하기 위해 서원을 건립하였다. 사림들의 '전인 교육'이란 성리학에 입각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서원에서 사림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핵심은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에 있다. '장수'는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것을 뜻하고, '유식'이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자연을 흠상하고 즐기면서 정신과 마음을 풀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사림들은 서원에 사우祠宇를 세워 돌아가신 스승인 선현先賢에게 제향을 올리며 선현의 학덕을 본받아 올바르게 살아갈 방향을 다짐하고, 강당에서 행하는 경서經書 강독을 통하여 지식을 몸으로 실천할 방법을 터득하였으며, 누樓에서는 유식遊息을 하는 등의 전인 교육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서원은 반드시 강학과 제향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서원 공간 구성 개념도

조선 시대 서원 건축은 또한 성리학자들의 우주론적 인식 및 인성론의 근간을 이루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천일합일사상은 인간이 자연과 천명에 순응하려는 사상으로 집약된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覺悟을 통하여 자연이 운행하는 원리道와 감통感通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 정신적으로 최대의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천인합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자연과 인간은 둘이면서 하나로 파악될 때 가능하다.

성리학자들은 서원에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장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국의 서원은 장수를 위한 학습 공간으로 유식, 강학, 제향을 위한 독특한 공간 형식을 갖추고 있다. 유식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 강학은 경서를 통해, 제향은 스승으로 삼은 선현의 학덕을 기리는 것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었다.

서원이 한적하고 산수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한 터는 경사지이거나 앞이 트인 평지이다.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서원이 자리 잡은 것은 단지 성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서 체계에 의한 자연의 운행을 인간 행위의 모범으로 삼아, 자연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했던 천인합일사상의 반영이었다. 강학과 제향이 그랬듯이, 서원의 입지와 경관 역시 성리학이 지향하는 인성人性의 형성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원에 확보된 산수 경관은 곧 성리학적 교육 경관, 즉 서원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성리학자들이 인격 완성을 위해 행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들은 산수山水가 좋은 곳에서 조용히 탐독하는 경서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그들이 스승으로 삼는 선현의 학덕과 사우에서 제향하는 예禮를 통해서도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사림들은 한적하며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서 유식할 수 있는 공간, 강학할 수 있는 공간, 제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서원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조선 시대의 서원은 유식, 강학, 제향을 통해 학습을 하는 장수의 공간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건축 형식을 갖추었다. 서원 공간은 크게 삼단으로 나뉘어 제일 뒤에 제향 공간, 그 앞에 강학 공간, 제일 앞에 유식 공간을 두었다. 서원에서 유식 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이 항상 자연과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유식 공간과 강학 공간을 제향 공간의 앞부분에 배치한 것은 유생들의 드나듦이 많아 항상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향 공간을 가장 뒷부분에 둔 것은 유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그곳이 항상 존엄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함이다.



유식, 강학, 제향 공간이
엄정하게 배치된 도동서원

조선 시대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1495~1554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효시로 삼는다. 백운동서원은 퇴계 이황1501~1570의 노력으로 1550년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음으로써, 한국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건립되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숲이 우거진 언덕과 계류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한 소수서원

서원이 세워질 장소로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환경은 서원의 사우에 주향으로 모신 선현의 자취와 유풍이 남아 있는 곳, 즉 연고지이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한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이 된다.

예를 들어, 영주 소수서원은 성리학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안향의 고향인 순흥의 백운동에 건립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함양 남계서원은 정여창의 출생지에 마련한 것이고, 경주 옥산서원은 이언적이 낙향하여 머문 독락당에서 가까운 곳에 세웠고, 안동 도산서원은 이황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한 도산서당에서 시작하였고, 장성 필암서원은 김인후의 낙향과 강학에서 비롯한 것이고, 달성 도동서원은 김굉필의 낙향이 유서가 되고, 안동 병산서원은 고려 말 풍산 류씨의 교육처인 풍악서당이 유서가 된 것이고, 정읍 무성서원은 최치원의 생사우生祠宇와 흥학당이 유서가 된 것이고, 논산 돈암서원은 김장생이 강학한 양성당이 유서가 된 것이다.



필암서원 강학 공간

서원이 세워진 곳의 산수는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보는 산수가 아니라, 선현이 성리학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곳이었기 때문에 연고지의 산수 자체는 이미 서원 유생들에게 충분히 학습의 효과를 확보한 곳이다. 서원의 누에 올라 주변의 산수를 보면서 유생들이 보고 느꼈던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산수 자체를 흠상하는 일에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서원의 사우에 신위로 모신 스승의 학덕과 기상으로 연결된 것이었다. 서원의 경관은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선현의 연고지에서 후학이 그 땅의 산수를 보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곳과 연고가 있는 선현의 학덕을 본받는 데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찾은 터의 입지 조건은 장수를 위한 자연 · 인문 환경으로 집약된다.

서원의 입지, 공간구성 및 건물 배치는 주변의 산수와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서원이 그 터에 앉혀짐으로써 주변 산수 경관은 건축과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장소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요약하면, 서원은 주변 자연 경관과 건축을 묶어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유형에 속한다.



자연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연출하는 병산서원

서원들 중에는 도산서원이나 필암서원, 병산서원 등과 같이 주요 건물들이 남향을 하여 배치된 서원들도 있지만, 주변의 산수 및 지형 지세를 고려하여 굳이 남향을 취하지 않은 서원들도 있다.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남계서원은 서향을 하며 앞으로 펼쳐진 들판과 강을 건너 맞은편 백암산을 대하고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 중요한 건물들이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서쪽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어 주변 산수 및 지형지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동서원의 중심 건물들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여 자리를 잡았다.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함으로써 서원이 자연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언적이 학문한 곳에 세워진
옥산서원 전경

이상 언급한 것을 요약하면, 서원은 서원이 세워진 그 땅의 산수 경관을 최대한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원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건축,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과 자연이 상호 관입하여 하나가 되는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을 탄생시킨 바탕에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학문의 방법론으로 삼고, 천인합일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이 있었다.

이렇게 세워진 서원 건축은 성리학의 가르침에 의하여 엄격하고 질서 있게 배치되었다. 또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영되어 성리학적 가치관을 건축 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시켜 승화시키고 있다. 서원을 경영한 사림들은 당대의 지배 계층으로서 재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고의 건축을 조영 할 수도 있었지만, 서원의 규모는 크지 않고 건물들은 담담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건축 특성은 절제되고 검박한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이 서원 건축이다.

글쓴이 이상해

글쓴이 이상해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M.Arch.와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와 매장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 서울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자문위원,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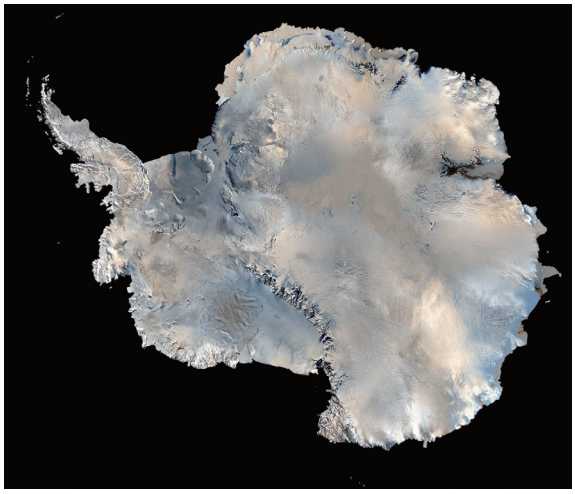
이상해, 《서원》, 열화당

참고문헌

이상해, 《서원》, 열화당
정만조, 《조선 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고문서로 읽는 조선조 교육의 역사와 풍속》, 태학사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극지, 세상 끝에서 본 지구

장 순 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원



얼음과 눈이 덮인 남극대륙 미국 NASA 제공

1. 남극의 발견과 탐험

그리스인들이 2500년 전부터 "남쪽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대륙 Terra Australis Incognita"이라고 상상만 했던 남극을 영국 선장 윌리엄 스미스가 1819년 우연히 발견했다. 발견 직후에는 남극물개 사냥터가 되었고 이들은 거의 멸종이 될 정도로 남획을 당했다. 이 무렵부터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미국의 나다니엘 파머, 영국의 제임스 웨델이 남극을 탐험했다. 얼마 후에는 미국의 찰스 윌크스, 프랑스의 뒤몽 뒤르빌, 영국의 제임스 클라크 로스가 남극을 탐험했으며 코끼리해표가 잡히기 시작했다가 살아남게 되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노르웨이 칼 라르센과 헨릭 불, 벨기에의 아드리엔 겔라쉬, 스웨덴의 오토 노르덴스쾰드, 프랑스 쟝 샤르꼬 같은 유명한 탐험가들이 남극의 바다와 해안을 탐험했다. 이후 1911년과 1912년에 걸쳐 노르웨이 로알 아문센과 영국의 로버트 스콧이 남극점 도달 경쟁을 벌인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남극점 도달 이후에도 남극 탐험은 계속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다글라스 모슨은 동료 두 사람이 죽은 뒤 혼자 160킬로미터를 걸어 단독 생존했다. 영국의 어네스트 섀클턴은 남극대륙을 종단 하려다가 탐험선이 얼음에 갇혀 침몰되었지만 모두 살아남아 단체 생존을 기록했다. 미국의 리처드 버드는 1929년 11월 비행기로 남극점을 처음 정복했으며 영국의 비비안 훅스는 1955년부터 1958년에 걸쳐 남극대륙을 처음으로 종단했다.

2. 남극의 자연환경

남극대륙을 덮는 얼음은 천천히 흘러 바다로 들어가며 남극대륙 주위 상당한 지역에는 연중 얼어있는 두꺼운 얼음판인 빙붕氷棚이 발달한다 대륙에서 흘러내리는 얼음에는 깊은 틈인 크레바스가 생겨 탐험에 큰 장애가 된다. 빙붕을 포함한 남극은 한반도의 62배, 중국의 1.4배가 넘는 광대한 대륙으로 지구육지면적의 9.2%를 차지한다.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넓으며 평균높이는 2500미터로 대륙 가운데 가장 높다. 그 넓고 높은 대륙의 거의 전부는 평균두께 2160미터의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만약 이 얼음이 다 녹는다면 전 세계의 바다는 60미터 이상 높아진다.

남극대륙은 땅이 높고 태양의 고도가 낮아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을 얼음과 눈이 거의 반사시킨다. 게다가 남극대륙을 둘러싸는 방대한 남빙양은 서풍피류西風皮流를 만들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북쪽의 따뜻한 영향을 막는다. 따라서 남극은 북극보다 기온이 더 낮다. 예컨대, 러시아 보스토크기지에서 1983년 7월 남극대륙에서 측정된 가장 낮은 온도인 -89.2℃가 측정되었다. 연평균온도가 -55.4℃인 이 기지는 높이가 3488미터로 산소가 해면의 60% 정도밖에 없어 사람이 뛸 수 없다. 남극이라고 모두 춥지는 않아, 내륙 고원지대인 대륙성 남극은 추워도 남극반도 일대와 대륙의 해안지방은 해양성 남극으로 그렇게 춥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세종기지의 연평균 기온은 -1.7℃이며 최저기온은 -25.6℃로 그렇게 낮지 않다. 그러나 바람이 세어 체감온도가 상당하다. 또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월평균기온이 영상으로, 비가 오고 물이 흐른다 물론 세종기지보다 더 따뜻한 기지도 있다.

남극에 나무는 없으며 고등식물은 두 종이 있으며 대부분은 지의류와 이끼이다. 지의류와 이끼는 생장속도가 아주 느리다. 남극물개와 코끼리해표와 표범해표를 비롯한 포유동물들이 있고 황제펭귄을 비롯한 새가 50종 넘게 있다. 남극에서 번식하는 펭귄은 5종이며 남극 바로 북쪽 아남극亞南極에서 번식하는 펭귄 두 종을 넣어 7종이 번식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극 동물들은 동물플랑크톤인 크릴을 먹이로 한다.

남극은 지질시대에는 곤드와나대륙의 일부였다. 다른 대륙들은 멀리 이동했으나 남극대륙은 크게 이동하지 않았다. 약 3천만 년 전 남극반도가 남아메리카와 분리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지리와 해류가 형성되었다. 남극에는 활화산과 온천이 있고 얼음 아래에는 철과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있으며 해저에는 탄화수소자원이 있다.

3. 남극과 국제사회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극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7년 7월부터 1958년 12월에 걸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GY에는 12개국이 60개의 기지를 남극에 지으면서 남극의 대기와 빙하와 지자기를 비롯한 남극의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조사했다. 이때 남극점을 비롯한 여러 곳에 기지가 건설되었다. 이후에 남극조약이 태동되었고 1961년 5월에 발효되었다. 남극조약에서는 남극에서는 평화로운 목적으로 과학연구만 하며 일체의 군사행동이나 핵을 사용하지 못하며 그 전에 7개국이 주장했던 영유권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남극조약 발효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이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나아가 남극의 환경과 생물을 보호하는 협약들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남극에 있는 지하자원 가운데 석유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없으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으로 시험 개발이라 하더라도 2048년까지는 금지되어 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은 남극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남극을 실제로 연구하는 나라들을 말한다. 이 나라들만이 남극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현재 남극조약에는 50개국이 가입했으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8개국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다.

4.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처음으로 1978년부터 남극의 크릴을 시험 삼아 어획하고 남빙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가 우리나라가 남극을 연구하기 시작한 효시이다. 지금은 크릴도 잡지만 맛있는 물고기인 파타고니아이빨고기 메로를 잡는다. 1985년 11~12월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윤석순 이 한국남극관측탐험을 주관해서 남극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 4807미터를 등정했으며 킹조지 섬을 탐험했다 이 탐험이 우리나라가 남극의 대륙을 처음 탐험한 기록이다. 그전까지는 남빙양 바다만 탐험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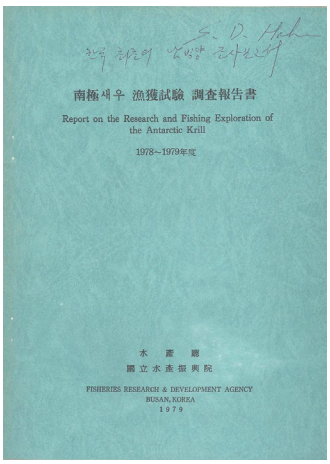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에 남극조약에 가입했으며 1987년 1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결정으로 남극과학기지건설이 결정되었다. 현대건설이 건설자로 결정되었으며 그해 4~5월에는 킹조지 섬에서 후보지 답사가 있었고 1987년 12월 16일 현장에서 기공식을 했다. 세종기지는 1988년 2월 17일 준공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매년 대한민국남극과학연구단을 조직해 남빙양과 남극대륙의 대기와 고층 대기, 지질과 지구물리, 남빙양의

일반 해양과 해양생물을 연구해왔으며 2006년부터 얼음과 운석 연구를 시작했다. 남극을 연구하는 목적은 남극대륙 자체의 과학현상을 규명하고 남극과 지구환경을 보호할 기초 자료의 획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극에도 관심을 가져 2002년 4월에는 스피츠베르겐 섬 과학촌인 뉘-올레순에 다산기지를 설립했다. 북극기지는 남극기지와 달리 건물을 임대하고 물, 가스 전기를 노르웨이 회사가 공급하며 식사도 식당에서 한다.

2002년 7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기안한 '극지과학 기술개발계획'에 김대중 대통령이 재가해서, 쇄빙선을 건조하고 극지 연구를 전담할 연구소를 설립하고 남극대륙에 기지를 건설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남극대륙은 쇄빙선 없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해양연구기관의 일부 부서로는 극지 연구를 효과 있게 수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남극대륙 자체를 연구할 기지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계획은 극지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었다.

우리나라가 남극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 큰 일이 없었지만, 2003년 12월 7일 제17차 월동연구대원이었던 전재규 대원이 남극에서 희생되는 비극이 있었다. 이후 극지 연구소가 2004년 4월 16일 당시 한국해양기술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쇄빙선이 취항했으며 2012년 2월에는 장보고기지가 남극대륙에 준공되어 명실공히 남극대륙을 연구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남극대륙 내부에 남극대륙을 덮는 빙원과 대륙 내부의 현상을 연구할 내륙內陸 기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南極세우 漁獲試驗 調査報告書
Report on the Research and Fishing Exploration of the Antarctic Krill
1978~1979年度
水 產 廳
國立水產振興院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AGENCY
BUSAN, KOREA
1979

우리나라 1차 남극연구활동 보고서 한상복 박사 제공



세종기지 전경
제22차 월동연구대 진영근대장 제공



세종기지 겨울의 여명
제19차 월동연구대 고경남 제공

글쓴이 장순근

글쓴이 장순근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프랑스 보르도 1대학교에서 미고생물학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세종기지 건설과 남극 연구에 앞장선 공로로 1986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비글호 항해기》를 번역하여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2009년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도서 부문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장순근 박사가 들려주는 바다 쓰레기의 비밀》, 《남극은 왜?》, 《가자! 신비한 남극과 북극을 찾아서》, 《화석은 살아 있다》, 《사라진 동물들의 비밀》 등이 있고, 《로빈슨 크루소》를 번역했다.

참고문헌

장순근, 《남극 탐험의 꿈》, 사이언스북스
장순근, 《남극 세종기지의 자연환경》,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312
장순근, 《남극은 왜?》, 지성사, p.231
장순근, 《북극 척치 해를 가다》, 지성사, p.302
장순근, 이재학, 《극지와 인간》, 극지연구소, p.249

하늘에 길을 묻다

박 석 재
천문학자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하늘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오죽하면 '개천절', 즉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공휴일까지 가지고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하늘을 숭앙한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천체를 상징으로 만들어진 국기는 꽤 많다. 예컨대 우리 이웃인 일본의 국기는 해를 상징하고 있고 중국의 국기는 다섯 개의 별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태극기는 세계의 수많은 국기 중 유일하게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외국인들은 초현대식 빌딩을 짓고 나서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다 아니다 논하기에 앞서,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온 '제천행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늘에 빌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다. 남들이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 일컬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우리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태극기가 5500이나 됐다는 사실은 알고들 있을까? 하늘의 자손은 하늘을 잊은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가 다민족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 우리 조상이나 민족을 거론하기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합중국은 아니지 않은가. 세계화 시대 개방과 포용은 수용하더라도 '민족정신'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치가 냄새가 나면 외국인들 앞에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모두 먹게 만드는 것이 세계화의 방향이다. 정체성을 잃고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면 우리는 유랑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정신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의 민족정신이 무엇이냐고 물어온 외국인의 질문에 무척 당황한 적이 있었다. 질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3·1운동 정신, 새마을 정신, 홍익인간 정신, 충무 정신… 어느 것 하나 나의 가슴을 진정으로 채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내에서 대학까지 나온 내가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 것이 한심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었다. 나는 같은 질문을 주위의 한국인들에게 수없이 던져 봤지만 시원스럽게 들리는 대답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고 민족정신은 하늘

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하늘의 섭리를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부르며 추앙했다. 사극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군가. 천문을 보고 천기를 누설하는 도인 아닌가. '천벌'을 두려워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가난한 선비'가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하늘의 자손은 역사도 대단하다. 학창시절 배운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부터 고구려가 건국된 BC 37년까지는 내용이 거의 없는 '블랙홀'이다. 따라서 만일 고조선이 신화의 나라에 불과하다면 우리 역사는 2천 년밖에 안 된다. 일본 역사보다도 짧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의 블랙홀 한복판에 천문관측 기록이 있다. 《환단고기》의 '무진오십년 오성취루'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무진오십년'은 BC 1733년을 말하고 '오성'은 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을 말한다. '취'는 모인다는 뜻이고 '루'는 동양 별자리의 하나이다. 즉 이 문장은 'BC 1733년 오성이 루 주위에 모였다' 같이 해석된다.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BC 1734년 7월 중순 저녁 서쪽 하늘에 화성·수성·토성·목성·금성 순서로 오성이 늘어선다. 오차가 1년 있기는 하지만 4천 년 전 일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오성취루'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사실은 오성이 실제로 모였고 《환단고기》의 기록이 옳다는 것이다. 천문기록을 남긴 고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개천절은 왜 10월 3일인가. 이것 또한 '개천 1565년 10월 3일 왕검을 단군으로 추대했다' 같이 요약되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개천 1년에는 환웅의 배달국 건국이, '진짜 개천'이 있었다는 뜻이다. 개천절에 '진짜 개천'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국의 역사 1565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다. 태극기를 만든 태호복희나 민족의 수호신 치우천황은 모두 배달국 사람이다. 배달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악마' 또한 중국 응원단이 되는 것이다. 환웅이 풍백·우사·운사 세 신하와 3천 명의 천손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것이 '진짜 개천'의 모습이다.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같은 지손地孫은 환웅에게 천손天孫이 되고 싶다고 간청했다. 환웅이 쑥·마늘을 먹으며 수양할 것을 요구하자 호랑이 부족은 포기했다. 하지만 곰 부족은 이를 완수해 여왕은 환웅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린다…. 천손이 지손을 교화하는 장면이다. 천손의 당당함으로 부터 우리 민족의 '선민사상'을 느낄 수 있다.이것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배달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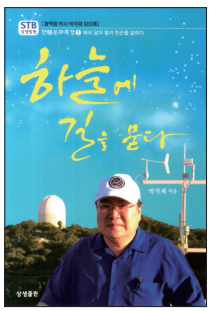
개국 이념 홍익이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천손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홍익인 것이다.

앞에서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물어온 외국인의 질문에 무척 당황한 적이 있다고 적었는데, 대한민국의 개국 이념이 개천사상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천사상이라는 국민정신이 흔들리면 세계화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사상과 종교를 혼돈하면 안 된다. 교회, 도장, 사원, 성당, 절… 어디를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천사상을 공부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혼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는 '가장 못난 후손'이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식민사학에 의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로 둔갑했고, 그 결과 하늘의 자손 천손은 곰의 자손 웅손이 됐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 교포처럼 언행을 해야 대접을 받는 희한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애국을 얘기하면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다. 이렇게 국혼이 흔들리고 이념으로, 종교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빈부로…. 사분오열된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박석재, 《하늘에 길을 묻다》, 상생출판

글쓴이 박석재

글쓴이 박석재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블랙홀 천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천손사상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천재로 알려진 송유근 군의 멘토이기도 하다. 다수의 천문학 서적과 소설을 집필하는 등 천문학 대중화에 헌신했다. 저서로는 《블랙홀이 불쑥불쑥》,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원리》, 《별과 은하와 우주가 진화하는 원리》, 《아인슈타인과 호킹의 블랙홀》, 《블랙홀 박사의 우주 이야기》, 《개천기》, 《하늘에 길을 묻다》 등이 있다.

출판도시 탐방

출판도시 책방거리 따라걷기

출판도시에는 북카페와 헌책방, 갤러리, 생태 박물관 등 책읽는 즐거움이 가득한 50여 개의 다양한 문화 공간이 모인 책방거리가 있습니다. 특색 있는 건축물 사이사이 둥지를 튼 이들 문화 공간들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독자들을 즐겁게 합니다. 전시, 공연, 인문학 강연 등 출판도시 문화 공간에서 직접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일정도 미리 체크해 보세요.

www.pajubookcity.org



식당
쇼핑몰
영화관
숙박시설
자전거 보관
무료 순환버스 노선

| 운영 시간 및 입장료는 각 문화 공간의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지혜의숲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판도시 행사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출판도시 무료 순환버스 운영 시간은 홈페이지(www.pajubookcity.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방



국민서관 책놀이방
070-4330-7865
10:00~18:00 주중휴무



동화책향기
031-955-4211
09: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리북어울림 Kids & Play 영어책방
031-955-6451
10:00~18:00 설날 휴무



문공사 블루래빗
031-955-4123
10: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범우 책사랑
031-955-6900
10:00~17:30 일요일 · 공휴일 휴무



비룡소 까멜레옹
031-955-4318
10:00~18:00 명절 휴무



사계절 책향기가 나는 집
031-955-8597
10:30~17:30 명절 휴무



삼성비엔씨 흙마당 책방
031-955-2399
10: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시공사 네버랜드(SBG)
031-955-7139
10:00~17:00 명절 휴무



중앙입시교육원 북스토어
031-955-2494
10:00~18:00 공휴일 휴무



지식산업사 흥부네사랑방
031-955-4226
09:00~16:00 주말 · 공휴일 휴무



파주출판도시 홍보관 북샵
031-955-4386
10:00~18:00 하절기 09:00 오픈



U-Book 출판도시문고
031-955-5300
11:00~19:00 주말 20:00까지



책방 한길
031-955-2060
11:00~19:00 주중 12:00~18:00,
월요일 · 명절 휴무

헌책방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보물섬
031-955-0077
11:00~18:00
일요일 13:00 오픈, 공휴일 휴무



이가고서점
031-955-7020
10:00~17:00 주말 휴무



문발리헌책방골목/북카페 · 소극장 블루박스
031-955-7440
10:00~19:00 명절 휴무

숙박 • 이벤트장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031-955-0090

북숍+북카페



길벗어린이 책소풍
031-955-3279
10:00~17:30 명절 휴무



김영사 행복한 마음
031-955-3155
10:00~17:30 명절 휴무



다락원 북카페
02-736-2031 내선 888
09: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돌베개 행간과 여백
031-955-5029,
10:00~19:00 명절 휴무



라플로르
070-7516-1600
08:00~19:00



마로니에북스 타센아트북카페
031-955-4919
10: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보리 | 보리책방
031-950-9590
10:00~17:30 명절 휴무



보리 | 보리와 철새 북카페
031-950-9555
10:00~19:00 명절 휴무



살림 앨리스하우스
031-955-4660
10:00~18:00 명절 휴무



시소 책사랑
031-955-0611
10:00~18:00 명절 휴무



효형출판 | 효형책방
031-955-7621
10:00~18:00 월요일 휴무



효형출판 | 북카페 눈
031-955-7620
10:00~19:00 하절기 20:00까지,
명절 휴무



북카페 헤세
10:00~22:00



책만들며 크는 도서관(구심학산방)
031-955-807
10:00~17:00 공휴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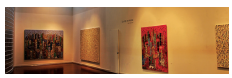


카페 인포떼끄
031-955-0099
08:0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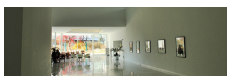
갤러리 • 박물관 • 체험장



광문각 나비나라박물관
031-955-3727
10:00~18:00 월요일 · 명절 휴관



갤러리 박영
031-955-4071
11:00~18:00 월요일 · 공휴일 · 명절
휴관



미메시스 | 열린책들 북카페
031-955-4108
09:00~18:00 명절 휴무



미메시스 미술관
031-955-4100
10:00~18:00 월요일 · 명절 휴관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070-7596-2500
11:00~19:00 일요일 · 공휴일 휴무



보림출판사 | 보림책방
031-955-3488
10:30~18:00 월요일 · 명절 휴무



보림출판사 | 홍성찬 갤러리
031-955-3488
10:30~18:00 월요일 · 명절 휴무



보림출판사 | 도자기체험 토향
031-941-2029
10:00~17:00 월요일 휴무



보림출판사 | 보림 인형극장
031-955-3488



성지문화사 고지도전시장
031-955-7490
10:00~18:00 주말 · 공휴일 휴관



생태교육연구소 산들바람
031-942-7910
14:00~18:00 월요일 · 화요일 휴무



아르디움 스토어
031-955-1859
09:00~18:00 동절기 주말 · 명절
휴무



어린왕자 7321 스토어
031-914-7321
10:00~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031-955-1625
10:00~16:00 주중 18:00까지, 일
요일 · 공휴일 휴무



여원 탄탄스토리하우스
031-955-7660
10:30~17:00 월요일 휴무



열화당 책박물관
031-955-7020
10:00~17:00 주말 휴관



인더페이퍼 파주
031-955-1481
09:30~17:30 주말 · 공휴일 휴관



출판도시 활판공방
031-955-0085
10:00~17:00 사전예약



피노키오 뮤지엄
031-955-6173
10:00~18:00 주말 · 공휴일 19:00
까지, 월요일 휴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숙박 시설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비롯 레스토랑, 은행, 헌책방 등을 고루 갖춘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출판도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00년 10월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병윤 건축가가 설계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주변 환경과 건축의 조화가 돋보이는 건물로, 2004년 제14회 김수근 건축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1층 공용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열린독서공간 '지혜의숲'은 같은 해 제9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거리마당상' 수상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생각을 가꾸는 글과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가 함께 있는 곳.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자연과 도시, 책과 문화, 건축과 예술을 잇는 새로운 문화 공동체입니다.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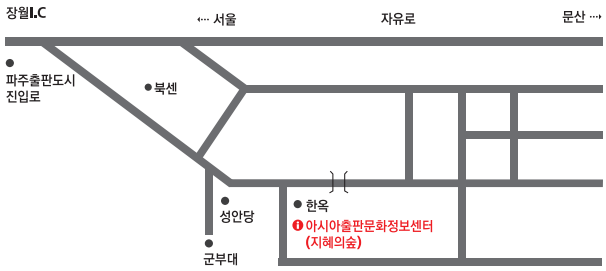
자가용 이용 시 자유로를 따라 파주 · 문산 방면으로 직진, 이산포 IC기점 약 7Km지나 '파주출판도시' 표지판 나오면 우측도로 진입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2, 9호선 당산역에서 9000번 버스 이용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에서 2100, 2200번 버스 이용 25분 소요
지하철 3호선 백석, 마두, 정발산, 주엽, 대화역에서 200번 버스 이용

서울역 출발 1시간 40분
서울역 →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승차) → 합정역 2번출구 (2 호선 환승) → 파주출판도시 (직행 버스 2100 환승 / 버스 2200환승) → 도착

김포공항 출발 1시간 50분
김포공항역 → 당산역 13번 출구 (9 호선 승차) → 파주출판도시 (직행 버스 9000 환승) → 도착

인천공항 출발 1시간 50분
인천국제공항 8A →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공항 5600 승차) → 파주출판도시 (직행 버스 2200 환승 / 버스 078, 20 환승) → 도착



발행일 2014년12월 28일
발행처 출판도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언호
편집 이호진 과장, 박소현, 이연희
디자인 AGI SOCIETY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전화 031-955-0050
팩스 031-955-0055
홈페이지 www.pajubookcity.org

* 이 자료집은 '출판도시 인문학당'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여기 실린 콘텐츠의 무단 도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출판도시인문학당